

93-12-111
3350 (3751)
(891.1)

북한의 역사인물 평가와 최근 북한 문학의 경향

전산적



한국의
역사인물
평가와
최근 북한
문학의 경향
통일원

통 일 원

- 이 보고서는 『통일문제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위촉된 특수과제연구결과 임.
- 여기에 수록된 내용은 당원의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님.

총 목 차

1. 남북 역사인식의 주요쟁점 3
도 진 순(창원대 교수)

2. 최근 북한문학의 경향 61
김 재 용(연세대 강사)

남북 역사인식의 주요 쟁점

— 역사적 인물에 관한 북한의 논평을 중심으로 —

도진순(창원대학교 교수)

목 차

〈내용요약〉	5
머 리 말	15
1. 변증법적 유물사관과 주체사관	18
1) 역사의 본질 규정	18
2) 역사 평가의 기준	19
2. 인물평가의 기준과 《력사사전》	23
1) 인물에 관한 기준	23
2) 《력사사전》과 인물수록	24
3. 고조선 — 고려의 인물	30
1) 고조선과 삼국의 인물	30
2) 고려의 인물	34
4. 이조 및 근대의 인물	38
1) 이조의 인물	38
2) 근대의 인물	52
맺 음 말	59

〈내 용 요약〉

사마천의 《사기》에서도 가장 회자되는 부분이 인물사를 기록한 〈열전〉이요 Plutarch(플루타크)의 *Lives*(《영웅전》)가 세계적인 고전인 데서 알 수 있듯이, 역사적 지도자 또는 인물에 대한 역사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역사학의 고전적 범주에 속한다.

주지하다시피 북한의 역사학은 변증법적 유물사관에서 주체사관으로 변화하였다. 변증법적 유물사관에서는 지도자 및 인물에 대한 평가를 ‘역사에서 개인의 역할’이란 명제로 중요시한다. 주체사관은 역사의 주체인 ‘인민대중’을 ‘지도와 대중의 결합체’로 보며 여기서 지도자 및 인물에 대한 평가를 매우 중요시하며, 나아가 그들의 ‘수령론’과 연결되기도 한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지도자 및 인물에 대한 이해는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라, 민족문화유산의 핵심으로서 남북 역사학계의 공통적인 과제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먼저 변증법적 유물사관과 주체사관의 특징을 개관하고, 북한에서 인물을 논평하는 기준과 《력사사전》(1970)의 인물 선정 원칙을 살펴본 후, 사전에 수록된 고대~근대부분의 인물 평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변증법적 유물사관과 주체사상으로 변화하여 온 북한에서 역사적 지도자 및 영웅에 대한 평가의 기준은 ① 주체성의 원칙, ② 당성, 노동계급의 원칙, ③ 역사주의의 원칙 등 세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주체성의 원칙’이란 ‘매개 나라에서 혁명의 주체는 그 나라 대중이며 자기나라의 혁명을 위해서 모든 것을 복종시켜야 한다’는 것으로, 결국 ‘민족과 국가에 대한 강조’를 의미하는 것이다. ‘노동계급·당성의 원칙’이란 교리는 민족적 전통과 문화유산을 ‘인민·노동계급·당의 입장에서 분석·평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역사주의의 원칙’이란 역사적 사실을 당시의 구체적 조건 아래서 과장하거나 축소하지 않고, 그 발생·발전하는 모습을 온당하게 연구하는 입장을 말한다.

북한의 인물에 대한 평가는 논리적으로 매우 정합적인 모습을 띄고 있지

만, 현실에서는 ‘민족적 애국적 관점’과 ‘노동계급적 관점’은 미묘한 갈등 관계를 내포하고 있었고, 시기에 따라 어느 한 관점이 선차적으로 강조되기도 하였다. 북한정권의 수립후 50년대초반까지 계급적 관점이 우세하였다면, 1950년대 후반~60년대 전반은 민족허무주의를 비판하면서 민족적 관점이 강조되었고, 1960년대 후반~1970년대는 복고주의를 비판하면서 다시 계급적 관점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주체사상이 유일사상으로 전면화되고 난 1980년대부터는 1970년대까지의 좌경적 관점이 다소 시정되면서 민족적 관점을 다시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이처럼 북한에서 사관의 실질적 변화는 민족성과 계급성 사이에 지그재그적인 변화를 하였지만, 적어도 논리적으로는 ① 주체성 원칙, ② 당성, 노동계급성의 원칙, ③ 역사주의의 원칙 등 세가지 기준을 같이 강조하고 있다. 예컨대 북한은 역사주의의 원칙을 방기하여 민족적 영웅을 무시하는 민족허무주의를 비판하면서 우리나라 역사에서 ‘진보적·애국적 영웅’들을 정당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 결과 고구려의 대당투쟁에서 을지문덕, 고려의 대여진투쟁에서 강감찬, 조선시기 임진왜란의 이순신 등 ‘애국적 명장’과 16세기 후반 동의학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 허준, 대동법과 금속화폐에 공헌이 있는 김육, 홍대용·박지원·정약용 등 ‘선진적 실학자’, 신채호·박은식 등 ‘애국적 정치문화활동가’들의 진보적 애국적 활동을 정당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동시에 ‘진보적 애국적 영웅’에 대한 평가에서 ‘당성, 노동계급성의 원칙’을 방기하고 복고주의에 빠지면 이들의 역사적 제한성마저 무시해 버리고 완전히 ‘인민적인 인물’로 묘사하거나, 그 낙후성과 반동성까지 찬양하게 된다고 비판하였다. 북한에 의하면 이렇게 되면 ‘과거의 애국명장’들과 ‘현재의 영웅’을 동일시하고, ‘양반 영웅주의’와 ‘출세주의’를 비롯하여 계급사회가 지니고 있는 온갖 불건전한 문화와 사상을 재생시킨다고 비판하였다.

본고에서 검토하고자 하는 《력사사전》에 대해서는 ① 1970년에 편찬된 것으로 복고주의를 비판하면서 계급적 관점이 상대적으로 강조되던 시기의 지

작이며, 따라서 인물에 대한 평가가 주로 제한성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강하다는 점, ② 부분적으로 ‘좌경적’인 내용은 수정되지만 기본적인 내용은 1980년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 두가지를 아울러 주목할 필요가 있다.

《력사사전》에 수록된 인물은 모두 166명이다. 이들을 시대별로 검토하기 전에 우선 김일성과 관계되는 현대 부분을 살펴보면, 눈에 띄는 특징은 전체 166명중 근대 이전의 인물은 67명으로 40.36%에 지나지 않고, 김일성의 가족과 전사 및 투사로 구성된 현대의 인물은 90명으로 전체의 54.22%나 된다는 사실이다. 즉 《력사사전》의 주체성 원칙과 당성, 노동계급성의 원칙은 ‘김일성의 항일무장 투쟁’에 대한 강조와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현대 부분과 다른 분야의 나이를 대비해보면 재미있는 결과가 나온다. 현대 부분은 9세의 아동투사 김금순부터 수록하고 있으며, 주로 20-30대 인물로 구성되어, 평균나이가 28세인데 비해, 그외 부분은 27세의 나이가 최연소이며, 주로 50-70대의 인물로서, 평균나이는 59세이다. 나이에서의 이러한 대비는 《력사사전》의 현대 부분이 그 외 부분에 비해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청소한 사람들을 많이 수록하고 있다는 표식이 될 것이다.

현대 부분 90명중 김일성과 직접 관계되지 않은 사람은 ‘1930년대 원산총파업’을 지도한 ‘혁명투사’ 강주룡 한 명이며, 그외 89명은 모두 김일성의 가족이거나 전사, 투사로 되어 있다. 김일성의 가족으로 《력사사전》에 등록된 사람은 모두 7명인데, 다른 인물과는 달리 모두 ‘동지’ ‘선생’ ‘녀사’ 등의 존칭을 사용하고 있고, 또한 모두 대문자로 표시하였다. 그러나 김정숙에 대해서는 ‘김일성의 부인’이란 언급도, 어떠한 존칭도, 대문자 표식도 없다. 이것은 지금의 김정숙에 대한 추대 운동과 비교할 때 매우 특징적인 것인데, 아마도 《력사사전》 발간 당시가 김정일에 의한 김정숙 추대 운동이 본격화되기 이전이며, 김일성의 부인 김성애가 주로 활약하던 것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 한편 현대 부분의 인물중 김일성의 가족 이외는 모두 83명인데, ① ‘혁명투사’, ② ‘김일성의 전사’ + ‘혁명투사’, ③ ‘김일성의 전사’

+ '혁명투사' + '공산주의자'로 세가지로 활동을 분류하고 있다.

이제 《력사사전》에 수록된 고조선부터 근대까지의 인물에 대해 간단히 요약하고자 한다. 고조선의 인물로는 '한나라 침략군을 반대하는 최후의 결전을 지휘한 무관'으로 성기 한 사람을 수록하고 있다.

다음 삼국을 보면 고구려의 인물로는 양만춘, 연개소문, 왕산악 등 3명, 신라의 김유신, 박제상, 설총, 장보고, 최치원 등 5명을 수록하고 백제의 인물은 하나도 없다. 고구려와 신라를 비교할 때 인물 선정에서 고구려 중심은 볼 수 없다.

《력사사전》이 다루고 있는 고구려 인물중에서 가장 흥미있는 사람은 연개소문이다. 사전은 연개소문의 대외정책과 대내정책을 분리하여, 전자는 '애국적'으로 높이 평가하고, 후자는 '국내 인민을 가혹하게 착취한 반인민적인 것'으로 비판하고 있다.

《력사사전》에 수록된 신라의 인물로는 김유신, 박제상, 설총, 장보고, 최치원 등 5명이다. 인물선정의 기준은 역시 대외 활동이 우선임을 알 수 있는데, 신라의 인물중 가장 흥미로운 사람은 역시 삼국통일을 수행한 김유신이다. 사전은 김유신이 압량주군주, 상장군, 대각간, 태대각간 등 신라의 고위 관직을 역임한 사실과 당나라에 의거한 삼국통일의 '역사적 후과'를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김유신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비판적이지만 몇 가지 점에서 특별한 흥미를 끈다. 하나는 삼국통일에 당나라 군대를 끌어들이는 것을 비판하면서도, 김유신이 그러한 입장을 주도한 것이라기 보다는 '지지'했다고 보며, 백제와 나당 연합군의 전투와 삼국통합후 당나라와 삼국민의 투쟁에서 김유신이 자주적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사전이 다루고 있는 신라의 지식인으로 주목되는 사람은 최치원이다. 사전은 그가 지방관리로 밀려나 문필 활동으로 통치계급의 비리를 폭로 규탄하였다고 '진보적 의의'를 인정하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력사사전》은 최치원의 한계점으로 계급적 한계와 더불어 '조선고유의 것'에 대한 '허무주의'와 '농민폭동의 진압'에 참여한 경험 등을 지적하고 있다.

고려의 인물로 《력사사전》에 수록된 사람은 모두 7명인데, 역시 대외투쟁

이 중심이며, 관련된 인물로는 대여진투쟁의 윤관, 대거란 투쟁의 강감찬, 김숙홍, 대몽고투쟁의 배중손 등이 있다. 이들중 윤관, 강감찬, 김숙홍 등은 지배계급출신의 '명장'이라 할 수 있다. 《력사사전》은 이러한 '명장'들에 대해서는 대외항쟁에서의 공로와 '애국정신'을 일정하게 평가하면서도, '결코 근로인민을 진정으로 대표하지 못하였다'는 김일성의 교시를 공통의 한계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들과 달리 지배계급출신이라 할 수 없는 배중손과 그가 이끈 삼별초군에 대한 《력사사전》의 평가는 보다 세심하다. 사전은 배중손의 활동과 삼별초군의 항전을 자세하게 소개하면서 '내외의 적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고 높이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역시 한계점을 지적하는데, 계급적 한계보다는 항쟁의 전술전략적 오류를 주로 지적하고 있다.

《력사사전》에 수록된 고려의 문화계 인사중 가장 주목되는 사람은 이규보이다. 사전은 이규보가 '봉건관료들 사이에서 진보적 사상을 가졌던 인물'로서 '중소지주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반동적 봉건통치배들의 죄행을 일정하게 폭로 하였으며, 거란 및 몽골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애국적 감정을 토로한 바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사전은 이규보를 기본적으로는 '봉건 국왕과 당시의 실제 집권자인 무신 최가들에게 충성을 다한 량반 관리'로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그가 농민폭동 진압에 참여하여 정치적으로 입신하였다고 비판하고 있다.

《력사사전》에 수록된 이조의 인물은 모두 52명인데, 이들은 ① 이조 초기의 관료, 학자, 장군 ② 임진왜란(북한의 표현: '임진조국전쟁') 시기 관리, 무관, 의병장, ③ 임란 이후 조선 중기의 관리, 학자, ④ 조선시기 문학자, 화가, 음악가, 서예가 등의 예술가, ⑤ 조선시기 기술자, 의학자, 농학자, 지리학자, 언어학자등의 과학분야 활동가, ⑥ 조선 후기의 '실학자' 등 6가지 범주로 분류할 수 있다.

《력사사전》은 이조 초기의 관료, 학자, 장군으로 정도전, 신숙주, 김종서, 서거정, 김시습, 남이 등 6명, 임진왜란에 관계되는 인물로 문관 류성룡, '애국명장' 이순신, '애국적 무관' 김시민, 박진, 박인로, '의병장' 김천일,

정문부, 조현, 곽재우 등 9명을 수록하고 있다. 이순신에 대해서 김일성의 교시를 인용하면서 ‘뛰어난 전략전술과 빛나는 승리로 하여 중세 해군전쟁사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세계적 명장’으로 이조의 관리 중 가장 높이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순신에 대해서도 ‘량반지배계급 출신의 지휘관으로서 그의 애국심은 국왕과 봉건국가에 대한 충성심에 기초한 것’이라고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임란후 이조 중기의 관리, 학자로 《력사사전》은 서경덕, 이이, 김육, 임성주 등을 들고 있다. 《력사사전》은 ‘리이’에 대해서도 많은 분량으로 그의 활동을 소개하고, ‘정치군사적 문제에서 다른 관료들보다는 진보적 견해’라는 ‘상대적 진보성’을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대적 진보성이란 평가는 철학과 사상에서도 이황과 대비되면서 기술되고 있다.

《력사사전》은 이조의 예술분야 활동가로 문학가, 화가, 음악가, 서예가 등을 수록하고 있다. 문학과 예술에 대한 북한이 평가 기준은 정치에서 ‘사회애국주의’에 비견되는 이른바 ‘민족적 형식과 사회주의적 내용’이다. 그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① 형식이 민족적인가, ② 내용이 인민적, 애국적인가, ③ 표현기법이 사실적인가, ④ 창작의 주체는 누구인가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문학예술분야에 수록된 사람은 소설가 김만중, 시인 김천택, 김수장, 김삿갓, 화가 이상좌, 정선, 신윤복, 김홍도, 장승업, 서예가 한석봉(한호), 음악가 박연, 성현 등이다. 화가들중 가장 높이 평가되는 김홍도를 보면, 그가 ‘지배계급의 취미와 봉건시대의 제약성’을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한계점을 지적하면서도, 풍경화, 동물화, 인물풍속화 등에 대표적인 업적을 남긴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그의 그림중 ‘로동하는 인민들의 일상생활을 여러 측면에서 진실하게 반영한’ 인물풍속화를 가장 높이 평가하고 있다.

다음 《력사사전》은 과학분야의 인물로 기술자 장영실, 의학자 허준, 허임, 이제마, 농학자 강필리, 지리학자이자 언어학자인 신경준, 지리학자 김정호 등 7명을 수록하고 있다. 이중 가장 높이 평가되는 김정호 관해서 ‘그가 아직 교통이 불편하고 현대적 관측기구가 없는 당시의 어려운 조건에서 갖은

고초를 다 겪으면서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지형을 조사하였고, 봉건통치배들의 박해와 천대를 받으면서 그리고 생활형편이 곤란한 가운데서도 자기의 첫 뜻을 기어이 이룩하기 위하여 제 손으로 지도를 나무에 새기는 등 힘든 일을 부지런히 함으로써 나라의 과학문화발전에 이바지하려는 애국정신을 발휘하였다'고 높이 평가하고 있다. 또한 그가 《대동여지도》를 작성함으로써, '부패타락한 리조봉건통치배들로 부터 봉건국가의 기밀을 누설하였다는 부당한 죄명'으로 체포 구금되어 감옥에서 비극적으로 죽은 사실도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력사사전》은 《대동여지도》의 한계점으로 '왕조사상을 선전하고 세계의 중심을 설정하고 거기에 우리나라 지리서술을 복종시키는 유학자로서의 저자의 사대주의적 편견'을 지적하고 있다.

《력사사전》은 조선조 후기의 실학자로 이익, 박제가, 홍대용, 서유구, 박지원, 정약용 등 6명을 수록하고 있다. 북한 역사학계에서 실학파에 대한 평가는 몇 단계의 변천을 겪지만, 《력사사전》은 김일성의 교시에 따라 실학파의 제한성을 강조하고 있다. 예컨대 실학파를 대표하는 정약용에 대해서도 그의 개혁안 《전론》을 '봉건적 농본사상에 기초한 것'이라 한계를 지적하고, 노비문제에 대한 그의 보수적 입장과 농민폭동을 반대한 사실을 비판하고 있다. 요컨대 《력사사전》은 조선 후기의 실학파를 '중소 지주계급 출신의 진보적 성향을 가진 량반'으로 보며, 따라서 '봉건통치배들의 죄행을 일정하게 폭로'하고 개혁안을 내놓았지만, 기본적으로는 지배계급적 대안이라고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력사사전》은 근대의 인물로 김옥균, 전봉준, 류인석, 안중근, 신채호, 최서해, 홍범도, 오동진, 량세봉 등 9명을 수록하고 있다.

《력사사전》(1970)은 갑신정변을 '조선에서의 첫 부르주아혁명'으로 보고 있으며, 그 지도자 김옥균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농민에 의존하지 않았다는 것과 일본 군대를 이용한 것, 국왕과 왕비에 대한 철저한 제압정책을 쓰지 않았다는 것 등을 그의 한계로 지적하고 있다.

1894년 '갑오농민전쟁'의 지도자 전봉준에 관해서 "농민전쟁의 훌륭한 지도자" "적에게 굴하지 않은 굳은 투지를 지닌 애국적 인물"로 높이 평가하

고 있다. 그러나 그가 봉건제도를 근본적으로 대체할 투쟁강령을 제시하지 못한 것과 농민 전쟁의 산만성과 자연발생성을 극복하지 못한 것 등을 한계로 지적하고 있다.

《력사사전》은 근대의 ‘반일의병장’으로 류인석과 홍범도, 민족주의계열의 ‘독립군지도자’로는 오동진과 양세봉을 수록하고 있다. 민족주의자중 양세봉에 대해서 그가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과 반일민족통일전선이 확대 강화됨에 따라’ 이에 영향을 받아 ‘오직 김일성동지의 령도를 받아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김일성과의 관계를 특별하게 언급하고, 그가 죽은 후 1938년 ‘그의 부대가 김일성의 조선혁명군에 편입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언급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지만, 전혀 근거를 밝히고 있지 않아 그 사실적 근거가 의문시되고 있다.

김일성이 ‘초기 항일혁명시기’ 만들었다는 혁명연극 《안중근 이동박문을 쏘다》의 주인공 안중근에 대해 《력사사전》은 ‘일제의 조선침략의 괴수 이동박문을 쏘 죽인 애국자’로 규정하며 그의 활동을 자세하게 정리하고 있다. 그러나 ‘대중투쟁과 결부되지 못한 그의 개인테러방법’은 ‘정확한 투쟁방침이 될 수 없다’고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력사사전》은 근대 문화분야의 활동가로 신채호와 최서해를 수록하고 있다. 신채호에 대해서는 ‘애국적이며 진보적인 력사가이자 문필가’로 일정하게 평가하면서도, 그가 ‘소브르조아적 제한성’으로 무정부주의운동을 하였으며, 맑스레닌주의와 노동계급의 민족해방운동을 과학적으로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한계점을 언급하고 있다.

최서해에 대해서는 그의 작품 《탈출기》가 근대 초기 프로레타리아문학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높이 평가하며, 이를 신상옥이 영화로 만든 적도 있다. 그러나 《력사사전》은 그의 작품속에 나오는 주인공들의 반항이 대중의 혁명투쟁과 조직적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발광 살인 등 비정상적인 형태로 표출되고 있다고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이상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력사사전》은 1970년에 편찬된 것으로 북고주의 비판과 더불어 주체성의 원칙과, 당성, 노동계급성의 원칙이 상대적으로

강조되던 시기의 저작이며, 그 결과 지도자 및 인물에 대한 평가가 전반적으로 제한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도자 및 인물에 대한 평가 기준이 시기와 현실에 따라 강조의 순위가 바뀌면서도 자기 종합적인 모습을 지니고 있듯이, 《력사사전》의 ‘좌경적인 내용’은 일부 수정되지만, 내용의 기본적인 틀은 1980년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우리는 좌경적 한계를 고려하면서도, 《력사사전》을 통해 인물 평가에 대한 북한의 세가지 기준을 보다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력사사전》은 비록 북한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인물만을 수록하고 있지만, 현대 이전, 즉 노동계급과 그 지도자가 출범하기 이전의 지도자 및 영웅은 기본적으로 한계를 지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러한 평가와 한계는 위의 3대 원칙에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력사사전》의 첫번째 특징은 주체성의 원칙에서 민족적, 애국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물을 ‘애국적’이란 표현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것은 《력사사전》에서 인물선정의 제일의 원칙이며, 고조선에서 현대까지 기본적으로 관철되는 특징이다. 그러나 이 원칙은 현실적으로는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을 강조하는 기능을 맡고 있으며, 역사적 인물에 대해서는 자주적 관점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특성을 지니게 된다.

《력사사전》은 두번째 원칙인 당성, 노동계급성의 원칙에 의해서 계급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사전은 이러한 계급적인 문제를 ‘지배계급’ ‘피지배계급’ ‘노동계급’의 세가지 차원으로 구분하고 있다. 사전은 근대까지 지도자와 인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배계급의 경우, 인민적 경향이 있는 선진적인 부분을 ‘진보적’이라 표현한다. 반면 농민, 천민 등 피자배층의 지도자 및 인물을 ‘인민적’이라 평가하지만, 봉건적 근대적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현대의 노동계급과 뚜렷하게 구분하고 있다.

다음 《력사사전》은 ‘력사주의의 원칙’에 의해서 지도자와 인물의 한계점을 진단하는데, 이것은 두가지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당시 계급적, 시대적 제약에 의해 불가피한 부분을 ‘계급적’ 또는 ‘본질적’ 한계로

분류하고, 당시에 가능한 것인 데 성취하지 못한 전술전략적 오류들은 매우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예컨대 전봉준의 경우 중세적 안목을 벗어나지 못한 그의 농민적, 계급적 한계와 농민전쟁시기 전략전술적 오류를 같이 진단하고 있는 것이다.

머릿말에서 언급했듯이, 우리 역사의 자도자와 영웅에 대한 인식은 역사학에서 고전적 위치를 차지하는 중요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민족적 유산중 가장 소중한 것도 구체적인 것이다. 그런데 앞으로 남북 역사학계의 활발한 접촉과 토론으로 이러한 편차를 극복하고 통일된 인식을 성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들은 집안의 조상, 남의 선조, 북의 위인이 아니라 우리 민족 공동의 역사적 자산이기 때문이다.

머 리 말

북한의 역사학이 지닌 전반적인 특성과 주요한 쟁점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소개된 바 있다.¹⁾ 본고에서는 이러한 성과를 기반으로 해서 북한 역사학계에서 우리나라 역사의 지도급 인물들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주지하다시피 지도자 또는 인물에 대한 역사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역사학의 고전적 범주에 속한다. 이것은 사마천의 《사기》에서도 가장 회자되는 부분이 인물사를 기록한 〈열전〉이요, Plutarch(플루타크)의 *Lives*(《영웅전》)가 세계적인 고전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역사학에서 인물사가 차지하는 이러한 고전적 지위는 ‘역사가 인간들의 활동에 관한 기록’임을 상기한다면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흔히 변증법적 유물사관 또는 맑스레닌주의에서는 지도자와 인물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고 사회구조와 계급관계 등 이른바 ‘하부구조’에만 주목하는 것으로 파악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물론 맑스레닌주의의 변증법적 유물사관이 그간의 역사관에 비해 역사에 대한 사회경제적 이해에 다대한 공헌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일부 기계적인 사회경제학자들이 이해하는 것과 같이 변증법적 유물사관과 사회경제사학은 결코 동의어가 아니며, 변증법적 유물사관이 인물이나 지도자에 대한 이해를 도외시한 것 또한 결코 사실이 아니다.

오히려 맑스레닌주의의 세계적 논쟁과정에서 확인되는 것은 변증법적 유물사관은 이러한 지도자와 인물, 또는 당과 같은 조직을 사회경제구조 또는 인민대중과 분리하려는 경향을 비판하면서 성립되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1) 대표적인 성과로 다음과 같은 연구가 있다. 조동걸·노태돈·안병욱·도진순·한홍구(1988), 〈좌담: 북한에서는 우리 역사를 어떻게 보는가〉, 《역사비평》 겨울호; 이광린(1989), 〈북한의 역사학〉, 《동아연구》 16집, 서강대 동아연구소; 최영묵(1990), 〈북한의 역사연구기관·연구지 및 연구자 양성과정〉, 한국역사연구회, 《역사와 현실》 3호, 한울. 단행본으로는 김정배, 노태돈 외(1989), 《북한이 보는 우리 역사》, 을유문화사; 안병우, 도진순 편(1990), 《북한의 한국사 인식》 1-2, 한길사가 대표적이다.

변증법적 유물사관이 지도자 및 인물에 대한 인식을 ‘역사에게 개인과 대중’의 문제로 철학적으로 정리한 것이나,²⁾ 중국, 소련에서 현실적으로 ‘지도자에 대한 평가와 숙청’이 당 역사의 핵심이란 사실이 이것을 증명하고도 남음이 있다. 결국 우리는 변증법적 유물사관 역시 지도자 내지 인물에 대한 인식을 매우 중요시하며, 다만 기존의 사관과는 다른 관점을 제시하는 것으로 파악하는 것은 온당할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북한의 역사학은 변증법적 유물사관과 주체사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자에서 후자로의 전환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하고 있다.³⁾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변증법적 유물사관에서도 지도자 및 인물에 대한 인식은 중요하지만 주체사관 역시 이를 매우 중요시하고 있다. 주체사관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역사에서 주체 문제이고, 따라서 역사를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이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주체사관은 역사의 주체인 ‘자주적 인민대중’을 ‘지도와 대중의 결합체’로 보며, 여기서 지도자 및 인물에 대한 역사적 인식은 매우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⁴⁾

우리나라 역사에서 지도자 및 인물에 대한 이해는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라, 민족유산의 핵심으로써 남, 북 역사학계의 공통적인 과제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의 출발점으로서 우선 북한에서 우리 민족의 지도자 및 영웅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북한 역사학계의 인물 및 지도자에 관한 인식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자료는 사전류의 인물관계 항목이다. 인물관계 항목을 수록하고 있는 북한의 사

2) 편집부편(1985), <역사에 있어서의 대중과 개인의 역할>, 《세계철학사 3;사적유물론》 제8장(282~302쪽); 이정길(1989), 《철학의 새로운 단계》, 녹두, 422~426쪽 참고

3) 여기에 대해서는 우선 조동걸·노태돈·안병욱·도진순·한홍구, <좌담: 북한에서는 우리 역사를 어떻게 보는가>, 《역사비평》 1988 겨울호

4) 이정길(1989), 427~440쪽; 사회과학출판사편(1985), 《주체사상의 사회력사원리; 주체사상총서 2》, <제1장: 인민대중은 사회력사의 주체>, 백산서당번각(1989), 33~199쪽. 변증법적 유물사관이 역사적 지도자들을 ‘역사에서 탁월한 개인의 역할’ 문제로 파악하는 반면, 주체사관은 ‘지도와 대중’의 결합 문제로 파악하고 있다. 즉 주체사관은 지도 특히 노동계급의 지도는 ‘역사에서 개인의 역할’이란 변증법적 유물론의 범주로 해석할 수 없는 문제로 파악하고 있다. 여기서 주체사관의 이른바 ‘수령론’이 나온다.

전으로는 《력사사전》(1970) 《정치사전》(1973) 《경제사전》1-2(1985) 《철학사전》(1985) 등이 있지만, 압도적으로 많은 항목의 인물을 수록하고 있는 것은 역시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가 편찬한 2권의 《력사사전》이다. 따라서 본고는 변증법적 유물사관과 주체사관의 특징을 개관하고, 북한에서 인물을 논평하는 기준과 《력사사전》의 인물 선정 원칙을 살펴본 후, 《력사사전》에 수록된 인물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1. 변증법적 유물사관과 주체사관

일반적으로 역사관을 구성하는 요체는 ① 역사발전의 법칙과 동력을 어떻게 파악하는가 라는 '역사의 본질에 대한 규정', ② 후세의 역사가들이 '과거의 역사적 현상과 사물을 평가·분석하는 기준' 등 두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여기서는 이러한 두가지 문제를 중심으로 하여, 필요한 만큼 해방 이후 북한 역사학계를 주도한 사관인 변증법적 유물사관과 주체사관을 비교·검토하고자 한다.

1) 역사의 본질 규정

주지하다시피 변증법적 유물사관의 기본교리는 ① 인류 역사를 사회적 생산(생산력)의 발전에 의한 사회제도(생산관계)의 합법칙적 교체과정으로 보며, ② 인민대중이 역사의 창조자이며, ③ 계급사회 이후 역사발전의 가장 중요한 동력을 계급투쟁이라고 규정하였다. 변증법적 유물사관은 역사에 대한 유물론적 본질과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변증법적 관계를 밝힘으로써, 스스로 역사에 대한 기존의 온갖 관념론과 주관주의, 신비주의와 영웅주의 사관을 퇴치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주체사관 또한 변증법적 유물사관이 기존의 어떠한 역사관 보다 우월하다는 평가를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주체사관은 변증법적 유물사관을 완성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선행한 노동계급의 역사관'으로 그 선진적 의의를 일정한 수준에서 인정할 따름이며, 오히려 그 한계를 강조하였다.

주체사관에 의하면 변증법적 유물사관은 '인민대중을 역사의 창조자'라고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역사발전의 추동력 문제'를 전면적으로 해명하지 못한 '결정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한다. 주체사관은 그러한 비판의 역사적 경험으로 생산력이 발전된 수준에서도 생산관계의 변혁이 일어나지 않거나, 생산력의 수준이 낮은 단계에서 생산관계의 변혁이 일어날 경우를 제시하였다. 주체사관은 '생산력의 발전에 의한 생산관계의 변화·교체'라

는 변증법적 유물사관의 교리를 인정하면서도, 그러한 '객체의 운동법칙'을 규제하는 보다 상위의 '보편적 법칙'으로 '주체의 합법칙성'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⁵⁾

따라서 주체사관의 모든 논의는 '인민대중이 사회역사의 주체'라는 주체의 역사적 위치 규정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규정을 기반으로 주체사관은 '자주성을 위한 투쟁'의 역사적 내용으로, 사회주의 성립 이전에는 주로 계급적 착취와 민족적 억압을 벗어나기 위한 투쟁으로 정리하며, 사회주의 제도 수립 이후에는 사상·기술·문화 분야에서 낡은 사회유물을 청산하는 투쟁을 제시하였다.

주체사관은 인류 역사를 '투쟁의 력사'라고 보는 동시에 '인민대중의 창조의 력사'라 규정하고 있다. 투쟁의 역사가 주로 인민대중이 사회적 온갖 예속으로 부터 벗어나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자주성을 되찾기 위한 계급적·민족적 투쟁의 역사라면, 창조의 역사란 본질에서 인민대중이 자연의 구속에서 벗어나 자연을 인간의 이해와 목적에 맞게 개조하고 지배하기 위한 '창조적 노동의 역사', '물질적 정신적 재부의 창조사'를 의미한다.⁶⁾

이상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주체사관이 독자적으로 표방하는 역사의 본질에 대한 교리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① 인민대중은 사회역사의 주체이다. ② 인류역사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의 역사이다. ③ 사회역사운동은 인민대중의 창조적 운동이다. ④ 혁명투쟁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인민대중의 자주적 사상의식이다.⁷⁾

2) 역사 평가의 기준

변증법적 유물사관은 후세의 역사가들이 과거의 역사적 현상과 사물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고전적 기준으로 내세우는 이른바 ① '노동계급·당성의

5) 사회과학원(1985), 《주체사상총서》 1-2권, 사회과학출판사

6) 허중호(1991), <주체의 력사관 연구의 몇가지 문제>, 《력사과학》 4월호

7) 사회과학원(1985), 《주체의 사회역사원리; 주체사상총서 2》

원칙' 과 ② '역사주의의 원칙', 두 가지의 결합이다. 주체사관 또한 두 원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노동계급·당성의 원칙'이란 교리는 역사적 사건과 현상 및 민족적 전통과 문화유산을 '인민·노동계급·당의 입장에서 분석·평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역사주의의 원칙'이란 역사적 사실을 당시의 구체적 조건 아래서 과장하거나 축소하지 않고, 그 발생·발전하는 모습을 온당하게 연구하는 입장을 말한다. '노동계급·당성의 원칙'이 현재의 나아가는 기준이라면, '역사주의 원칙'은 과거에서 발전하는 바에 관한 기준인 셈이다.

변증법적 유물사관은 두 가지 기준의 결합을 매우 강조하며, 어느 하나라도 잘못되거나 누락되면 심오한 오류에 빠진다고 주장하였다. 북한에서도 당성의 원칙을 방기할 때는 흔히 우경적인 '수정주의'나 '복고주의'로, 역사주의의 원칙을 방기할 때는 좌경적인 '교조주의'나 '민족허무주의'로 빠진다고 비판하였다. 북한의 이러한 주장은 해방이후부터 지금까지 줄곧 주장하는 것이지만, 특히 1950년대 후반~1960년대 주체 확립을 강조하면서 역사연구의 여러가지 편향을 지적하던 시기에 본격적으로 나타났다. 당시 북한은 좌경적 민족허무주의자의 대표로 소련파의 박창옥, 우경적 복고주의자의 대표로 연안파의 김두봉을 지목하였다.⁸⁾

당시 북한 역사학계에서 '노동계급·당성의 원칙'과 '역사주의 원칙'의 결합을 통한 주체 확립은 ① 역사상에서 인민대중의 투쟁과 혁명전통 정리, ② 진보적 민족문화유산에 대한 수집과 보존 문제와 결합되었다. 북한은 먼저 투쟁사와 혁명 전통의 역사적 주체를 정리하기 위하여, 고대·중세의 농민봉기와 대외항쟁, 19세기 후반 삼남지역의 농민봉기, 1894년 갑오농민전쟁, 20세기초 반일의병투쟁, 3·1운동 이전 부르주아 민족운동과 근대화운동, 1920년대 이후 사회주의와 노동자계급의 민족해방 투쟁, 1930년대 항일 빨치산 투쟁 등 계급투쟁과 민족항쟁의 역사적 흐름을 강조하였다.

8) 김재홍(1965), <민족문화유산을 계승 발전 시킬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과 그 생활력>, 《역사과학》 제5호

다음 북한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문화유산으로 원시시대의 고고학적 유물, 고조선의 야금기술, 삼국시대의 천문학·의학·건축·회화·조형예술, 고려시대의 자기·금속활자·팔만대장경, 조선시대의 한글·즉우기, 거북선 등의 과학기술과, 법률·철학·어학·문학·미술·음악·무용·동의학 등 민족문화의 발전, 조선후기의 실학과 춘향전·심청전 등의 문학작품을 열거하였다.

북한은 혁명전통·문화유산에 대한 평가에서 우선 ‘역사주의 원칙’을 방기하고 ‘노동계급·당성의 원칙’을 교조적으로 적용하여, 노동계급이 나타나기 이전의 모든 것을 무시·부정하는 것을 ‘좌경적 민족허무주의’ 또는 ‘교조적 사대주의’라고 맹렬하게 비판하고, 당시의 역사적 제한성과 현실성을 기초로 하여 진보성과 민족적 흥미를 합당하게 평가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⁹⁾

당시 북한의 문제의식은 우리역사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주장하면서 민족허무주의에 대한 비판에 주로 기울어져 있었지만, 아울러 ‘노동계급·당성의 원칙’을 떠나 우리 것이라는 이유로 과거의 것을 일방적으로 찬미하는 경향에 대해서도 ‘우경적 복고주의’라 비판하였다.

북한은 그러한 예로서 팔만대장경 등의 문화유산에 대해 당대의 슬기로운 지혜와 진보성을 적절하게 분간하여 계승하지 못하고 낙후성과 반동성까지 찬양하는 것을 지적하였다. 북한은 복고주의에 빠지면 계급사회가 지니고 있는 온갖 불건전한 문화와 사상을 재생시킨다고 비판하면서 전통문화의 비판적 계승을 주장하였다. 예컨대 북한은 서민적 문화인 판소리도 그대로가 아니라 ‘탁성’을 제거하여 우리 창의 아름다움을 발전시켜야 하며, 수묵화가 조선화의 전통이라는 견해를 철회시키고 채색화의 전통을 강조하였다.¹⁰⁾

당성과 역사주의 원칙의 결합, 이에 의한 복고주의와 민족허무주의 비판은 북한 역사학계의 일관된 주장이었으며, 북한에서 주체의 확립과 깊은 관

9) 김석형(1966). <력사연구에서 당성의 원칙과 력사주의의 원칙을 관철할 데 대하여>, 《력사과학》 제6호

10) 김재홍(1965) 참고

면이 있다. 따라서 주체사관에서도 당성과 역사주의 원칙의 결합, 복고주의와 민족허무주의 비판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러나 주체사관에서는 주체의 문제를 당성과 역사주의 원칙의 정당한 결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결과물이 아니라, 오히려 당성과 역사주의 원칙을 보장하는 보다 상위의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주체사관은 이것을 이른바 ‘주체성의 원칙’이라 표방하였다.

북한이 스스로 표방하는 ‘주체성의 원칙’이란 ‘매개 나라에서 혁명의 주체는 그 나라 대중이며 자기나라와 혁명을 위해서 모든 것을 복종시켜야 한다’는 주체사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역사연구에서 자기나라 혁명을 중심에 놓는다’는 것으로 요약된다.¹¹⁾ 즉 주체성의 원칙이란 ‘민족과 국가에 대한 강조를 의미하는 것이다. 북한의 주체사관은 여전히 ‘프탈레타리아 국제주의’와 ‘사회애국주의’의 결합을 주장하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나라와 민족’을 기본으로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북한의 주체사관은 사회주의 일반과는 다른 제3세계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처럼 북한의 주체사관은 변증법적 유물사관과 일치하면서도 독특한 고유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것은 주로 민족적 문제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특성이 지나치게 강화될 경우 북한 역사학은 독특한 배타성을 지니게 될 것이다.

11) 허종호(1991) 참고

2. 인물평가의 기준과 《력사사전》

1) 인물평가의 기준

북한의 주체사상은 역사에서 주체의 문제를 가장 중요시하며, 주체의 문제는 ‘대중과 지도’의 결합으로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에서 역사적 지도자 및 영웅에 대한 인식은 주체사관의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부각되는 것이다.

주체사관은 이러한 주체사상의 철학적 원리에 의해 지도자와 인물을 평가하되 ① 주체성의 원칙, ② 당성, 노동계급성의 원칙, ③ 역사주의의 원칙 등 3가지 기준을 준거로 하고 있다. 이러한 준거는 역사적 사실에 의거하고 당대의 제한성을 고려하면서도 민족적, 애국적 관점과 인민적, 노동계급적 관점을 견지하게 되는 것이며, 이는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란 용어로 요약되는 것이다.

이처럼 북한의 인물에 대한 평가는 논리적으로 매우 정합적인 모습을 띄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민족적, 애국적 관점’과 ‘노동계급적 관점’은 미묘한 갈등관계를 내포하고 있었고, 시기에 따라 어느 한 관점이 선차적으로 강조되기도 하였다. 북한정권의 수립후 50년대초반까지 계급적 관점이 우세하였다면, 1950년대 후반~60년대 전반은 민족허무주의를 비판하면서 민족적 관점이 강조되었고, 1960년대 후반~1970년대는 복고주의를 비판하면서 다시 계급적 관점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주체사상이 유일사상으로 전면화되고 난 1980년대부터는 1970년대까지의 좌경적 관점이 다소 시정되면서 다시 민족적 관점을 강조하고 있다.¹²⁾

이처럼 북한에서 사관의 실질적 변화는 민족성과 계급성 사이의 지그재그

12) 북한 역사학계의 시기별 동향과 사관의 변천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을 참고된다. 도진순(1989), <북한의 역사학계와 근 현대사 시기구분 논쟁과 그 변화>, 한국역사연구회, 《역사와 현실》 창간호; 안병우(1990), <민족문화유산 평가의 기준과 내용>, 안병우, 도진순 편, 《북한의 한국사 인식》 1-2. 한길사

적인 변화를 하였지만, 적어도 논리적으로는 ① 주체성의 원칙, ② 당성, 노동계급성의 원칙, ③ 역사주의의 원칙 등 세가지 기준을 같이 강조하고 있다. 예컨대 북한은 역사주의의 원칙을 방기하여 민족적 영웅을 무시하는 민족허무주의를 비판하면서 우리나라 역사에서 ‘진보적·애국적 영웅’ 들을 정당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 결과 고구려의 대당투쟁에서 을지문덕, 고려의 대여진투쟁에서 강감찬, 조선시기 임진왜란의 이순신 등 ‘애국적 명장’ 과 16세기 후반 동의학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 허준, 대동법과 금속화폐에 공헌이 있는 김육, 홍대용·박지원·정약용 등 ‘선진적 실학자’, 신채호·박은식 등 ‘애국적 정치문화활동가’ 들의 진보적, 애국적 활동을 정당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¹³⁾

그러나 북한은 동시에 ‘진보적, 애국적 영웅’ 에 대한 평가에서 ‘당성, 노동계급성의 원칙’ 을 방기하고 복고주의에 빠지면 이들의 역사적 제한성마저 무시해 버리고 완전히 ‘인민적인 인물’ 로 묘사하거나, 그 낙후성과 반동성까지 찬양하게 된다고 비판하였다. 북한에 의하면 이렇게 되면 ‘과거의 애국명장’ 들과 ‘현재의 영웅’ 을 동일시하고, ‘양반 영웅주의’ 와 ‘출세주의’ 를 비롯하여 계급사회가 지니고 있는 온갖 불건전한 문화와 사상을 재생시킨다고 비판하였다.¹⁴⁾

2) 《력사사전》과 인물 수록

본고에서 검토하고자 하는 《력사사전》에 대해서는 ① 1970년에 편찬된 것으로 복고주의 비판과 더불어 노동계급의 관점이 상대적으로 강조되던 시기의 저작이며, 따라서 인물에 대한 평가가 주로 제한성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강하다는 점, ② 그러나 부분적으로 ‘좌경적’ 인 입장은 수정되지만 기본적인 내용은 1980년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 두가지를 아울러 주목할 필요가

13) 김재홍(1965) 참고

14) 김재홍(1965) 참고

있다.

《력사사전》은 <머리말>에서 인물 선정과 내용서술에서 북한의 3대 원칙중 ‘주체성의 원칙’ 과 ‘당성, 노동계급성의 원칙’ 을 강조하고 있고, 1950년대 ~60년대 초에 강조되었던 ‘역사주의 원칙’ 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다.

이 사전의 올림말 선정과 그 내용서술에서 편찬자들은 철저한 주체성의 원칙에 서서 당성, 노동계급성을 관철하며 엄밀한 과학성을 보장하도록 백방으로 노력하였다

이제 앞서 살펴본 인물평가의 기준과 《력사사전》의 <머리말>을 고려하면서 《력사사전》의 인물 선정이 지닌 구체적인 특성을 살펴 보고자 한다. 《력사사전》에는 ‘묘청의 반란’, ‘망이농민폭동’ ‘만적의 폭동계획사건’ 등 인물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사건들을 제외하고, 인물 그 자체만을 수록한 것은 총 166명이다.

이들의 왕조 및 시대구분별 구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시기 및 왕조별 인물수(비율)

시기 및 왕조	인물 수(백분비)
고조선	1(0.60)
고구려	3(1.81)
백제	0(0.00)
신라	5(3.01)
발해	0(0.00)
고려	7(4.22)
조선	51(30.72)
근대	9(5.42)
현대	90(54.22)
총	166(100.00)

〈표 1〉에서 우선 눈에 띄는 특징은 전체 166명중 근대 이전의 인물은 67명으로 40.36%에 지나지 않고, 김일성의 가족과 전사 및 투사로 구성된 인물은 90명으로 전체의 54.22%나 된다는 사실이다.¹⁵⁾ 즉 《력사사전》의 주체성의 원칙과 당성, 노동계급성의 원칙은 ‘김일성의 항일무장 투쟁’에 대한 강조와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는 것이다. 이점은 《력사사전》의 〈머리말〉에서 미리 밝히고 있다.

이 사전에서는 항일무장 투쟁시기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한 투쟁에 몸바쳐 싸운 수많은 혁명렬사들과 항일무장투쟁에 참여하였으며 해방후에도 혁명과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자기의 온 생애를 바쳐 경애하는 수령께 무한히 충직하였던 수많은 혁명렬사들에 대해서는 우선 널리 알려진 동지들의 투쟁업적을 신는데 그쳤다. 앞으로 많은 자료가 새로 수집되는 데 따라서 그들의 투쟁업적을 더 보충할 것이며 더 많은 혁명렬사를 올리게 될 것이다.

《력사사전》은 ‘혁명렬사’ 들중 ‘널리 알려진 동지’ 들을 수록하는 데 그쳤다고 했지만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근대까지의 인물에 비해서 현대부분은 거의 대부분 생소한 사람들이다. 이점과 관련하여 현대 부분과 다른 분야의 나이를 대비해보면 재미있는 결과가 나온다. 《력사사전》에 수록된 166명중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은 모두 135명인데, 이들을 현대부분과 그의 부분을 비교하면서 정리한 것이 〈표 2〉이다.

15) 현재 북한은 1926년 김일성의 ‘타도제국주의동맹’을 현대의 기점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력사사전》에 수록된 인물중 김일성의 가족 4명(아버지 김형직, 어머니 강반석, 삼촌 김형권, 외삼촌 강진석)과 김일성의 전사 김경석 등은 활동기간이 근, 현대 두 시기에 겹치게 된다. 북한이 설정한 근대말인 이른바 ‘민족주의운동으로부터 공산주의운동으로의 방향전환을 위한 투쟁’에 활동했던 인사들은 실질적으로 북한이 설정한 현대사에 더 관련이 많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들을 ‘현대’의 인물로 분류하였다. 북한의 근, 현대사 시기구분에 관해서는 도진순(1989) 참고.

〈표 2〉 수록 인물의 나이 대비

나 이	현 대	그 외	전 체
0~ 9	1	0	1
10~19	3	0	3
20~29	43	1	44
30~39	27	6	33
40~49	7	5	12
50~59	3	12	15
60~69	1	12	13
70~79	0	10	10
80~89	0	4	4
인원수(명)	85	50	135
최소(세)	9	27	9
최대(세)	66	83	83
평균(세)	28.27	59.38	40.83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현대 부분은 9세의 아동투사 김금순부터 수록하고 있으며, 주로 2-30대 인물로 구성되어 평균나이가 28세 밖에 되지 않는다. 반면 현대 부분을 제외한 분야에서는 27세의 남이가 최연소이고, 5-70대의 인물이 주로 많으며, 평균나이는 59세이다. 나이의 대비를 통해서 《력사사전》은 현대부분에 지나치게 청소년 ‘혁명렬사’를 많이 수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력사사전》에서 다루는 현대 부분의 인물은 이처럼 우리로서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므로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간략히 살펴 보고자 한다.

현대 부분에서 김일성과 직접 관계되지 않은 사람은 강주룡 한 명으로 그는 ‘1930년대 원산총파업’을 지도한 ‘혁명투사’이다.¹⁶⁾ 그외 89명은 모두

16) 《력사사전》 1, 48쪽

김일성의 가족이거나 전사, 투사로 되어 있다. 김일성의 《력사사전》에 등록된 사람은 모두 7명으로 이들의 가족관계와 사전에서의 활동 분류는 <표 3>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3> 김일성의 가족과 활동 분류

이름	가족관계	활동 분류
김형직	아버지	혁명투사
강반석	어머니	혁명가의 안해, 공산주의자, 혁명투사, 여성정치활동가
김형권	삼촌	혁명투사, 공산주의자
강진석	외삼촌	반일 혁명투사
김정숙	부인	김일성의 전사, 혁명투사, 공산주의자
김철주	동생	혁명투사, 공산주의자
김원주	4촌동생	혁명투사, 공산주의자

<표 4> 김일성의 가족외 현대부분 인물의 활동 분류

활동 분류	이름	명수
혁명투사	강주룡, 김금순, 리학만, 박길, 최인준	5
김일성의 전사 + 혁명투사:	강 건, 고석호, 구봉운, 김금산, 김락천, 김룡산, 김명팔, 김순덕, 김세일, 김주현, 김진, 김철진, 김충진, 김택규, 김택룡, 김학실, 김학천, 김한걸, 김혁철, 김인묵, 김일환, 권영벽, 남창일, 량성룡, 리광, 리달경, 리동걸, 리동광, 리동식, 리룡운, 리복림, 리봉수, 리철수, 리홍광, 리영해, 림승규, 림춘익, 문봉상, 박길송, 박달, 박동근, 박록금, 박선봉, 박순일, 박세홍, 박중철, 박원규, 배춘파, 신광순, 전동규, 주춘일, 지봉손, 지태환, 차광수, 차용덕, 최경화, 최희숙, 한홍권, 허성숙, 허형식, 황정해, 안길, 안순화, 오중선, 오중협, 오중흙, 오중화, 오일남, 윤창범 등	69
김일성의 전사 + 혁명투사 + 공산주의자	김경석, 김책, 류경수, 리계순, 리동학, 리제순, 마동희, 조정철, 최춘국	9

《력사사전》은 <표 3>에 수록된 김일성의 가족에 대해서는 다른 인물과는 달리 모두 ‘동지’ ‘선생’ ‘녀사’ 등의 존칭을 사용하고 있고, 또한 모두 대문자로 표시하였다. 그러나 김정숙에 관해서는 김일성의 부인이란 언급도, 어떠한 존칭도, 대문자 표식도 없는 것은 지금의 김정숙에 대한 추대 운동과 비교할 때 매우 특징적인 것이다. 이것은 《력사사전》 발간 당시가 김정일에 의한 김정숙 추대 운동이 본격화되기 이전이며, 김일성의 부인 김성애가 주로 활약하던 것과 관련이 있을 것 같다.¹⁷⁾ 아무튼 이점은 《력사사전》의 주체성의 원칙과 당성의 원칙이 북한 권력내의 상황과 정치적 연관을 맺고 있다는 하나의 표식이 될 것이다.

한편 현대 부분의 인물중 김일성의 가족 이외는 모두 ① 「혁명투사」, ② 「김일성의 전사 + 혁명투사」, ③ 「김일성의 전사 + 혁명투사 + 공산주의자」의 세가지로 활동을 분류하고 있다.¹⁸⁾ 이것을 도표로 간략하게 정리하면 앞의 <표 4>와 같다.

김일성의 가족이나 전사로 구성된 현대 부분의 인물에 대한 검토는 이 정도로 마치고, 장을 달리하여 고조선에서부터 근대까지의 인물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고자 한다.

17) 김정일의 등장과정에 대해서는 국토통일원(1984), 《북한개요》, 68쪽 참고.
당시 김일성의 현 부인인 김성애의 과도한 활동에 관해서는 김진계의 《조국》(하), 현장문학사를 참고

18) 이러한 규정은 물론 중복될 수록 인물의 비중이 높은 것이 사실이나,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닌 듯하다.

3. 고조선 - 고려의 인물

1) 고조선과 삼국의 인물

북한에서는 주체사상이 일반화되면서 고조선에 관한 연구를 한층 강화하였다.¹⁹⁾ 그러나 고조선은 개별 지도자의 활동을 거의 알 수 없는 시기의 특성으로 인해 《력사사전》은 고조선의 인물로 ‘고조선말기에 한나라 침략군을 반대하는 최후의 결전을 지휘한 무관’으로 성기 한 사람만 다루고 있다. 고조선의 인물로 성기를 다루는 것은 북한의 역사학이 ‘민족자주성’에 특별히 집착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사전은 성기가 우거왕 살해 후 ‘일시 조성되었던 혼란을 재빨리 수습하고 다시 대오를 정비하여 반공격을 조직’ 하였으나 ‘침략자와 반역자에 의해 살해되었다’고 소개하고 있다.²⁰⁾

다음 《력사사전》에 수록된 삼국의 인물을 보면, 고구려 양만춘, 연개소문, 왕산악 등 3인, 신라의 김유신, 박제상, 설총, 장보고, 최치원 등 5명을 수록하고 백제의 인물은 하나도 없다. 고구려와 신라를 비교할 때 인물 선정에서 고구려 중심은 볼 수 없다.

고구려의 인물에 관해서는 우선 거문고를 발명한 왕산악을 수록하고 있는데, 음악가로서 그의 업적을 간략하게 소개할 뿐 별다른 정치적 논평은 하고 있지 않다.²¹⁾

양만춘에 대해서는 ‘당태종의 눈을 화살로 쏘아 애꾸눈으로 만든’ 안시성 전투를 소개하면서, ‘그의 애국적 활동은 당침략자를 격퇴하는데 큰 의의’

19) 북한의 고조선에 관한 연구로는 이지린(1963), 《고조선사 연구》;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1963), 《고조선문제에 관한 토론집》; 사회과학원 고고학 연구소(1976), 《고조선문제 연구논문집》 등이 있으며, 이에 대한 남한 학자들의 비평은 이기동(1988), <북한에서의 고조선 연구>, 《한국사시민강좌》 2, 일조각; 이광린(1989), <북한 역사학계에서의 「고조선」 연구>, 《역사학보》 124, 역사학회; 노태돈(1989), <고조선과 삼국의 역사 연구에 대한 동향>, 김정배, 노태돈 외, 《북한이 보는 우리 역사》, 을유문화사, 이순근(1990), <고조선의 성립과 사회성격>, 안병우, 도진순 편, 《북한의 한국사 인식》 1-2, 한길사 등이 있다.

20) 《력사사전》2, 115쪽

21) 《력사사전》2, 1400쪽

를 지닌다고 평가하고 있다. 양만춘에 대해서는 ‘그의 이름은 사대주의에 물 젖은 봉건사자들이 쓴 이른바 정사에는 전하지 않으나 인민들 사이에 널리 전하여 왔다’는 지적이 흥미롭다. 사전은 전반적으로 양만춘을 높이 평가하지만, 그의 애국주의는 ‘봉건왕정에 대한 것’이란 제한성 또한 명시하고 있다.²²⁾

《력사사전》이 다루고 있는 고구려 인물중에서 가장 흥미있는 사람은 연개소문이다. 사전은 우선 연개소문이 ‘투항주의적 문무고관 100여명을 처단하고 최고 벼슬인 막리지’가 되어 천리장성을 쌓고 당나라에 맞선 강경한 대외정책을 평가하여, 그를 ‘당 외적에 큰 타격을 준 애국명장’으로 규정하고, “당시 당나라에서는 《연개소문이 온다》고 하면 울던 아이도 뚝 그쳤다는 이야기까지 전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²³⁾

그러나 《력사사전》은 연개소문이 ‘대내적으로는 인민들에 대한 억압과 착취를 강화하는 관료제도를 정비하여 고구려 봉건국가의 국력을 강화하는 데 모든 힘을 다하였다’며 그의 계급적 한계와 ‘반인민성’을 비판하였다. 결국 사전은 연개소문의 대외정책과 대내정책을 분리하여, 전자는 애국적인 것으로 후자는 ‘반인민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는 고구려 통치계급의 이익을 침범하는 외적에 대하여 큰 타격을 준 명장이었으나 국내 인민들을 가혹하게 착취하였다는 점에서 어느 봉건 관리와 다를바 없었다.²⁴⁾

《력사사전》에 수록된 신라의 인물로는 김유신, 박제상, 설총, 장보고, 최치원 등 5명이 있다. 인물선정의 기준은 역시 대외 활동이 우선이어서 ‘외교가’인 박제상, 해상활동가 장보고, 삼국통합의 주역 ‘김유신’ 등을 수록하고 있다.

박제상에 관해서는 《삼국사기》에 기록된 고구려 및 일본에 대한 그의 외교 활동을 소개하면서, 이를 ‘작은 나라’인 신라의 ‘적극적인 외교활동’으

22) 《력사사전》2, 1205쪽

23) 《력사사전》2, 1215~16쪽

24) 《력사사전》2, 1516쪽

로 평가하고 있다. 다만 박제상에 관한 《삼국사기》의 내용이 ‘설화적 요소가 많으며 봉건지배계급의 충군사상을 반영하고 있다’고 추가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²⁵⁾

장보고에 관해서는 그가 신라의 왕위 쟁탈전에 끼어든 사실과 ‘계급적 시대적 제약’을 언급하면서도, 청해진대사로서 ‘당나라 해적’을 물리치고 신라 사람들의 해외 진출을 도운 것을 업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는 지방상인 출신의 봉건관리로써 계급적 및 시대적 제약을 면치 못하였으나, 당나라 해적들의 만행을 제압하고 신라 사람들의 해외 진출을 도운 것은 그의 업적이 된다.²⁶⁾

《력사사전》의 신라 인물중 가장 흥미로운 사람은 역시 삼국통일을 수행한 김유신이다. 사전은 먼저 김유신이 압량주군주, 상장군, 대각간, 태대각간 등 신라의 고위 관직을 역임한 사실과 삼국통일의 문을 연 김춘추를 왕으로 추대하는데 활약한 사실들을 비판적으로 언급하였다. 또한 645년 김유신이 2,000여명의 백제군사를 죽여 큰 공을 세우는 매리포성 전투에 나갈 때, 집앞을 지나면서도 들리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왕명에 대한 충실성’으로 논평하고 있다.²⁷⁾

김유신에 관한 평가는 이처럼 전반적으로 비판적이지만 몇 가지 점에서 특별한 흥미를 끈다. 하나는 삼국통일에 당나라군대를 끌어들이는 것을 비판하면서도, 김유신이 그러한 입장을 주도한 것이라기 보다는 ‘지지’했다고 보며, 백제와 나당연합군의 전투와 삼국통일후 당나라와 삼국민의 투쟁에서 자주적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660년 백제와의 전쟁때 그가 지휘하는 5만의 신라군은 계백이 지휘하는 백제군을 황산벌에서 격전을 거듭한 끝에 이기고 사비성을 향하여 진군하였다. 사비성에 먼저 도착한 당나라 침략군의 두목 소정방은 신라군이 약

25) 《력사사전》1, 867쪽

26) 《력사사전》2, 242쪽

27) 《력사사전》1, 209~291쪽

속한 날자보다 며칠 늦게 왔다는 구실로 오만하게도 신라의 선봉장 김문영을 죽이려고 하였다. 이때 김유신은 격분하며 모역을 당할 수 없다고 하면서 《백제를 쳐부시기 전에 당나라군대와 싸워야 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취하였다. 소정방은 김유신의 당당한 위세에 놀려 대국주의적인 자기의 거만한 태도를 버리지 않을 수 없었다.

김유신은 신라봉건국가의 백제, 고구려를 패망시키는 데서와 뒤이어 당나라 침략세력을 내몰고 세 나라 영역의 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전쟁에서 큰 공을 세웠다.²⁸⁾

요컨대 김유신은 당나라와 신라의 연합에 의한 삼국통일을 주도했다기 보다 지지하는 입장에서 일정한 부분 당나라에 대해 자주적 입장을 일정하게 견지한 인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의 '역사적 후과'에 관해서는 뚜렷하게 지적하고 있다.

그는 태종 무열왕, 문무왕을 도운 가장 높은 귀족관료로써 당시 신라왕정의 대외정책 수립에서 외세를 끌어들이려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려는 그릇된 입장을 지지함으로써 인민들로 하여금 당나라 침략군을 물리치기 위하여 오랜 기간에 걸쳐 간고한 전쟁을 계속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으며 대동강 이북의 고구려령토를 신라의 지배밑에 통합할 수 없게 한 역사적 후과를 남기었다.²⁹⁾

《역사사전》에서 수록된 신라의 인물중 문화부분은 설총과 최치원 두 사람이다. 먼저 설총에 관해서는 '리두식 표현법을 체계화하여 발전'시켜 '우리말 적는법의 정리'에 '큰 공로'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그가 봉건유학자들의 '학문적 조상'이 된 것을 비판적으로 지적하고 있다.³⁰⁾

사전이 다루고 있는 신라의 지식인으로 주목되는 사람은 최치원이다. 사전은 먼저 최치원이 신라의 시독한림학사, 병부시랑, 지서서감 등의 관직을 지냈고 벼슬등급은 아찬에 이르렀지만, 중앙의 고위 관료들로 부터 배척받

28) 《역사사전》1, 291쪽

29) 《역사사전》1, 291쪽

30) 《역사사전》2, 114쪽

아 지방관리로 밀려났으며, 그후 문필활동으로 통치계급의 비리를 폭로 규탄하였다고 최치원의 '진보적 의의'를 평가하고 있다.

그는 신라봉건국가와 그 통치제도를 옹호하는 립장에 서있었으나 일부 글들에서는 악질 봉건통치배들의 행동이 봉건통치체제의 정상적 유지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고 보면서 그들을 《좁벌레》, 사리사육에 어두운 관료배들을 여우에 비유하였다. 여기서 당시의 중세문학가로서의 그의 진보적인 면이 있다.³¹⁾

그러나 《력사사전》은 최치원의 한계점으로 계급적 한계와 더불어 '조선고유의 것'에 대한 '허무주의'와 '농민폭동의 진압'에 참여한 경험 등이었다.

그의 력사관은 봉건유교사상에 기초하고 있었으며 조선 고유의 것에 대한 허무주의적 태도를 발로시킨 약점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당나라에서 벼슬할 때 농민폭동을 진압하는데 참가한 바 있다.

최치원의 '조선 고유의 것에 대한 허무주의적 태도'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혹 그가 만년에 가야산 일대에 은거한 사실 때문에 이러한 지적이 나왔는지도 모르겠다. 아무튼 이러한 지적은 남한에서 일반적으로 최치원을 '조선의 현묘지도(玄妙之道)'에 주목한 '조선적인 지식인'으로 보는 것과 대비된다.

2) 고려의 인물

고려의 인물로 《력사사전》에 수록된 사람은 모두 7명인데, 그중 4명이 대외 투쟁에 관련된 인물로 대여진투쟁의 윤관, 대거란 투쟁의 강감찬, 김숙흥, 대몽고 투쟁의 배중손 등이다.

이들중 윤관, 강감찬, 김숙흥 등은 지배계급출신의 '명장'이라 할 수 있다. 《력사사전》은 이러한 '명장'들에 대해서는 대외항쟁에서의 공로와 '애

31) 《력사사전》2, 823쪽

국정신'을 일정하게 평가하고 있다. 윤관에 대해서는 대여진투쟁으로 동북 국경을 지키는데 '일정한 공로'가 있었고,³²⁾ 김숙홍의 경우도 '대여진 반침략전쟁'에서 '그의 희생적인 투쟁'을 일정하게 평가하고 있다.³³⁾ 더욱이 강감찬은 거란의 침략을 격퇴시킨 '애국명장'으로 높이 평가되고 있다.³⁴⁾

그러나 《력사사전》은 대외항쟁에 공을 세운 지배계급 출신의 '명장'들에 대해서 그 '애국적 활동'을 평가하면서도, 김일성의 다음과 같은 교시로 공통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있다.

옛날의 이름있는 장군들이 외래 침략자를 반대하여 용감히 싸운 그 애국정신은 물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이 한 가지 측면만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애국정신은 비록 좋은 것이었지만 그들은 결코 근로인민을 진정으로 대표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구상한 나라도 물론 근로인민을 위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³⁵⁾

윤관, 김숙홍, 강감찬 등과는 달리 지배계급출신이라 할 수 없는 배중손과 그가 이끈 삼별초군에 대한 《력사사전》의 평가는 보다 세심하다. 사전은 1270년 강화도에서 '몽고침략자 및 그들과 결탁한 국왕을 비롯한 봉건통치배들을 반대'하여 삼별초군이 항전을 개시한 때부터 진도, 김해, 마산 등으로 이동하면서 항전을 계속한 사실과, 1271년 배중손 전사후 김통정 지휘하의 제주도 항전까지 비교적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삼별초 항전을 용감히 지휘'한 배중손에게도 그 한계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그것은 주로 전술전략적 오류였다.

그가 항전의 첫시기에 강화도안에 있는 계급적 원수들을 철저히 숙정하지 못하고 일부 놓쳐버린 것이라든가, 인민들의 투쟁기세를 더욱 능동적으로 조직 하면서 료지로 나아가지 못하고 진도로 물러선 것 등은 항전 실패의 중요 원인이 되었다.³⁶⁾

32) 《력사사전》 2, 1309

33) 《력사사전》 1, 248쪽

34) 《력사사전》 1, 22쪽

35) 《력사사전》 1, 22쪽

36) 《력사사전》 1, 973쪽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배중손과 그의 지휘밑에 시작된 삼별초 항전을 ‘내외의 적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고 높이 평가하고 있다.

다음 과학 문화부분에서 수록된 고려의 인물은 이규보, 문익점, 최무선 등이다. 문익점에 관해서는 원나라에 사신가서 원나라 지배층의 기도를 반대하다 귀양가서 고초를 겪은 그의 외교활동과 목화씨의 도입을 비교적 높게 평가하고 있다. 다만 그가 이색등과 함께 ‘온화한 개혁과 양반에 속했기 때문에 리성계 일파의 배척을 받았다’며 그의 정치적 입장을 추가하고 있다.³⁷⁾

최무선에 대해서도 그가 화약 및 화약무기를 발명하게 된 과정과 왜구와의 실전에서 사용한 사례들을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별다른 정치적 논평이 없으나, 다만 그가 화약 무기를 발명함으로써 ‘왕권 강화에 도움을 주어’ 벼슬이 문화부지사에 이르렀다고 정치적 행적을 추가하고 있다.³⁸⁾

《력사사전》에 수록된 고려의 문화계 인사중 가장 주목되는 사람은 역시 이규보이다. 사전은 이규보가 ‘봉건관료들 사이에서 진보적 사상을 가졌던 인물’로서 ‘중소지주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반동적 봉건통치배들의 죄행을 일정하게 폭로하였으며, 거란 및 몽골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애국적 감정을 토로한 바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13세기초 거란족 및 몽골의 침략이 있었을 때 그는 침략자를 규탄하는 많은 글을 지었으며 고려봉건통치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는 수많은 외교문서를 작성하였다. 량반으로써는 진보적인 측면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던 그는 중소지주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대토지소유자들의 지나친 착취를 조절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햇곡식을 읊음》 《농부를 대신하여 읊음》과 같은 일부 시에서는 농민들의 생활 처지를 그린 점도 있다.³⁹⁾

그러나 사전은 이규보를 기본적으로는 ‘봉건 국왕과 당시의 실제 집권자인 무신 최가들에게 충성을 다한 량반 관리’로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농민 폭등 진압에 참여한 것이 입신의 길이 되었음을 비판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37) 《력사사전》 1, 924쪽

38) 《력사사전》 2, 819쪽

39) 《력사사전》 1, 675~676쪽

13세기초 경주지방에 농민폭동이 일어났을 때 그는 《토벌군》의 문서를 쓰는 병마록사검수제로써 파견되어 폭동을 진압하는 데 참가하였다. 그후 그는 중앙정부의 한림원의 직원으로 임명되었다. 그는 이 때부터 최충헌에게 그 문학적 소양을 인정받게 되어 차츰 높은 벼슬을 하게 되었다.⁴⁰⁾

40) 《력사사전》 1, 675쪽

4. 이조 및 근대의 인물

1) 이조의 인물

《력사사전》에 수록된 이조의 인물은 모두 52명으로 현대부분을 제외하면 다른 어떤 분야보다 풍부하다. 따라서 이조부분은 북한과 《력사사전》이 보는 우리나라 역사의 지도자 및 인물에 인식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부분에 속한다.

《력사사전》에 수록된 이조의 52명은 편의적이지만, ①이조 초기의 관료, 학자, 장군 ② 임진왜란(북한의 표현 : ‘임진조국전쟁’)시기 관리, 무관, 의병장, ③ 임란 이후 조선 중기의 관리, 학자, ④ 조선시기 문학가, 화가, 음악가, 서예가 등의 예술가, ⑤ 조선시기 기술자, 의학자, 농학자, 지리학자, 언어학자 등의 과학분야 활동가, ⑥ 조선 후기의 ‘실학자’ 등 6가지 범주로 분류할 수 있다.

《력사사전》은 이조 초기의 관료, 학자, 장군으로 정도전, 신숙주, 김종서, 서거정, 김시습, 남이 등을 다루고 있다. 이조의 건국의 공신이라 할 수 있는 정도전에 대해서는 ‘고려왕조 말의 혼란된 봉건 질서를 수습하고 개혁파의 새 정권을 세우는 일과 외부의 대국주의적 강압을 반대한 면에서 진보적 역할을 하였다’고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정도전이 ‘봉건 지주계급의 이익을 철저히 옹호 대변’하였다는 계급적인 한계와 더불어 이조 초기 권력투쟁에 참여한 사실을 들어 ‘정권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활동했다는 면에서 당시의 다른 봉건관료와 다를 바 없었다’고 한계점을 언급하고 있다.⁴¹⁾

세종, 세조시기 ‘대관료이며 학자’인 신숙주에 대해서는 세조의 즉위와 관련하여 다음같이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세조의 왕위찬탈을 전후하여 세종왕의 《유언》을 배반하고 음흉한 방법으로

41) 《력사사전》 2, 288쪽

로 적극 지지한 것으로 해서 3차에 걸쳐 공신 칭호와 고령군이란 작호를 받았다.⁴²⁾

다만 신숙주가 함경도체찰사로서 여진 정벌에 활동한 사실은 별 다른 논평없이 기술하고 있다. 요컨대 《력사사전》은 그를 ‘이조에 복무한 대관료이며 학자’로 규정하고 있다.

세종조 4군 설치의 공이 있는 김종서에 대해서는 이를 긍정적으로 논평하면서도 그의 이러한 활동은 ‘어디까지나 리조봉천국가의 안전과 그 지위를 공고히 하려는데 있었다’고 제한성을 추가하고 있다. 또한 그가 단종을 옹립하려다 수양대군에게 살해된 것도 ‘봉건 충의사상에 기초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⁴³⁾ 즉 《력사사전》은 사육신, 생육신 등 단종옹립파와 신숙주 등 세조옹립파 간의 정치적 갈등을 권력투쟁으로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

생육신의 한 사람이었던 김시습에 대한 《력사사전》의 논평은 다음의 평가에서 알 수 있듯이 보다 복합적이며 흥미롭다.

그(문학작품 : 필자) 가운데서는 당시 농민들의 비참한 생활을 비교적 세밀하게 묘사하면서 관료, 지주들의 가혹한 봉건적 착취가 봉건제도의 강화에 도리어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을 우려하면서 쓴 작품들도 들어있다. 이러한 작품들은 작가의 계급적 제한성을 보여주고 있으나 당시로서는 보기 드문 우수한 작품들로서 15세기의 조선문학을 대표한다.

그의 자연에 대한 견해는 착잡한 면이 있으나 기본상 기일원론적 입장에 있으며, 신권적 허위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으나 중세기 철학자로서는 비교적 바르게 자연현상을 관찰하려고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사회현상에 대한 견해에서는 철저한 관념론적 립장에서 있었다. 봉건충의감이 강했던 그는 살아서 단종에게 충성을 다했다는 생육신의 한 사람으로써 후세 량반들사이에 일러왔다.⁴⁴⁾

요컨대 김시습에 관해서는 문학가이자 철학자로서는 ‘계급적 제한성’을 지적하면서도 당대 수준에서 가장 높게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생육신으로

42) 《력사사전》 2, 182쪽

43) 《력사사전》 1, 254쪽

44) 《력사사전》 1, 250쪽

서의 그의 활동과 정치적 지향은 관념론적 내지 봉건적 입장으로 비판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조선 초기의 대학자이자 관료인 서거정에 대해서는 《경국대전》을 비롯하여 《삼국사절요》 《동국여지승람》 《동문선》 《동국통감》 등 많은 책의 편찬에 참여한 것을 밝히고, 또한 ‘이 책들은 당시까지의 역사적 자료, 시문들을 체계화 하였다는 점에서 일정한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저술활동이 ‘모두 다 봉건왕조에 복무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창견은 없다’고 한계점을 강조하고 있다.⁴⁵⁾

한편 17세에 무관에 합격하고, 26세에 병조판서에 올랐으며, 여진 정벌에 공이 있는 남이에 대해서는 그의 대외활동을 중심으로 비교적 호의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그가 ‘옹호한 국가는 봉건지배계급의 국가였으며 봉건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계급적 제한성과 더불어 ‘봉건적 착취와 억압을 반대한 1467년 함경도농민전쟁을 진압하는 데 참가하였다’고 밝히고 있다.⁴⁶⁾

《력사사전》에서 임진왜란에 관계되는 인물로 수록된 사람은 문관으로 류성룡, ‘애국명장’으로 이순신, ‘애국적 무관’으로 김시민, 박진, 박인로, ‘의병장’으로 김천일, 정문부, 조현, 곽재우 등 9명이다. 이들중 ‘임진조국전쟁’ 시기 가장 중요한 관리로는 문관의 류성룡, 무관의 이순신이다.

먼저 류성룡에 대해서는 그의 업적을 비교적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다. 즉 그가 ‘당대의 이름있는 군사전략가였을 뿐만 아니라 군사이론가’였으며, 이순신, 권률, 이일, 신립 등 유능한 군사지휘관을 등용하는 한편, 이름만 남고 실속이 없는 진관제를 정비할 것을 주장하였고, 훈련도감과 속오군을 설치하여 국방력을 향상 시켰다고 평가하고 있다. 《력사사전》은 이처럼 류성룡이 ‘임진조국전쟁 시기 왜적의 침입으로부터 리조봉건국가를 수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고 전반적으로 높이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사전은 그

45) 《력사사전》 2, 90쪽

46) 《력사사전》 1, 427쪽

의 계급적 한계와 더불어 그가 당파싸움에 참여한 것과 의병에 적대적 태도를 지닌 것 등을 한계로 지적하고 있다.

그는 지배계급으로서 인민들을 억압 착취하고 적대시하였으며 추악한 당파싸움에 참가하였을 뿐아니라 김덕령 등 애국적 의병장을 학살케 함으로써 전쟁 승리에 매우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⁴⁷⁾

임진왜란 당시 최고의 인물이라 할 수 있는 이순신에 대해서 《력사사전》은 모두에 “리순신장군은 다른 나라에서 만들지 못한 거북선을 만들었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에 기어드는 왜적을 바다 위에서 물리쳤습니다”라는⁴⁸⁾ 김일성의 교시를 인용하면서, 이순신이 ‘뛰어난 전략전술과 빛나는 승리로 하여 중세 해군전쟁사에서 찾아 보기 어려운 세계적 명장’으로 이조의 관리 중 가장 높게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순신 역시 ‘그의 애국심은 국왕과 봉건국가에 대한 충성심에 기초한 것’이라며 계급적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그는 량반지배계급 출신의 지휘관으로써 그의 애국심은 국왕과 봉건국가에 대한 충성심에 기초한 것이었다. 그의 념원은 왜적의 침략을 쳐 물리치고 량반지배계급의 통치질서를 바로 세우는 데 있었다.⁴⁹⁾

《력사사전》은 임진왜란 당시 ‘애국적 무관’으로 김시민, 김응서, 박진 등을, 의병장으로 곽재우, 김천일, 정문부, 조헌 등을 수록하고 있다. 이들에 대해서는 ‘비겁한 봉건량반’에 비해 반침략 투쟁에 참여한 ‘애국적 활동’을 평가하면서도, 공통의 한계로 ‘국왕에 대한 충성’으로 ‘리조 봉건국가를 수호’하려는 것을 들고 있다.⁵⁰⁾ 특히 경상좌도 병마절도사로 임진왜란 시기 공로를 세운 김응서의 경우, 한계점으로 ‘임진조국전쟁이 끝난 후 포도대장으로서는 국내 인민들의 투쟁을 진압하는 일을 맡았다’고 밝히고 있다.⁵¹⁾

임란 전후 이조 중기의 관리, 학자로 《력사사전》은 서경덕, 이이, 김육,

47) 《력사사전》 1, 665~666쪽

48) 《김일성저작집》 2권, 440쪽

49) 《력사사전》 1, 692쪽

50) 《력사사전》 1, 245, 257, 289, 292, 384, 866쪽 ; 《력사사전》 2, 639쪽 참고.

51) 《력사사전》 1, 292쪽

임성주 등을 들고 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서경덕과 이이다. 서경덕에 대해서는 그의 철학과 윤리도덕관 및 사회정치관을 나누어 복합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의 철학관에 관해서는 ‘비록 유교사상의 테두리 안’에 있지만 ‘성리학자들의 이론을 비판한 중세 기일원론적 유물론’의 대표로 높이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윤리도덕관에서 서경덕은 ‘성선설을 주장한 관념론’을 주장하였으며, 특히 사회정치적 견해에서 ‘국왕의 선정을 요구하는 입장’이었다고 비판하고 있다.⁵²⁾ 요컨대 《력사사전》은 서경덕을 ‘중소지주계급’의 이익을 대변한 철학자로 보며, 실학과와 다음과 같은 흥미있는 비교를 부인하고 있다.

그는 조선 중세 철학에서 대표적인 기일원론자의 한 사람이었다. 중소지주계급의 이익을 대변한 그의 철학사상을 담은 글들은 실학파학자들 속에서 널리 읽히었으며 그들의 진보적 사상형성에 큰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한 그의 견해는 실학자들에 비해 훨씬 미숙한 것이었으나 철학사상에서는 더 전개되고 발전된 측면이 있다.⁵³⁾

서경덕의 이러한 ‘기일원론적 철학과 세계관’은 임성주에 의해 계승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임성주 역시 철학적 입장은 진보적이지만, ‘륜리도덕관은 봉건지배계급의 륜리도덕관을 옹호하는 반동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⁵⁴⁾

《력사사전》은 ‘리이’에 대해서도 많은 분량으로 그의 활동을 소개하고 있지만, 서경덕처럼 복잡하고 까다로운 논평이 첨가되어 있다. 사전은 우선 ‘동인과 서인의 당파싸움을 조정하려다 실패하고 결국 서인편을 들었다’고 이이의 정치적 경력을 소개한 후, 이이가 공물의 현물 납부를 시정하려고 한 활동, 성곽 건설과 10만양병설을 주장한 국방대책 등을 언급하면서 ‘정치군사적 문제에서 다른 관료들보다는 진보적 견해’라고 ‘상대적 진보성’을 평가하고 있다. 《력사사전》의 이이에 대한 평가는 이처럼 ‘중소지주계급의 이익을 대변’한 것으로, 지배계급중에서 ‘상대적 진보성’을 인정하는 정도

52) 《력사사전》 2. 90~91쪽

53) 《력사사전》 2. 91쪽

54) 《력사사전》 2. 1374쪽

이다. 이이에 대한 이러한 ‘상대적 진보성’이란 평가는 철학과 사상에서도 이황과 대비되면서 기술되고 있다.

철학사상은 리기이원론에 기초한 객관적 관념론이며 그 어떤 절대정신으로서의 리의 기에 대한 우월성, 선차성, 지배와 통제를 인정하는 관념론적인 것이었으나 인간의 성품, 감정에서 리의 작용을 일면적으로 내세우는 이황에 비해서 기의 중요성과 역할을 강조하는 면에서 약간의 상대적 진보성을 띄는 것이었다.

그의 사상은 중소토지소유계층의 이익을 대변한 것이었으며 전체로서의 봉건통치자 계급의 이익을 고려한 것이었다. 그의 제자들은 기호학파를 형성하여 이황의 제자들인 영남학파와 대립하였다……

그의 견해에는 당시로서는 일정하게 진보적인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근본 립장이 유교정치와 옹호에 있었기 때문에 당시의 역사적 조건에서도 허다한 부정적인 측면을 내포하고 있었다.

그가 죽은 후 그의 사상을 신조로 삼은 서인 노론양반들은 그의 사상의 반동적 측면을 이어 끊없는 공리공담을 벌여놓았다. 그러나 그의 사상에서 현실문제에 주의를 돌린 점을 비롯하여 일련의 진보적인 측면은 실학자들에 의해 계승되었다.⁵⁵⁾

이이가 죽고난 후 그의 사상에서 ‘반동적 측면’은 주로 서인 노론 양반들에 의해 계승되고, ‘진보적인 측면’은 실학자에 의해 계승되었다는 위의 지적도 흥미로운 것이다.

한편 김육에 대해서는 대동법 실시, 상평통보 보급 등과 관련된 활동을 비교적 논평없이 정리하고 있다.⁵⁶⁾

《력사사전》은 이조의 예술분야 활동가로 문학자, 화가, 음악가, 서예가 등을 수록하고 있다. 문학과 예술에 대한 북한의 평가 기준은 정치에서 ‘사회애국주의’에 비견되는 이른바 ‘민족적 형식과 사회주의적’ 내용이다. 이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① 형식이 민족적인가, ② 내용이 인민적, 애국적인가, ③ 표현기법이 사실적인가, ④ 창작의 주체는 누구인가 등으로

55) 《력사사전》 1, 726~727쪽

56) 《력사사전》 1, 291쪽

정리할 수 있다.⁵⁷⁾

문인으로 수록된 이는 소설가 김만중, 시인 김천택, 김수장, 김삿갓 등이 다. 소설가인 김만중에 관해서 사전은 그의 대표작인 《사씨남정기》《구운몽》등을 소개하면서, 인물의 성격 묘사와 조선말의 숨씨있는 구사를 국문학사의 일정한 성과로 인정하면서도, 그 주제와 내용에서 ‘봉건 유교적 세계관의 제한성’을 지적하고 있다.⁵⁸⁾

김천택에 관해서는 그가 당시 전해지던 국어시가유산을 모아 《청구영언》과 《해동가요》를 편찬한 의의를 일정하게 인정하면서도, ‘불만에 찬 지배층의 사상 감정’을 노래하였을 뿐 결코 ‘인민대중의 사상감정을 노래한 것은 아니라’고 평가하고 있다.⁵⁹⁾

18세기 하급관리인 서리 출신의 시인 김수장에 대해서는 ‘량반지배계급의 부화 타락한 생활을 비난 폭로하는 등 진보적 사상감정과 미학적 취미’를 가졌으며, ‘구두어를 그대로 사용하여 생활에 접근하고 있다’고 긍정적 의의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그도 역시 봉건적 유교적 세계관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해 흔히 유교도적인 삼강오륜을 시의 주제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하층 인민들의 반봉건적 사상감정을 진실하게 반영할 수 없었다고 논평하고 있다.⁶⁰⁾

실학자를 제외하고 이조의 문인중 가장 높이 평가하는 것은 역시 15세기의 김시습과 19세기 중엽의 시인 김삿갓이다. 그러나 김삿갓도 기본적으로는 ‘봉건지배계급출신의 풍자시인’으로 ‘조소와 비난’의 수준이며 세련되지 못한 기법을 한계로 지적하고 있다.⁶¹⁾

그의 시문은 풍자가 예리하고 착상이 기발하며 한자의 뜻과 음을 재치있게 쓴 우점도 있기는 하나 봉건량반부호들에 대한 조소와 비난은 봉건착취

57) 북한의 문학 예술 및 문화유산에 대한 평가 기준으로는 김재홍(1965) ; 《민족 문화유산연구》(1972) ; 煙山康草(1983), 「北朝鮮における民族文化遺産の評價(上, 下)『東亞』2~3號 ; 안병우(1990) 등이 참고된다.

58) 《력사사전》 1, 245쪽

59) 《력사사전》 1, 257쪽

60) 《력사사전》 1, 248쪽

61) 《력사사전》 1, 247쪽

제와 신분제도를 증오하는 피착취인들의 계급적 감성이나 사상과 결코 일치될 수 없었으며 다만 량반의 무리에서 물려남으로 하여 생긴 자신의 불평 불만을 주로 표시한 것이었다. 또한 그의 시문은 주제에서 주로 봉건 량반들의 타락상을 많이 취급한 제한성과 기교면에서 세련되지 못한 부족 점도 있다.⁶²⁾

《력사사전》에 이조의 화가로 수록된 사람은 16세기의 이상좌, 17~8세기의 정선, 18세기 후반의 신윤복과 김홍도, 19세기의 장승업이다. 화가의 판단기준은 주로 미학사상이 반영된 소재의 폭과 그것을 처리하는 화법에 관한 것이다.

이상좌에 대해서 《력사사전》은 그의 대표작 《달밤에 소나무밑을 거닐며》 《명호》 《어부》 《꽃과 새》등을 소개하면서, 특히《달밤에 소나무밑을 거닐며》는 16세기의 조선화단을 대표하는 수작으로 높이 평가하고 있다. 그의 장점으로 간결하고 기백 있는 화법을 들고 있으나, 당시의 사회력사적 조건에서 근로하는 인민들의 생활 모습을 그리지 못한 것을 미의식의 한계로 지적하고 있다.⁶³⁾

정선에 대해서는 그가 ‘사대주의적 결함을 극복하고 우리 산천을 그림으로써 조선 중세 풍경화 분야의 넓은 틀을 깨뜨리고 새로운 사실적 경지를 개척’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그 역시 시대적 제약성으로 해서 아직 인물화를 비롯하여 기타 사회생활을 화폭에 반영할 수 있는 미학사상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화법에서 간결한 조선화의 전통적 수법을 살린 점은 있으나 다양한 채색으로 그려내지 못하고 묵화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였다고 한계점을 지적하고 있다.⁶⁴⁾

18세기 후반 신윤복의 풍속화에 대해서는 ‘여러 계층의 사람을 등장시키면서 낮은 신분 계층에 대한 동정을 표시하였으며 또 봉건적 구속을 받고 있던 여성들의 형편도 묘사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그의 그림은

62) 《력사사전》 1, 248쪽

63) 《력사사전》 1, 690쪽

64) 《력사사전》 2, 291쪽

‘계급적 대립을 묘사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부화방탕한 양반들의 생활을 그린 것을 포함하여 당시 각 계층의 세태 생활에 대한 객관적인 묘사가 기본’이라고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⁶⁵⁾

19세기의 장승업에 대해서도 그가 선명, 간결하고 힘있는 화법으로 조선화를 그렸으나 당시의 많은 화가들에게서 찾아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그도 당시 봉건지배계급의 취미에 맞는 자연풍경, 생물 등을 주로 그렸으며, 생산관계나 근로인민들의 생활감정을 나타내는 생활풍속도를 그리지 못한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⁶⁶⁾

조선조의 화가들중 가장 높이 평가되는 이는 역시 김홍도이다. 《력사사전》은 김홍도를 ‘조선 봉건시대의 뛰어난 화가’로 특히 그의 후기 작품들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후기에 당시 화가들 가운데서 누구보다도 현실생활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당시의 풍속들을 주제로 삼은 풍부한 내용을 담은 그림을 그렸다. 그 가운데서는 지배계급의 취미를 벗어나지 못한 것도 있으나 로동하는 인민들의 일상생활을 여러 측면에서 진실하게 반영한 그림을 그린 것이 적지 않았다. 《야장간》 《씨름》 《풍악놀이》 《서당》 《집짓기》 등은 대표적인 풍속화 들이다. 그는 인물풍속화 뿐만 아니라 동물화에도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 《표범가족》 《투견도》 등 작품들을 남기고 있으며 그밖에 《금강산구룡폭포》 《보름달》을 비롯한 우수한 풍경화들도 그렸다. 그가 그린 풍속화, 인물화 뿐만 아니라 다른 그림들도 간결하면서 힘있고 아름답다. 그러나 그의 그림은 봉건시대의 제약성을 면치 못한 것이었다.⁶⁷⁾

즉 김홍도에 대해서 ‘지배계급의 취미를 벗어나지 못한 것’ ‘봉건시대의 제약성을 벗어나지 못한 것’ 등의 한계점을 지적하면서도, 풍경화, 동물화, 인물풍속화 등에 대표적인 업적을 남긴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로동하는 인민들의 일상생활을 여러 측면에서 진실하게 반영한’ 인물풍속화를 가장 높이 평가하고 있다.

65) 《력사사전》 2, 192쪽

66) 《력사사전》 2, 243쪽

67) 《력사사전》 1, 288쪽

서예가 한석봉(한호)에 관해서는 ‘당시 명필로 불리운 사람들이 대개 중국인의 서체를 위주로 삼았으나 그는 자기의 독자적 필체를 창조한 데 있다’며 조선조 4대 명필의 대표적인 인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그의 필적과 필법들은 봉건통치계급의 권위를 높이며 그들의 서사활동에 유리하게 복무하였다’고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⁶⁸⁾

《력사사전》은 조선의 음악가로는 15세기의 박연과 성현을 수록하고 있다. 박연에 대해서는 ‘음악 이론가, 작곡가, 연주자’로 분류하고, 음정표준을 위한 룰관의 제작과 민족악기의 복구, 문란해진 악제의 정비, 음악서적의 편찬 등 그의 ‘정력적인 활동’을 소개하면서 그를 ‘중세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관변음악이론가’로 평가하고 있다.⁶⁹⁾ 성현에 대해서는 ‘유학자이자 음악가’로 분류하고, 《용재총화》《악학궤범》 등 저술 활동과 실용적인 ‘잡학’을 장려한 것을 평가하고 있다.⁷⁰⁾

음악가에 대한 정치적 논평은 비교적 다른 분야에 비해 소략한 편이나 그렇다고 해서 생략된 것은 아니다. 《력사사전》은 박연에 대해서는 ‘그의 예술은 전적으로 봉건국가에 복무’한 것으로, 성현에 대해서는 ‘리왕조의 봉건적 통치체계를 강화하는데 여러 방면에 복무’하였다고 계급적 제한성을 밝히고 있다.

다음 《력사사전》에 수록된 과학 부분을 살펴보면, 기술자 장영실, 의학자 허준, 허임, 리제마, 농학자 강필리, 지리학자이자 언어학자인 신경준, 지리학자 김정호 등 7명이 있다.

장영실에 대해서는 ‘천대받던 신분 출신이었던 그는 수많은 천문 관측기구들과 새로운 형태의 금속활자를 만들어 당시 조선의 과학기술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에 올려 세우는데 크게 이바지 하였다’고 높이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또한 그의 과학적 성과는 ‘봉건통치배들의 농업생산을 발전시킴으로써 더 많은 농산물을 착취해내기 위한 정책 수행에 리용되었으며 그

68) 《력사사전》 2, 954쪽

69) 《력사사전》 1, 868쪽

70) 《력사사전》 2, 117~118쪽

는 봉건국가에 기술적으로 적극 복무한 공로로 상호군의 직첩까지 받았다'며 비판하고 있다.⁷¹⁾

다음 18세기 새로운 재배법으로 고구마를 보급하여 농업생산발전에 기여하고 《감저보》를 저술한 농학자 강필리에 관해서는 별다른 정치적 논평없이 중세기 농업발전에 기여한 그의 공로를 간략하게 기술하고 있다.⁷²⁾

《력사사전》에 수록된 의학자로는 《동의보감》의 허준, 《침구경험방》의 허임, 사상의학의 리제마 등을 수록하고 있다. 이들에 대해서도 대체로 별다른 정치적 논평은 없고 대체로 의학 그 자체에서 한계점, 즉 민족의학의 측면에서 과학성의 문제를 주로 한계점으로 거론하고 있다. 허준의 《동의보감》에 관해서는 '봉건시대 우리나라 동의학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높이 평가하면서도 '봉건시대 다른 의학책과 마찬가지로 신비적이며 미신적 요소가 적지 않다'는 점을,⁷³⁾ 허임의 침구술에 관해서는 '경험의학인데다가 비과학적인 음양오행설과 역지로 결합시킨 결과 미신적이고 신비적인 면을 가진다'고⁷⁴⁾ 리제마의 사상의학에 대해서는 체질 문제를 도입한 의의를 인정하면서도 '체질을 도식적으로 구분한 것'과 '병리학보다 체질에 지나치게 편중'된 것을 각각 한계로 지적하고 있다.⁷⁵⁾

신경준에 대해서 《여지고》 《강계지》 등의 지리서와 《훈민정음언해》를 저술한 그의 활동을 소개하면서 '18세기 지리 언어학 분야에서 가장 높은 경지에 있었'으며, '우리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 특기할 만하다'고 그 의의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지배계급의 입장에서 '왕정 중심의 역사를 기술'한 한계점을 부기하면서, 그를 '봉건지배계급의 립장'에서 벗어나지 못한 '량반가운데 진보적 학자'로 한계를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다.⁷⁶⁾

다음 19세기 전반기의 지리학자 김정호에 관해서 《력사사전》은 《청구도》

71) 《력사사전》 2, 245쪽

72) 《력사사전》 1, 49쪽

73) 《력사사전》 2, 1010쪽

74) 《력사사전》 2, 1011쪽

75) 《력사사전》 1, 719쪽

76) 《력사사전》 2, 167~168쪽

와 《대동여지도》를 소개하면서 ‘나라의 과학문화발전에 이바지’한 그의 ‘애국정신’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그는 아직 교통이 불편하고 현대적 관측기구가 없는 당시의 어려운 조건에서 갖은 고초를 다 겪으면서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지형을 조사하였다. 또한 봉건통치배들의 박해와 천대를 받으면서 그리고 생활형편이 곤란한 가운데서도 자기의 첫 뜻을 기어이 이룩하기 위하여 제 손으로 지도를 나무에 새기는 등 힘든 일을 부지런히 함으로써 나라의 과학문화발전에 이바지 하려는 애국정신을 발휘하였다.⁷⁷⁾

《력사사전》은 또한 그가 《대동여지도》를 작성함으로써, ‘부패타락한 리조봉건 통치배들로 부터 봉건국가의 기밀을 누설하였다는 부당한 죄명’으로 체포 구금되어 감옥에서 비극적으로 죽은 사실도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력사사전》은 《대동여지도》의 한계점으로 ‘사대주의적 편견’을 지적하고 있다.

이 책에는 왕조사상을 선전하고 세계의 중심을 설정하고 거기에 우리나라 지리서술을 복종시키는 유학자로서의 저자의 사대주의적 편견도 있다.⁷⁸⁾

《력사사전》은 조선조 후기의 실학자로 이익, 박제가, 홍대용, 서유구, 박지원, 정약용 등 6명을 수록하고 있다. 북한 역사학계에서 실학파에 대한 평가는 몇 단계의 변천을 겪지만⁷⁹⁾ 《력사사전》은 실학파에 대해서 ‘그들의

77) 《력사사전》 1, 254쪽

78) 《력사사전》 1, 254쪽

79) 북한의 실학파에 대한 인식의 추이를 살펴 볼 수 있는 북한의 연구업적은 다음의 글들이 참고된다. 정성철·정진석·김창원(1961), 《조선철학사》(상), ; 사회과학원 철학연구소(1962), 《다산 정약용선생 탄생 200주년 기념 논문집》, 1962 ; 《조선문화사》(1963) ; 김재홍(1965), 〈민족문화유산을 계승 발전시킬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과 그 생활력〉, 《력사과학》 제5호 ; 《민족문화유산연구》(1972) ; 정상철(1974), 《실학파의 철학사상과 사회정치사적 견해》 ; 최봉익, 1975, 《조선 철학사상 연구 ; 고대-근세》, 사회과학출판사 ; 《조선문화사》(1977)

북한의 연구동향에 대한 남한 및 일본의 논평은 다음의 글들이 참고된다. 煙山康草(1983), 「北朝鮮における民族文化遺産の評價(上, 下)『東亞』2~3號 ; 이남영(1988), 〈북한의 [조선철학사] 서술의 특징과 문제점〉, 《철학연구》 23 ; 김영수(1989), 〈북한의 다산 연구 시각〉, 《동아연구》 19,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 안병우(1990), 〈민족문화유산 평가의 기준과 내용〉, 안병우, 도진순 편, 《북한의 한국사 인식》 1-2, 한길사 ; 조성을(1990), 〈유교의 수용과 발달〉, 앞의 책

애국정신은 비록 좋은 것이었지만 그들은 결코 근로인민을 진정으로 대표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구상한 나라도 물론 근로인민을 위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라는 김일성의 교시에 따라 제한성을 강조하는 경향을 띠고 있다. 《력사사전》은 김일성의 교시에 따라 실학파의 계급적 한계를 공통적으로 지적하면서, 각 사람마다 개별적인 한계를 첨부하고 있다.

18세기 중엽 이익에 관해서는 그가 '실학적인 학풍'을 신조로 삼고 천문, 지리, 력사, 경제, 군사, 문학, 제도, 풍속 등 여러가지 학문 분야에서 깊이 연구하였으며 특히 천문 기상 분야에서 신진적 의의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제한성도 여러가지로 언급하고 있다. 그의 철학이 '중세유물론적 요소'가 풍부하였지만 아직 성리학의 객관적 관념론을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그의 각종 개혁안이 봉건통치배들의 악정을 일정하게 폭로하였지만 기본적으로 '봉건지배계급의 전반적 리익을 위한 목적에서 나왔다'고 한계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점은 이익의 대표적인 개혁안인 균전제를 '극히 소극적인 대책' '선비의 한갓 공상'으로 논평하는 데서 잘 알 수 있다.

이것(균전제 ; 필자)는 당시의 현실을 고려한 기초에서 량반지주계급의 리익을 다치지 않으면서 점차적 방법으로 균전을 이룩하려는 극히 소극적인 대책이었다. 농민들이 봉건적 억압과 착취밑에서 생활을 점차 개선할 수 있으리라 타산한 것 자체가 선비의 한갓 공상에 지나지 않았다.⁸⁰⁾

실학파에 대한 이러한 한계점에 대한 강조는 북학파를 대표하는 박제가, 농업개혁을 주장한 서유구 등에 관한 논평에서도 볼 수 있다. 박제가에 대해서는 실학파의 일반적인 한계와 더불어 개별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의 주장에는 외국의 기술을 지나치게 과장하면서 당시 우리나라 실정을 고려하지 않고 덮어놓고 받아들이려는 사대주의 교조주의적 편향'을 볼 수 있다는 점이었다.⁸¹⁾ 서유구에 대해서는 '그의 학문 연구와 저술

80) 《력사사전》 1, 727쪽

81) 《력사사전》 1, 867쪽

활동은 당시 농업발전에 일정한 기여를 하였으나 그 목적은 봉건적 착취의 증대를 위한 농업재생산의 확보'라며 실학파의 일반적 한계점을 지적하였다.⁸²⁾

홍대용에 관해서는 그의 활동과 대표 저작인 《담헌서》를 소개하면서, 그가 자연관에서 '기일원론적 유물사상'을 더욱 발전시켰으며, <리>와 성선설을 부인하고, 음양오행설과 지리도참설 등 미신을 반대하는 등 '사회정치적, 룬리도덕적 견해에서 진보적 견해를 내놓았다'고 평가하면서도, 그가 성리학에서 쓰는 범주와 개념을 그대로 사용하고 많은 부분을 유교적 정치도덕적 관념의 해석에 돌리고 있다고 구체적인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⁸³⁾

최한기에 대해서도 그의 대표작《기학》을 소개하면서 그를 '기일원론 철학자'로 평가하고 있으나, 그의 '중세유물론적 견해'는 아직도 '소박한 관조적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룬리사상과 사회정치적 견해에서 봉건적 유교도덕과 왕도정치사상에 사로잡혀 관념론을 벗어날 수 없었다고 논평하고 있다.

박지원에 대해서도 그의 정치적 활동과 더불어 《허생전》《량반전》 등 그의 문학작품, 《한민명전의》《과농소초》 등 토지와 농업문제에 관한 주장, 홍대용과 더불어 《천원지방설》에 반대한 자연관 등을 '진보적' '선진적'인 것으로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그도 역시 '봉건유교사상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였으므로 사대주의를 반대하는 립장도 철저하지 못하였다'고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⁸⁴⁾

정약용에 대해서는 실학자들 중 가장 많은 분량으로 그의 활동과 개혁안, 저서들을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정약용에 대해서도 실학파의 일반적 한계성을 지적하고, 또한 그의 대표적인 개혁안이라 할 수 있는 《전론》을 '봉건적 농본사상에 기초'한 것으로 평가하고, 특히 그가 노비문제에 대해 보수적 입장을 가졌다고 비판하고 있다.

《전론》에서 그가 제의한 대책은 봉건적 농본사상에 기초하여 대토지소유

82) 《력사사전》 2, 106~107쪽

83) 《력사사전》 2, 1051쪽

84) 《력사사전》 1, 866쪽

자에 의한 토지의 겸병과 가혹한 착취를 다소 조절함으로써 봉건국가의 이익, 전체로서의 지배계급의 이익을 더 잘 보호하자는 것이었다. 그는 원래 노비문제와 같이 봉건통치계급의 이익에 직접 관련되는 문제에 관해서는 사소한 변경마저도 반대하는 보수적 입장에서 있었다. 또한 그는 봉건지배계급에 반대하는 농민폭동에 대해서도 적대적으로 대하였다.⁸⁵⁾

요컨대 《력사사전》은 조선 후기의 실학파를 ‘중소 지주계급 출신의 진보적 성향을 가진 량반’으로 보며, 따라서 ‘봉건통치배들의 죄행을 일정하게 폭로’하고 개혁안을 내놓지만, 기본적으로는 지배계급적 대안이라고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력사사전》에 수록된 이조의 인물 중 특이한 사람은 17세기 어부 안룡복이다. 그는 17세기말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일본 봉건통치배들의 침략 야욕을 분쇄한 애국적 어부로 기술되고 있다. 그는 리조 봉건통치배들이 국법을 어기고 사사로이 외국인과 교섭했다는 죄로 죽이려고 하였으나 남구만 등의 반대로 겨우 처벌을 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⁸⁶⁾

2) 근대의 인물

근대의 인물로 《력사사전》에 수록된 이는 김옥균, 전봉준, 류인석, 안중근, 신채호, 최서해, 홍범도, 오동진, 량세봉 등 9명이다.

주지하다시피 북한 역사학계는 갑신정변의 역사적 성격에 대하여 일찍부터 주목하여 연구와 토론을 진행하였다. 1958년 김일성은 이른바 ‘반종파투쟁’의 귀결로서 우리 역사에 대한 주체적 인식을 강조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부르주아 혁명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그후 1950년대 말~1960년대 초 북한 역사학계는 갑신정변과 김옥균에 대하여 활발한 연구와 더불어 3번의 ‘학술토론회’를 개최하여, 《김옥균》(1964)에 이르면 ‘위로 부터의 부르주아개혁’으로 정리하였다. 그후 북한 학계는 갑신정변을 더욱 높이 평가하여 <조선에서의 부르주아혁명운동>(1970)에 이르면 ‘부르주아혁

85) 《력사사전》 2, 297쪽

86) 《력사사전》 2, 1183쪽

명'으로 규정하게 되는 것이다.⁸⁷⁾ 이러한 입장은 1970년대 관철되다가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조선전사 13》(1980), 《근대조선력사》(1984) 《조선통사》(1987)에서 볼 수 있듯이, 다시 '부르조아 상층 개혁운동'으로 수정되었다.

《력사사전》(1970)은 갑신정변을 '조선에서의 첫 부르조아혁명'으로 가장 높이 평가하였던 책이다. 사전은 '부르조아 혁명'의 지도자인 김옥균에 대해 그의 정치 활동, 개화파 및 개화사상의 형성과 발전과정 등을 비교적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김옥균》(1964)이 김옥균 개인에 대한 과대평가로 비판받았듯이, 《력사사전》은 김옥균의 한계를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다. 그것은 농민에 의존하지 않았다는 것과 일본 군대를 이용한 것 등 본질적 한계와, 국왕과 왕비에 대한 철저한 제압정책을 쓰지 않았다는 전술적인 것 두 종류이다.

당시 부르조아혁명의 기본력량인 농민을 비롯한 광범위한 층에 의존하지 못하였으며 소수의 개화파 성원들과 변변치 못한 개화파무력을 기본으로 하고 침략적인 일본 군대를 리용하여 혁명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 본질적 약점을 지니고 있었다. 그는 또한 국왕에 대하여 환상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혁명을 일으킨 후 국왕과 왕비에 대하여 철저한 제압정책을 쓰지 못하였다. 이것이 왕비를 두목으로 한 반동잔당들이 다시 청나라 침략군을 리용하여 간섭해나서는데 필요한 시간적 여유를 주었던 것이다.⁸⁸⁾

그러나 《력사사전》은 전반적으로 김옥균과 갑신정변의 '선진적 의의'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87) 당시 북한 역사학계의 연구성과와 학술토론회의 쟁점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들이 참고된다. 학계소식(1959), <조선에서 부르조아 민족운동에 관한 과학토론회>, 《력사과학》 4호;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1961), 《조선 근대 혁명 운동사》, 과학원출판사; 학계소식(1963), <우리나라에서 부르조아민족운동의 발생에 관한 학술토론회>, 《력사과학》 4호;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1964), 《김옥균》; 허종호 등(1970), <조선에서의 부르조아혁명운동>

이에 대한 남한 및 일본 학계의 논평으로는 다음의 글이 참고된다. 이광린, 1989, <북한에서의 김옥균 연구>, 김정배, 노태돈 외, 《북한이 보는 우리 역사》, 을유문화사; 도진순(1989), 《북한 역사학계의 근대사 인식》, 국통조 89-12-155, 국토통일원 조사연구실; 하원호(1990), <부르조아 민족운동의 발생 발전>, 안병우, 도진순 편, 《북한의 한국사 인식》 1-2, 한길사; 梶村秀樹(1969), 「朝鮮近代史と金玉均の評價」, 『思想』 510號, 東京; 岩波書店; 原田環(1973), 「許宗浩他 '朝鮮におけるブルジョア革命運動' について」, 『朝鮮史研究論文集』 10

88) 《력사사전》 1, 289쪽

김옥균의 활동은 부패한 봉건통치제도를 청산하고 나라의 독립과 사회적 진보를 위하여 노력한 선진적 의의가 있는 활동이다. 그가 지도한 1884년 부르조아혁명은 우리나라 부르조아혁명운동사에 귀중한 교훈을 남겨 놓았다.⁸⁹⁾

우리나라 근대 초기에서 갑신정변과 더불어 대변혁운동인 ‘갑오농민전쟁’에 관해서도 북한에서는 적지않은 연구성과와 논쟁이 있었다. 논쟁의 핵심은 농민전쟁과 동학에 관련, 농민전쟁의 역사적 위치 등에 관한 것이었다.⁹⁰⁾ 토론을 통해서 북한 학계는 독일의 농민전쟁에서 기독교와 같이 갑오농민전쟁에서 동학이 ‘종교적 외피’의 역할을 했다는 주장은 부정되었고, 다만 동학의 ‘부분적 역할’만 인정 하였다. 갑오농민전쟁의 성격에 관해서는 ‘제기된 요구가 근대적인 요소가 적지 않았지만 봉건제도 자체를 철폐하는 수준에는 여러모로 미흡하다’고 정리하여, ‘반침략반봉건투쟁’이지만 ‘부르조아민족운동’으로서의 위상은 부인되었다. 즉 갑오농민전쟁은 1467년 함경도농민전쟁(이시애의 반란)등과 같은 전형적인 중세의 농민전쟁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독일 농민전쟁과 같은 부르조아민족운동으로서의 농민전쟁도 아닌, 과도기적 형태의 농민전쟁으로 규정되었던 것이다.

《력사사전》은 위의 연구성과를 반영하듯 갑오농민전쟁을 주도한 전봉준과 동학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고, 그를 “농민전쟁의 훌륭한 지도자” “적에게 굴하지 않은 굳은 투지를 지닌 애국적 인물”로 높이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농민전쟁의 본질적 한계를 언급한 바와 같이, 《력사사전》은 전봉준의 한계로 두 가지를 지적하고 있다. 하나는 농민전쟁의 역사적 한계와 같이 봉건제도를 근본적으로 대체할 투쟁강령을 제시하지 못한 계급적 한계이며, 다른 하나는 농민전쟁의 산만성과 자연발생성을 극복하지 못한 전술적인 측면이다.

89) 《력사사전》 1, 290쪽

90) 토론 : 오길보, 김사익, 김중식(1959), <갑오농민전쟁과 동학>, 《력사과학》 5호 ; 학계소식(1959), <갑오농민전쟁에 관한 과학토론회>, 《력사과학》 5호 ; 오길보(1964), <1894~1895년(갑오) 농민전쟁의 성격에 대하여>, 《력사과학》 4호

그는 자신의 계급적 제한성으로 하여 봉건제도를 근본적으로 뒤집어 엮기 위한 명확한 투쟁강령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농민전쟁을 지휘함에 있어서 농민군의 산만성과 자연발생성을 극복하지 못하였고 일본의 자본주의 침략군대와 싸움에 있어서 중세농민전쟁의 틀을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군사상 우세를 유지하지 못하였다.⁹¹⁾

그러나 그가 지도한 갑오농민전쟁은 “결국 실패하였으나 봉건통치자들과 일본무력침략자들에게 큰 타격을 준 투쟁으로서, 조선 농민전쟁 역사상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고 그 의의를 평가하고 있다.

《력사사전》은 근대의 ‘반일의병장’으로 류인석과 홍범도를 수록하고 있다. 양반 출신의 의병장을 대표하는 류인석에 관해서는 그의 의병활동을 자세하게 소개하면서도 한계점 또한 여러가지로 지적하고 있다. 즉 ‘봉건적이며 유교적인 충군사상’의 한계로 평민의병장 김백선을 죽이는 ‘반인민적인 짓을 감행’하였다고 비판하고, 1896년 아관파천뒤 류인석이 의병을 해산하여 국내 의병해산이란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고 평가하고 있다.⁹²⁾

머슴 출신의 전설적인 의병인 홍범도에 관해서 《력사사전》은 한말 포수를 중심으로 하는 의병대의 조직, 풍산, 삼수 등에서 반일의병전쟁, 일제초기 동북지역으로 근거지를 옮겨 새로이 독립군부대를 조직한 것, 1919년 3.1봉기를 계기로 갑산, 해산 지역을 공격한 것, 1920년 간도지방의 봉오동과 청산리 전투 등 그의 활동을 소개하고 있다. 홍범도에 관해서는 ‘반일 의병장’으로서 그의 활동을 소개할 뿐, 한계점 등에 관한 일체의 정치적 논평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⁹³⁾

《력사사전》은 민족주의계열의 ‘독립군지도자’로는 오동진과 양세봉을 다루고 있다. 오동진에 관해서는 그의 민족주의적 활동과 1927년 체포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940년대초 옥사하기까지 그의 면모를 비교적 호의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사전은 그가 ‘민족주의의 사상적 제약성을 극복하지 못

91) 《력사사전》 2, 278쪽

92) 《력사사전》 2, 1052쪽

93) 《력사사전》 1, 665쪽

하였으나 민족적 지조를 고수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⁹⁴⁾

《력사사전》은 양세봉에 대해서 그가 1918년 남만주로 이전한 후 3.1운동에 참가하고 정의부 군사위원 및 독립군지도자로 활동한 사실을 다루고 있다. 그런데 사전은 양세봉과 김일성과의 관계에 대하여 특별하게 언급하고 있다. 즉 그가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과 반일민족통일전선이 확대 강화됨에 따라' 이에 영향을 받아 '오직 김일성동지의 령도를 받아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서술하고 그가 죽은 후 1938년 '그의 부대가 김일성의 조선혁명군에 편입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⁹⁵⁾ 이러한 언급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지만, 전혀 근거를 밝히고 있지 않아 그 사실적 근거가 의문시되고 있다.⁹⁶⁾

김일성이 '초기 항일혁명시기' 만들었다는 혁명연극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의⁹⁷⁾ 주인공 안중근에 대해 《력사사전》은 '일제의 조선침략의 괴수 이등박문을 쏘 죽인 애국자'로 규정하며 그의 활동을 자세하게 정리하고 있다. 즉 그의 출생, 어린시절의 성품과 반일의병에 대한 동경, 소년시절의 사격술 연마, 청년시절의 국내에서의 반일운동, 연해주망명 이후 국내 일본수비대 습격 등을 정리하고, 1909년 하르빈에서 이등박문을 쏘 죽인 정황을 매우 생생하게 정리하고 있으며, 여순감옥에서 그의 '애국적 지조' 또한 높이 평가하고 있다.⁹⁸⁾

그러나 김일성이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에서 안중근의 '애국적 행동'을 찬양하면서도, '비조직적 투쟁이 아니라 전체 인민들의 힘으로, 적극적인 투쟁방법으로 맞서 싸워야한다'고 강조하였듯이, 《력사사전》도 '대중투쟁과 결부되지 못한 그의 개인테러방법은 정확한 투쟁방침이 될 수 없다'고

94) 《력사사전》 2, 1233쪽. 최근에 발간된 김일성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1》를 보면, 김일성은 어린시절 아버지와의 인연이 있는 오동진과 매우 긴밀한 사이였다.

95) 《력사사전》 1, 616쪽

96) 1948년 남북연석회의 때 김구는 만경대의 '혁명유자녀학원'을 방문하고, 양세봉의 아들이 비단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고 '민족주의자의 아들'도 혁명유자녀학원에 입학할 수 있고 대우를 받는다고 놀란 바 있다.

97) 이 연극에 대한 북한의 소개는 《력사사전》 2, 1188쪽 참고.

98) 《력사사전》 2, 1187~88쪽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⁹⁹⁾

《력사사전》은 근대 문화분야의 활동가로 신채호와 최서해를 수록하고 있다. 신채호에 대해서는 한말의 애국문화운동, 1907년 신민회 조직, 1909년 망명후 중국에서 역사 저술 활동, 1920년 이후 무정부주의연맹에 가입한 것, 1928년 체포되어 1936년 옥사한 것 등을 소개하고 있다. 신채호에 관해서는 ‘애국적이며 진보적인 력사가이자 문필가’로 일정하게 평가하면서도, 그가 ‘소부르쵸아적 제한성’으로 무정부주의운동을 하였으며, 맑스레닌주의와 노동계급의 민족해방운동을 과학적으로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한계점을 언급하고 있다.

그는 애국적이며 진보적인 력사가이며 문필가로서 그의 저서들은 인민들을 애국주의정신으로 무장하는데 일정하게 이바지 하였다. 그러나 그는 맑스레닌주의 기치밑에 노동계급이 민족해방투쟁에 나선 력사발전의 객관적 필연성을 과학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소부르쵸아 인텔리의 계급적 제한성으로 인해 무정부주의운동에 가담하였으며 이 시기 그가 쓴 글들에는 무정부주의적 색채가 농후하다.¹⁰⁰⁾

《력사사전》은 우리나라 근대에서 초기 프로레타리아문학을 대표하는 인물로 최서해를 수록하고 있다. 사전은 그의 고난의 시절과 대표작 《탈출기》를 비롯하여 《고국》 《매월》 《큰물진 뒤》 《박들의 죽음》 《기아와 살육》 등의 단편을 거론하고 있다. 특히 《탈출기》는 그의 대표작 일 뿐 아니라 초기 프로레타리아문학의 대표적 작품의 하나로 높이 평가하고 있다.¹⁰¹⁾ 그러나 작품 속에 나오는 주인공들의 반항이 대중의 혁명투쟁과 조직적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발광 살인 등 비정상적인 형태로 표출되고 있다고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그는 자기 세계관의 미숙성으로 하여 작품의 주인공들의 반항을 대중의

99) 《력사사전》 2, 1188쪽

100) 《력사사전》 2, 187쪽

101) 최서해의 《탈출기》는 납북된 신상옥에 의해 영화로 만들어진 적이 있다. 최은희, 신상옥(1988), 《김정일 왕국》(하), 동아일보사, 216~229쪽 참고.

혁명투쟁과의 연계속에서 조직적 형태를 통하여 보여주지는 못하였으며 일부 경우에는 발광 살인 강도 방화 등의 비정상적인 형태로 보여 주었다. 이는 그의 문학의 역사적 제한성으로 되며 그의 문학으로 하여금 요람기를 견고 있던 초기 프로레타리아문학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였다.¹⁰²⁾

102) 《력사사전》 2, 820쪽

맺 음 말

이상 북한의 인물사에 대한 정리를 《력사사전》에 수록된 사람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그 특성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것으로 맺음말에 대신하고자 한다.

북한의 주체사상은 역사에서 주체의 문제를 가장 중요시하며, 주체의 문제는 ‘대중과 지도’의 결합으로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에서 역사적 지도자 및 영웅에 대한 인식은 주체사관의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부각되는 것이다. 주체사관의 지도자 및 인물에 대한 평가는 ① 주체성의 원칙, ② 당성, 노동계급성의 원칙, ③ 역사주의의 원칙 등 3가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세가지 기준은 시기에 따라, 현실적인 정황에 따라 강조의 순위가 바뀌면서도 정합적인 모습을 지니고 있다.

본고에서 검토한 《력사사전》은 1970년에 편찬된 것으로 북고주의 비판과 더불어 주체성의 원칙과, 당성 노동계급의 원칙이 상대적으로 강조되던 시기의 저작이며, 그 결과 지도자 및 인물에 대한 평가가 전반적으로 제한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과학기술분야’에서도 지나치게 그 한계점을 강조하여 과학적인 성과가 ‘봉건통치계급에 이용당했다’고 파악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러나 이러한 《력사사전》의 ‘좌경적인 분위기’는 그후 일부 수정되지만, 그 내용의 기본적인 틀은 1980년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점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도자 및 인물 평가의 세가지 기준은 시기와 현실에 따라 강조의 순위가 바뀌면서도 자기 정합적인 모습을 지니고 있다는 측면과 관련된다.

따라서 우리는 좌경적 한계를 고려하면서도, 《력사사전》을 통해 인물 평가에 대한 북한의 세가지 기준을 보다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력사사전》은 비록 북한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인물만을 수록하고 있지만, 현대 이전, 즉 노동계급과 그 지도자가 출범하기 이전의 지도자 및 영웅은 기본적으로 한계를 지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러한 평가와 한계는 세가

지 기준에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력사사전》의 첫번째 특징은 주체성의 원칙에서 민족적, 애국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물을 ‘애국적’이란 표현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것은 고조선에서 현대까지 기본적으로 관철되는 특징이다. 그러나 이 원칙은 현실적으로는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을 강조하는 기능을 맡고 있으며, 역사적 인물에 대해서는 자주적 관점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특성을 지니게 된다.

《력사사전》은 두번째 원칙인 당성, 노동계급성의 원칙에 의해서 계급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사전은 이러한 계급적인 문제를 ‘지배계급’ ‘피지배계급’ ‘노동계급’의 세가지 차원으로 구분하고 있다. 사전은 근대까지 지도자와 인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배계급의 경우, 인민적 경향이 있는 선진적인 부분을 ‘진보적’이라 표현한다. 반면 농민, 천민 등 피지배층의 지도자 및 인물을 ‘인민적’이라 평가하지만, 봉건적, 근대적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현대의 노동계급과 뚜렷하게 구분하고 있다.

다음 《력사사전》은 ‘역사주의의 원칙’에 의해서 지도자와 인물의 한계점을 진단하는데, 이것은 두가지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당시 계급적, 시대적 제약에 의해 불가피한 부분을 ‘계급적’ 또는 ‘본질적’ 한계로 구분하고, 당시에 가능한 것인데 성취하지 못한 오류들은 매우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예컨대 전봉준의 경우 중세적 안목을 벗어나지 못한 그의 농민적, 계급적 한계와 농민전쟁 시기 전략전술적 오류를 같이 진단하고 있는 것이다.

머릿말에서 언급했듯이, 우리 역사의 지도자와 영웅에 대한 인식은 역사학에서 고전적 위치를 차지하는 중요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민족적 유산중 가장 소중하면서도 구체적인 것이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동의 선조에 대한 남북 역사학계의 인식의 편차는 결코 적지 않다. 앞으로 남북 역사학계의 활발한 접촉과 토론으로 이러한 편차를 극복하고 통일된 인식을 성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들은 집안의 조상, 남의 선조, 북의 위인이 아니라 우리 민족 공동의 역사적 자산이기 때문이다.

최근 북한문학의 경향

김재용 (연세대강사)

목 차

〈내용요약〉.....	63
1. 1990년대 북한문학의 의미	72
2. 북한문학사에서 1990년대 문학이 지닌 위치	75
3. 1990년대 북한문학의 일반적 주제와 그 새로움	79
4. ‘사회주의 현실주제’의 문학의 양상과 그 특징	83
5. ‘조국통일 주제 문학’의 새로운 양상과 그 의미	101
6. 맺 음 말	115

〈내 용 요약〉

1

1990년대의 북한문학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지는 주제를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이른바 ‘수령의 형상화’이다. 김일성을 비롯한 그의 가계를 다루는 것으로 1967년 주체사상의 유일사상화 이후 계속해서 취급하여 온 주제이다. 그런데 이 주제에서 하나 특기해야 할 것은 김정일의 형상화 문제이다. 김정일이 북한문학에서 다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물론 1990년대가 아니다. 김정일이 북한문학에서 중심적인 대상으로 취급된 것은 1970년대 중반부터이다. 시에서는 1970년대 중반, 소설에서는 1970년대 말엽부터 이미 김정일의 형상화는 시작되었다. 그러다가 1980년대에 이르러서는 그 전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많은 분량의 작품들이 여기에 바쳐지는 형편이다. 특히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김정일의 활동 역사를 하나의 큰 체계 속에 형상화하는 이른바 ‘불멸의 향도’ 총서가 나오기 시작하였다. ‘불멸의 향도’ 총서는 1972년부터 나오기 시작한 김일성의 ‘불멸의 역사’ 총서를 본딴 것으로 수령 형상화의 최종점이다. 이것이 1990년대가 아니라 1980년대 후반부터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은 김정일의 후계자 계승작업이 문학쪽에서 일찍부터 이루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것은 결코 1990년대 문학의 새로움이 될 수 없는 것이다. 1990년대에 들어와 이 주제 분야에서 새로운 경향이란 것은 찾아보기 어렵다. 단지 김정일의 형상화 편수가 김일성의 형상화 편수와 맞먹고 때로는 그것을 넘어서기조차 한다는 정도의 것이다. 그 이상 이 주제에 있어 새로움은 없다.

둘째는 사회주의 건설과 혁명에 관련된 주제이다. 북한문학은 처음부터 이 주제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왜냐하면 이것은 과거의 위업을 오늘에 보여줌으로써 어려웠지만 영광스러웠던 그 시대를 체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교양하는데 그 어떤 것보다 효과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문학에서는 일찍부터 이 주제를 즐겨 다루기

시작했던 것이다. 과거의 위업 특히 항일혁명운동, 해방직후의 국가건설활동, 전쟁, 전후 복구 그리고 1950년대 중반부터 일어나기 시작한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투쟁 등이 그 동안 이 주제에서 즐겨 다루어지던 것들이다. 1990년대의 문학에서도 이러한 것은 변함없이 큰 관심을 끌고 있는 주제였고 이 분야의 작품은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다.

세째는 과거의 역사를 주제로 한 작품이다. 역사를 다룬 문학은 주로 역사소설에서 비중있게 다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1980년대 북한 소설문학에서 아주 인기있는 분야로 자리잡았다. 현재적 삶과는 일정하게 거리를 두고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작가들은 다른 주제를 다룰 때와는 달리 큰 부담을 가지지 않을 수 있는 여건에 놓인다. 물론 과거의 역사적 소재를 다룬다고 해서 현재의 제반 평가와 이데올로기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쓴다는 것을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상대적으로 그러하다는 말이다. 이런 조건 때문에 여러 작가들은 역사소설을 많이 썼다. 이러한 것은 1990년대의 북한의 소설문학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여러 작가들이 다루었던 소재를 피하여 비어있는 역사적 소재를 찾아 계속 쓰고 있는 것이다. 1992년에 나온 리유근의 『홍경래』와 같은 작품은 그 대표적인 작품이다. 이처럼 앞으로도 북한 역사소설은 계속하여 과거에 다루어지지 않았던 소재를 찾아서 줄곧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에서 언급한 세가지 주제는 1990년대의 북한문학에서 새롭게 나타나거나 혹은 새로운 양상을 띠는 것이 아니고 이전의 흐름을 거의 그대로 이어받고 있는 것들이다. 따라서 이러한 주제의 분석에서 1990년대 문학의 새로움을 파악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설령 같은 주제를 비슷한 방식으로 다루고 있는 것 가운데서 제기되는 미묘한 변화를 읽어낼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큰 의미를 가지기는 어려운 것이다. 이에 반해 다음에 거론하게 될 주제에서는 1990년대의 새로운 양상을 어느정도 살필 수 있다.

네째는 ‘사회주의 현실’ 주제의 문학이다. 이는 현재 북한사회의 현실적인 삶에서 그 소재를 구한 것으로 북한 문학에서 김일성 가계 형상화와 거의 맞먹는 양을 차지하는 주제이다. 이 주제는 그 문학이 다루는 문제에 따

라서 더 세분될 수 있다. 그런데 이 주제의 소설에서는 이전의 문학에서 다루어지던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1990년대의 문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관건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전에는 그렇게 큰 관심을 끌지 않았던 과학기술의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되기 시작한다든가, 혹은 1980년대 ‘사회주의 현실’ 주제의 소설에서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었던 것 중에서 다른 것들은 이제 별로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한 반면 세대간의 갈등 문제만은 1990년대에 증폭되어 다루어지기 시작한다는 점은 진정 1990년대 북한문학 특히 ‘사회주의 현실’ 주제의 소설에서 명료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이러한 현상은 결코 우연한 문제가 아니며 그 이면에는 북한의 새로운 현실과 그것에 대응하는 북한 내부의 새로운 이데올로기가 내재하고 있다.

다섯째로는 조국통일의 주제이다. 이 주제 역시 8.15직후부터 북한의 문학에서 지속적으로 탐구된 주제이나, 특히 전쟁을 겪고 난 후 분단이 고착되면서 이 주제의 문학은 한층 더 비중을 더하게 되었다. 전통적으로 이 주제의 소설들은 남한의 현실을 다루는 것으로 ‘반미구국투사’의 투쟁을 그리는 것이 기본 틀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제에서는 분단된 조국현실에서 북한의 사람들이 겪는 문제라든가 하는 것은 거의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1990년대 들어서면서 북한문학에서 조국통일의 주제를 다루는 작품들은 북한 내부의 사람들이 겪는 이산가족의 아픔과 같은 문제들을 다루기 시작했다. 이것은 그 이전에는 결코 볼 수 없었던 것으로 특이한 요소이다.

이상의 다섯가지 전통적인 주제 중에서 우리의 관심을 집중적으로 끄는 것은 1990년대에 들어와 새로운 양상을 보여주는 네번째와 다섯번째의 것이다.

2

북한문학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당대 ‘사회주

의 현실'을 다룬 문학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주제 보다는 이 주제에서 그 시대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드러난다. 1990년대 북한문학의 새로운 특징을 찾아내려면 이 현실 주제의 작품을 깊이있게 따져보아야 한다. 1980년대 들어 이 주제의 작품에서는 과거에는 다루어지지 않았던 문제나 소재가 대거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럼으로써 1980년대의 문학을 그 이전의 문학과 구분시켜 주었던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1990년대의 문학적 특징의 큰 부분이 바로 이 현실 주제의 작품에서 가장 명료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1990년대 '사회주의 현실' 주제의 작품 중에서 가장 눈에 띄게 큰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단연 세대간의 갈등을 다룬 작품이다. 1980년대의 작품에서도 이 세대간의 갈등 문제는 매우 주요한 문제로 다루어진 바 있다. 그 때에는 일제시대와 해방직후 그리고 전쟁을 체험하면서 살아온 나이든 세대와 그런 것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젊은 세대 사이의 갈등이 주된 내용이였다. 처음에는 이러한 차이로 인해 갈등을 겪다가 나중에는 젊은 세대가 나이든 세대의 고민과 고통스러웠던 세월을 이해함으로써 그 격차가 좁혀지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일반적인 틀이었다.

그런데 1990년대에 들어서 이 문제는 그 이전과는 확연하게 다를 정도로 훨씬 세분화되어 나타난다. 그 중에서 가장 뚜렷한 것은 그 이전에는 막연하게 나이든 세대와 젊은 세대라고 나누어지던 것이 이 시기에 이르러서는 이른바 제1세대, 제2세대, 제3세대, 제4세대로 엄밀하게 구분되어 드러난다. 1세대는 일제하에서 항일혁명운동을 했거나 그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이다. 김일성과 그의 나이에 걸맞는 현재 80세를 전후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들은 현재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기도 하다. 대부분 노환으로 세상을 떴기 때문이다.

2세대는 위의 인용문에서 잘 말해주고 있다시피 청년시절 6.25전쟁을 겪고 살아온 세대들이다. 그들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 오늘의 북한을 건설한 주역들이다. 이들은 오늘날 북한에서 가장 핵심적인 위치에 서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책임을 일차적으로 떠맡고 있는 층이다. 이들은 현재 환갑을 전후한 나이의 사람들로 젊은 세대들의 앞길에 대해 또한 제일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다.

3세대는 전후세대로서 그들은 앞세대가 겪었던 고난의 일제시대나 전쟁을 자신의 경험으로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다. 현재 나이가 40대로서 북한 사회의 허리 역할을 떠맡고 있는 층으로 이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북한 사회의 앞길이 좌우될 만큼 매우 중요한 층이다. 그런데 이들은 앞 세대와는 다르게 커 왔기 때문에 나이는 1세대나 2세대의 입장에서 본다면 마음이 놓이지 않는 세대이다.

4세대는 현재 20대로서 이제 사회의 문턱에 들어서는 세대들이다. 일제시대나 전쟁을 체험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 3세대와 비슷하지만 아직 사회 경험이 없고 때가 묻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들과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1세대나 2세대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들 역시 3세대와 비슷하게 근심의 대상이 되는 존재들이다. 그런데 이미 사회 속에서 틀이 짜여져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어떻게 하기 어려운 3세대에 비해 이들은 지도하기에 따라 얼마든지 새로운 길에 들어설 수 있는 세대로 인식되어진다.

이처럼 북한 사람들을 이렇게 4세대로 나누었을 때 문제는 어떻게 3세대 4세대들이 1세대 2세대들의 위업을 올바르게 이어받아 새롭게 전개되는 현실에서 오늘날 북한 사회를 별탈 없이 이끌어 갈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다음으로는 90년대 사회주의 현실 주제의 북한문학 중에서 위에서 언급한 세대간의 갈등과 더불어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은 과학기술의 문제이다. 이 과학기술의 문제는 90년대 사회주의 현실 주제의 문학이 지닌 독특한 측면이다. 물론 80년대의 문학에도 그 부분적 측면이 드러나기도 했다. 그렇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아주 일반적인 상태의 수준이었지 중요한 문제로 부각된 그런 것은 아니었다. 그러던 것이 90년대 와서 본격적으로 조명을 받은 것이다.

그러면 왜 90년대 와서 이 문제가 각광을 받게 되는 것인가? “오늘 우리들 사이에는 과학기술 분야에서 서로 앞서나가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제국주의자들은 인류공동의 재부인 과학기술을 독점하여 사회주의 나라들의 경제문화 발전을 억제하기 위해 집요하게 책동하고 있다”라

는 대목에서 현존 사회주의 국가의 붕괴로 인한 북한의 고립과 이것의 결과로 대두한 과학기술의 차단 및 독자적 개발이 불가피한 사정을 알 수 있으며 이것은 또한 1990년대에 들어서 북한 문학에서 과학기술의 문제가 직접적으로 대두한 근본 원인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국가 정책상 과학기술에 대한 강조를 하기에 이르렀으며 때로는 그 분야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이 아니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소설 속에 직접 언급되기까지 할 정도이며 특히 20대 박사를 매우 강조하는 경향도 발견할 수 있다.

90년대에 와서 세대간의 갈등이나 과학기술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은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이에 따른 북한의 국제적 고립 및 체제 유지의 중요성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이다.

3

1990년대 북한문학 중에서 앞서 다룬 ‘사회주의 현실’ 주제의 문학과 더불어 뚜렷한 변화를 보여주는 부분이 이른바 조국통일 주제의 문학이다. 전통적으로 조국통일 주제의 소설은 으레히 남한의 현실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조국통일이란 문제는 이미 해방된 북한이 아직 해방되지 못하고 ‘미제’의 압제 밑에서 신음하고 있는 남한을 구한다는 극히 단순한 문제였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조국통일의 문제는 남한과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이러한 주제의 소설은 남한의 비참한 현실과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싸우고 저항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바쳐지곤 하였다. 이른바 ‘반미구국투사’를 그리는 것이다. 이러한 양상은 8.15직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예컨대 당시 남북한이 분단된 후 남한에서 빨치산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의 투쟁 모습을 담은 작품이 월북 작가들을 중심으로 쓰여지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이른바 통일주제 소설의 첫모습이었다. 이러한 것은 그후 남한에서 벌어진 대규모의 투쟁들 예컨대 4.19라든가 광주항쟁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다룬 중장편소설이 나오는 것으로 이어지곤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소설들은 기본적으로 남한을 미국의 식

민지로 규정하고 있는 공통적 양상을 띠게 되었다. 그리하여 조국통일의 유형화된 작품은 미국의 식민지인 남한의 비참한 현실과 그 속에서 싸우는 인물들의 모습을 담아내는 것이 하나의 틀로 굳어졌다.

그런데 1990년대에 이르러 이 조국통일 주제 소설에서 현저하게 드러나는 변화는 남한이 아닌 북한의 인물들이 겪는 분단현실을 초점으로 한 작품이 나온다는 점이다. 이것은 얼른 보아서는 별다른 변화가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특히 남한의 작가들이 분단문제를 다룰 경우 대부분 분단으로 인해 남한의 현실에서 겪는 어려움을 그 주된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본다면, 이러한 것은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한 것으로 충분히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북한의 조국통일 주제의 소설이 주로 남한의 현실을 배경으로 해왔던 사정을 감안해 본다면 이는 매우 중요한 변화이다.

이러한 새로운 경향의 접근법의 소설이 이전의 그것과 다른 점의 배경에는 미묘한 이데올로기적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이전의 조국통일 주제 소설들이 주로 남한을 다루고 또한 미제국주의에 의해 식민지화된 남한의 비참한 삶과 그 속에서 일어나는 투쟁을 그렸는데 이는 통일문제에 대한 북한의 정식화된 국가 이데올로기에 의해 강력하게 뒷받침되어 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향을 띤 작품들은 항상 새로운 소재를 다루고 새로운 인물을 취급하면서도 기본적으로 그 구성이 동일하였다. 그 국가적 이데올로기를 벗어나서 쓴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그런데 1990년대 들어 이와는 다른 새로운 경향의 접근법으로 분단과 통일을 추구하는 소설이 나오고 그것이 그 이전과는 달리 남한이 아닌 북한의 주민들이 겪는 분단의 문제를 다룬다는 것은 작은 차이 같지만 국가 이데올로기에서 약간 벗어나기 시작함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그동안 무시하였던 문제들 예컨대 북한의 사람들이 분단으로 겪는 고통을 다루기 시작하였다는 것은 그런 점에 성 이데올로기적 변화의 일단 - 물론 아주 어렵풋한 수준의 것이지만 - 이 나타나기 시작함을 의미한다.

통일주제 문학에서 나타난 이 새로운 경향을 가진 작품들은 아직 냉전의 틀을 깨지 못하고 여전히 과거의 잔재를 많이 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

계에도 불구하고 최근 이 통일주제 소설에서 나타난 새로운 경향과 흐름이 주는 의미는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미묘한 변화가 북한 사회, 좁게는 북한문학 내부에서 가지는 의미는 우리의 사상 이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향후 북한 사회의 냉전 논리의 해체에 일정하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매우 중차대한 것이다. 남한의 현실을 다루다가 북한의 현실을 다루는 방식으로 바뀐 이 통일주제 소설의 변화는 자신을 똑바로 쳐다보고 자신의 삶을 중심으로 이 세계를 인식 할 수 있는 전환에 비유될 수 있다. 이러한 자기이해는 앞으로 통일의 과정에서 중요한 흐름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1990년대의 문학은 새롭게 전개되는 국제적 여건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것은 1980년대 문학과 대조된다. 1980년대의 문학이 시작될 때 북한의 문학은 국제적 여건 보다는 그동안의 북한 현실을 바탕으로 문학이 시작되었다. 이런 것에 비해 1990년대의 문학은 기본적으로 당의 정책적 배려가 그 이전에 비해 강하게 배어나 있으며, 이렇게 바뀐 데에는 오늘날 북한이 처하고 있는 국가적 위기와의 관련이 있다.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전처럼 작가들에게 일정한 자율성을 부여하기 어려워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작가들에게 일정한 당의 방침의 테두리를 다양한 통로를 통하여 제시하게 되고 작가는 이를 알게 모르게 받아들임으로써 위에서 우리가 보았던 경향의 문학이 되고 말았던 것이다. 즉 1980년대가 이룩한 성취가 이어지기 보다는 오히려 퇴보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그렇지만 거기에는 위에서 보았던 조국통일주제의 문학에서처럼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를 빚어내기도 하지만 이것이 일정한 선을 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통일의 문제를 항상 반미구국 투쟁으로만 이해하던 차원에서 벗어나 북한 사람들의 일상적인 문제인 이산가족의 문제를 포착했다는 점은 그 자체로 결코 작은 변화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

은 부분적이고 지배적인 경향은 '사회주의 현실' 주제의 문학에서 드러났던 일반적 경향이다. 이것이 앞으로 계속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변주되면서 북한의 향후 문학을 이끌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1. 1990년대 북한문학의 의미

1993년의 시점에서 1990년대의 북한문학의 일반적 특징을 파악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불과 3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나온 문학작품에서 어떤 일반적 추세나 경향을 붙잡아 보려고 하는 것 자체가 성급한 일반화라는 위험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 어떤 경향이냐 추세가 자리잡으려면 어느 정도의 기간이 흘러야 하고 그 속에서 나타난 어떤 주도적 흐름을 평가하는 것이 일의 올바른 순서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오늘의 시점에서 1990년대의 북한문학을 파악한다는 것은 매우 신중한 접근을 요하는 일임에 틀림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북한문학 즉 1990년대의 북한문학의 일반적 경향을 파악하는 것이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다고 믿고 이렇게 접근하는 데에는 북한의 역사에서 1990년대가 갖는 현실적 의미가 우선 특별하고, 나아가서 이러한 시기에 나온 문학작품들이 이러한 역사적 현실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필자가 여기서 1990년대의 북한의 역사적 현실이라고 했을 때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동구와 소련의 붕괴와 같은 현존 사회주의 일반의 변화라는 국제적 질서와, 이에 이어 제기된 자본주의의 세계화라는 전지구적 현실과 이와 연관된 북한의 현실이다. 아마도 북한문학은 이러한 변화와 무관할 리가 없다. 물론 북한과 같이 외부와의 접촉이 빈번하지 않고 특히 일반대중들은 외부와의 접촉이 거의 차단되어 있는 북한사회의 현실에서 느끼는 세계의 변화란 오늘날 남한의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처럼 급변한 그리고 격심한 종류의 것은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그러한 변화에 전적으로 둔감한 것은 아닐 것이다. 이것은 북한 체제의 고수를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국가 이데올로기는 새로운 전략을 세워야 하고 따라서 정도의 문제는 있지만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러한 변화가 일반 대중들에게 미묘한 방식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이다. 하물며 비교적 북한 사회에서 일반 대중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질 수 있는 지식인층에 속하는 작가들이 이러한 것을 눈치채지 못할 리가 없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1990년대의 북한의 역사적 현실을 말

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현실과 직접적 간접적 관계를 맺은 상태에 산출된 북한문학에 대해서 그 이전과는 다른 특별한 시기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앞서 말한 짧은 기간이라는 제약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의 북한문학의 일반적 추세와 경향을 어느정도 짚어볼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이러한 필자의 생각은 최근 북한에서 발표되고 있는 평론들에서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최근 북한 평론들에서 가장 뚜렷하게 모색되고 있는 것은 1990년대의 성격 문제이다.

이 새로운 시대의 성격에 대한 탐구는 많은 평론들에서 경쟁적으로 탐구되는 있는 영역이다. 이는 이 시기에 발표된 몇몇 평론의 제목에서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다. 예컨대 조선문학 1991년 1월에 발표된 류만의 「90년대 인간성격창조에 대한 소감」이라든가, 1991년 3월에 발표된 윤상현의 「90년대 인간의 성격」, 1991년 5월 조선문학에 발표된 최언경의 「시대정신의 진실한 구현과 90년대 성격 창조 문제를 두고」 등에서 말하는 90년대의 성격의 문제는 바로 1990년대의 북한의 역사적 현실에서의 새로운 주인공의 성격을 탐구하는 과정이다.

이처럼 한시대의 성격을 규명하는 이러한 작업은 1970년대나 1980년에 초에는 없었던 일이다. 1980년대만 보더라도 그 시기에 일어난 변화가 오늘날의 북한의 평단에서처럼 '새로운 성격의 모색'이란 큰 주제하에서 제기되지 못하였다. 실제 1980년대 초에 북한에서 제3차 작가대회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극히 조용하게 별다른 모색없이 진행되었고 그것이 제기했던 어떤 문학적 경향이나 추세가 가닥을 잡기 시작한 것은 오히려 어느정도 시간이 흐른 후인 1980년대 후반 무렵이다. 이때 와서야 1980년대 문학의 흐름이 어느정도 드러나게 되었다.

물론 1980년대 초에도 간헐적으로 이른바 '숨은 영웅'의 형상화 문제가 제기되었던 것에서 잘 드러나듯이 새로운 성격에 대한 탐구가 평단에서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1990년대 초에 드러나는 이러한 대대적인 '90년대 성격탐구'와 같은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사실을 두고 볼때 짧은 기간에서

일정한 경향과 추세를 가늠하려고 하는데서 생길 수 있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북한문학의 흐름을 파악하려는 것은 그렇게 근거없는 일만은 아닐 것이다.

1990년대의 북한문학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접근법이 가능하나 여기서는 1980년대의 문학과 비교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북한문학은 다른 곳의 문학과 다르게 다루는 주제가 어느 정도 유형화되어 있어, 대부분의 작품이 크게보아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특정한 주제를 다룰 경우 접근방법, 소재 그리고 문제가 비교적 명료하기 때문에, 새로운 문제의식이나 시각이 들어오게 되면 그 주제를 받쳐주고 있는 문제나 소재 혹은 접근방법에서 표나게 차이가 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시기의 북한문학이 지닌 일반적 특징에 대한 이해는 그 시기의 문학작품이 해당 주제를 어떤 새로운 방식으로 혹은 어떤 새로운 소재나 문제를 통해서 다루고 있는가 하는 것을 밝히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글에서도 1980년대의 문학과 1990년대의 문학은 주제별로 분류하여 동일한 주제를 다루면서 취하는 접근방식이나 문제 혹은 소재를 비교하고 그 중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분석함으로써 1990년대 문학의 일반적 경향과 그 의미를 밝혀보도록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주로 1980년대 문학의 일반적 경향에 대한 간략한 개괄을 통해 북한문학사에서 1990년대 문학이 가지고 있는 위치를 알아본 뒤, 1990년대 북한문학을 주제별로 분류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최근 3-4년 사이에 북한에서 나온 소설과 평론들을 주된 대상으로 삼고 연구하겠다. 거기에는 단행본으로 나온 중 장편소설 뿐만 아니라, 잡지 『조선문학』, 『청년문학』과 『문학신문』에 발표된 작품과 글들이 포함된다.

2. 북한문학사에서 1990년대 문학이 지닌 위치

8.15 해방 이후 북한문학은 단일한 흐름을 유지하면서 진행되어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부를 깊숙이 살펴보면 결코 동일하다고만 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한 변화를 겪어왔다. 그중에서 1967년을 전환의 계기로 하여 그 이전과 이후는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 그러한 변화의 구체적 내용과 그것이 의미하는 바에 대한 검토 없는 성급한 접근으로는 북한문학의 실상을 파악하는 데 필경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북한문학은 1967년 제4기 15차 전원대회를 계기로 하여 북한 사회에 들어선 유일사상으로서의 주체 사상의 확립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진행되었다. 그 이전의 북한문학이 기본적으로 맑스 레닌주의를 표방한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이후의 문학은 이른바 주체사상에 입각한 것이다. 이처럼 8.15이후의 북한문학은 1967년을 경계로 하여 큰 변화를 겪었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문학을 파악할 때에는 이에 유의하여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1967년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북한문학은 그 이전의 문학과 비교해 비교적 단일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모든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은 김일성을 작품 속에 직접 등장시키는 작품을 대대적으로 창작하는 것에서 가장 극적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1967년 이후의 문학은 하나의 동질적인 흐름을 유지하면서 진행되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떠나서 이시기 문학의 어떤 부분을 파악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대체적 흐름의 동일성 안에서 1967년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북한문학은 그 내부적인 미묘한 변화까지 고려하는 더 세밀한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특히 1980년 이전과 이후는 북한문학사에서 일정한 변화를 보이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 이르러 북한문학은 이전의 일방적인 흐름에서 벗어나 창작에 있어 상당한 여유를 갖게 되었다. 그 이전의 틀에 박힌 주제로부터 벗어나 다양한 생활상의 문제를 다룰 수 있게 되었다든가, 과거에는 반동작가로 규정하였던 작가들이 새롭게 평가된다든가 하는 것은

바로 이 시기의 변화를 보여 주는 것들이다.

1980년 이후의 북한문학이 1967년 이후의 그것에 비해 일정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 부분은 이른바 ‘사회주의 현실 주제’ 문학에서이다. 그 이외의 부분에서는 이렇다할 큰 변화가 없었다. 그전부터 창작되어오던 ‘불멸의 역사’ 총서를 비롯한 김일성 형상화 작업은 계속하여 이어지고 있었고, 그외의 부분도 어떤 변화가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유독 ‘사회주의 현실주제’의 문학에서는 그 이전에서는 생각할 수 없었던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 들어와 북한문학 특히 ‘사회주의 현실’ 주제의 작품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이러한 변화를 필자는 다음과 같이 크게 세가지로 나눈바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자의 글 『80년대 북한소설문학의 특징과 문제점』, 창작과 비평, 1992년 겨울호를 참고)

첫째는 도시와 농촌 간의 사회문화적 격차 문제이다. 많은 젊은 청년들이 농촌을 떠나 도시로 가려고 하고 특히 도소재지 정도의 도시에서 육체적 노동보다는 사무직 노동을 선호하는 대목에서 이 도시와 농촌 간의 문제는 가장 심각하게 드러났다. 따라서 농촌의 처녀들은 도시로 시집가려고 하고 이제 농촌에서 나이든 사람만 남게되는 그런 형국이 되는 것이다. 이처럼 도시와 농촌 사이의 대립과 갈등은 이 시기 ‘사회주의 현실’ 주제의 작품에서 가장 빈번하게 드러나는 것으로 그 이전의 작품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주제이다. 이것은 북한문학이 과거의 방식 즉 모든 것이 잘 되어가고 있고 그 속에서 약간의 문제 즉 새로운 현실을 따라잡지 못하는 인물들 사이의 갈등을 다루면서 현실을 일방적으로 미화하는 경향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둘째는 세대간의 갈등 문제이다. 전후에 태어나 앞세대에 비해 별다른 어려움 없이 살아왔기에 과거 일제하에서의 생활이나 전쟁에서의 비참함은 책에서나 보았거나 옛날 이야기로 들었을 따름인 젊은 세대와 식민지와 전쟁을 겪었기에 지금의 생활에 대해 무한한 감사함을 지니고 살고 있는 나이든 세대 사이의 갈등이 80년대 작품에서 중요한 대목을 차지한다. 순간순간을 마치 전쟁의 연속처럼 생각하는 나이든 세대의 입장에서는 그런 정도의 규

울과 사명감을 가지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젊은 세대를 보고 있으며 마냥 걱정스럽고 과연 그들에게 마음놓고 이 나라를 물려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우려하게 된다. 그런 것에 대해 과거에 비해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 젊은 세대들은 말끝마다 전쟁이나 일제시대를 이야기하는 나이든 세대들이 자기들의 고민과 지향을 제대로 몰라주며 시대착오적이기에 항상 답답하다고만 느끼는 것이다. 이처럼 나이든 세대와 젊은 세대의 갈등은 문학작품에서 중요한 비중을 두고 다루어졌다.

세제는 남녀간의 문제이다. 남녀간의 차별을 포함하여 여러가지 얽힌 문제들이 과거에는 별로 다루어지지 않았던 반면이 시기에 이르러서는 이혼과 같은 매우 민감한 문제를 비롯하여 다양하게 취급되고 있다.

이상에서 보았던 것처럼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북한문학은 그 이전의 문학에서 취급되지 않았던 혹은 무시되어 왔던 삶의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다루기 시작했다. 이것은 1967년 주체사상이 유일사상체계로 자리잡기 시작한 이후의 1970년대의 문학에 비해서 놀랄만한 변화이다. 물론 이러한 주제의 접근이란 것은 명백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한 여러 갈등은 사회적인 문제로서 제기되었지만 그 해결은 극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시도됨으로써 마지막에 주관적 화해를 너무나 쉽게 거두어 들인다는 점이다. 이런 점 때문에 작품이 더 깊이 그리고 더 풍부히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용두사미격으로 끝나고 말았던 것이다. 이런 명백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했던 것처럼 그 이전의 문학을 염두에 둘 때 이것은 매우 주목할만한 현상이다. 또한 이러한 측면은 1990년대의 문학을 탐구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관련을 가지게 된다.

1990년대의 북한문학은 1980년대의 문학이 열어놓은 이러한 모습을 어떻게 이어받으면서 나아갈 것인가가 관건이다. 그 하나의 길은 작가들에게 더 많은 공간을 열어줌으로써 1980년대의 문학이 그 이전의 문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누렸던 활력을 이어받으면서 더 새롭게 열어보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오늘날 북한의 현실에서 특히 개개인의 삶의 현실에서 드러나는 다양한 양상을 별다른 제한없이 다룰 수 있게 되어야 한다. 그럴 때 북한의

문학은 1980년대의 그것에 비해 새로운 문학적 영역을 탐구해나가면서 한층 더 풍부해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길은 많은 부담을 동반하게 된다. 그렇게 작가들이 북한 현실의 문제점들을 깊이 있게 탐구해 들어갈 때 그것은 당의 일련의 정책으로부터 벗어나 그것과는 독립된 형태로 진행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부담을 각오하면서까지 해야만이 되는 것이 이 길이다.

그런데 1980년대 말 이후 전개된 북한의 국제적 환경과 국내적 환경 어느 하나 이러한 부담을 지면서까지 문학적 공간을 열어줄 여유를 갖지 못하도록 했다. 오히려 1980년대의 중반의 어떤 시점보다도 더 급박하게 문학예술에 당의 정책을 부여할 필요성이 절박하게 제기된 것이 1990년대의 현실이다. 그런 점에서 1990년대의 북한문학은 이 새로운 가능성을 배제하게 되고 따라서 작가들은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데 있어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는 다르게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는 국제적 현실의 전개는 오히려 새롭게 문학을 규정할 필요성을 제기했을 것이다. 그리하여 작가들은 이 새로운 현실 전개에서 가장 긴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붙잡음으로써 앞서 들었던 길이 아닌 전혀 다른 방향으로 1990년대의 문학을 열기 시작했다. 앞으로 자세하게 논증하게 되겠지만 그것은 이전의 문학에 비해 한층 더 당의 정책적 요구에 맞닿아 있는 것이기도 하였다.

3. 1990년대 북한문학의 일반적 주제와 그 새로움

1990년대의 북한문학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지는 주제를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이른바 ‘수령의 형상화’이다. 김일성을 비롯한 그의 가계를 다루는 것으로 1967년 주체사상의 유일사상화 이후 계속해서 취급하여 온 주제이다. 그런데 이 주제에서 하나 특기해야 할 것은 김정일의 형상화 문제이다. 김정일이 북한문학에서 다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물론 1990년대가 아니다. 김정일이 북한문학에서 중심적인 대상으로 취급된 것은 1970년대 중반부터이다. 시에서는 1970년대 중반, 소설에서는 1970년대 말엽부터 이미 김정일의 형상화는 시작되었다. 그러다가 1980년대에 이르러서는 그 전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많은 분량의 작품들이 여기에 바쳐지는 형편이다. 특히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김정일의 활동 역사를 하나의 큰 체계 속에 형상화하는 이른바 ‘불멸의 향도’ 총서가 나오기 시작하였다. ‘불멸의 향도’ 총서는 1972년부터 나오기 시작한 김일성의 ‘불멸의 역사’ 총서를 본딴 것으로 수령 형상화의 최종점이다. 이것이 1990년대가 아니라 1980년대 후반부터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은 김정일의 후계자 계승작업이 문학쪽에서 일찍 이루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것은 결코 1990년대 문학의 새로움이 될 수 없는 것이다. 1990년대에 들어와 이 주제 분야에서 새로운 경향이란 것은 찾아보기 어렵다. 단지 김정일의 형상화 편수가 김일성의 형상화 편수와 맞먹고 때로는 그것을 넘어서기조차 한다는 정도의 것이다. 그 이상 이 주제에 있어 새로움은 없다.

둘째는 사회주의 건설과 혁명에 관련된 주제이다. 북한문학은 처음부터 이 주제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왜냐하면 이것은 과거의 위업을 오늘에 보여줌으로써 어려웠지만 영광스러웠던 그 시대를 체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교양하는데 그 어떤 것보다 효과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문학에서는 일찍부터 이 주제를 즐겨 다루기 시작했던 것이다. 과거의 위업 특히 항일혁명운동, 해방직후의 국가건설활동, 전쟁, 전후 복구 그리고 1950년대 중반부터 일어나기 시작한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투쟁 등이 그동안 이 주제에서 즐겨 다루어지던 것들이다. 1990년대의 문학에서도 이러한 것은 변함없이 큰 관심을 끌고 있는 주제였고 이 분야의 작품은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다.

그런데 하나 특기해야 할 것은 최근의 북한문학에서는 이중에서 특히 천리마운동 이후, 이른바 공산주의를 앞당기기 위한 투쟁이 일어났던 시기의 제반 위업들이 크게 부각되면서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소재의 비중이 커지는 것은 오늘날 북한이 처하고 있는 국제적 국내적 현실을 감안할 때, 다시 한번 과거 공산주의를 앞당기기 위한 투쟁이 벌어졌을 때 실현되었다고 인정되는 대중의 참여와 동원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이와 관련하여 살펴야 할 것은 과거의 혁명적 위업을 다루는 소설 특히 1950년대 중반 이후의 북한의 건설을 다루는 주제는 세대간의 갈등을 다루는 주제와 긴밀히 연관되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과거 1950년대에 혁명적 위업에 참가했던 나이든 세대가 현재 어쩔 줄 모르고 방황하고 모색하는 젊은 세대에서 과거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방식으로 엮어져 있다는 점이다.

세제는 과거의 역사를 주제로 한 작품이다. 역사를 다룬 문학은 주로 역사소설에서 비중있게 다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1980년대 북한 소설문학에서 아주 인기있는 분야로 자리잡았다. 현재적 삶과는 일정하게 거리를 두고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작가들은 다른 주제를 다룰 때와는 달리 큰 부담을 가지지 않을 수 있는 여건에 놓인다. 물론 과거의 역사적 소재를 다룬다고 해서 현재의 제반 평가와 이데올로기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쓴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상대적으로 그러하다는 말이다. 이런 조건 때문에 여러 작가들은 역사소설을 많이 썼다. 이러한 것은 1990년대의 북한의 소설문학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여러 작가들이 다루었던 소재를 피하여 비어있는 역사적 소재를 찾아 계속 쓰고 있는 것이다. 1992년에 나온 리유근의 『홍경래』와 같은 작품은 그 대표적인 작품이다. 이처럼 앞으로도 북한 역사소설은 계속하여 과거에 다루어지지

않았던 소재를 찾아서 줄곧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에서 언급한 세가지 주제는 1990년대의 북한문학에서 새롭게 나타나거나 혹은 새로운 양상을 띠는 것이 아니고 이전의 흐름을 거의 그대로 이어받고 있는 것들이다. 따라서 이러한 주제의 분석에서 1990년대 문학의 새로움을 파악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설령 같은 주제를 비슷한 방식으로 다루고 있는 것 가운데서 제기되는 미묘한 변화를 읽어낼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큰 의미를 가지기는 어려운 것이다. 이에 반해 다음에 거론하게 될 주제에서는 1990년대의 새로운 양상을 어느정도 살필 수 있다.

네째는 ‘사회주의 현실’ 주제의 문학이다. 이는 현재 북한 사회의 현실적인 삶에서 그 소재를 구한 것으로 북한 문학에서 김일성 가계 형상화와 거의 맞먹는 양을 차지하는 주제이다. 이 주제는 그 문학이 다루는 문제에 따라서 더 세분될 수 있다. 그런데 이 주제의 소설에서는 이전의 문학에서 다루어지던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이 나타나고 있고 이는 1990년대의 문학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관건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전에는 그렇게 큰 관심을 끌지 않았던 과학기술의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되기 시작한다든가, 혹은 1980년대 ‘사회주의 현실’ 주제의 소설에서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었던 것 중에서 다른 것들은 이제 별로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한 반면 세대간의 갈등 문제만은 1990년대의 증폭되어 다루어지기 시작한다는 점은 진정 1990년대 북한문학 특히 ‘사회주의 현실’ 주제의 소설에서 명료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이러한 현상은 결코 우연한 문제가 아니며 그 이면에는 북한의 새로운 현실과 그것에 대응하는 북한 내부의 새로운 이데올로기가 내재하고 있다.

다섯째로는 조국통일의 주제이다. 이 주제 역시 8.15직후부터 북한의 문학에서 지속적으로 탐구된 주제이나, 특히 전쟁을 겪고난 후 분단이 고착되면서 이 주제의 문학은 한층 더 비중을 더하게 되었다. 전통적으로 이 주제의 소설들은 남한의 현실이나 혹은 해외동포의 현실을 소재로 삼는 방식으로 드러났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제에서는 분단된 조국현실에서 북한의 사람들이 겪는 문제라든가 하는 것은 거의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1990년대 들어서면서 북한 문학에서 조국통일의 주제를 다루는 작품들은 북한 내부의 사람들이 겪는 이산가족의 아픔과 같은 문제들을 다루기 시작했다. 이것은 그 이전에는 결코 볼 수 없었던 것으로 특이한 요소이다.

이상의 다섯가지 전통적인 주제 중에서 여기서 직접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것은 1990년대에 들어와 북한문학에서 새롭게 혹은 증폭되어 다루어지기 시작하는 주제 및 문제들이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 분석이 이루어지면 1990년대의 북한문학의 특징이 어느정도 드러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4. '사회주의 현실' 주제의 문학의 양상과 그 특징

북한문학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당대 현실을 다룬 문학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주제 보다는 이 주제에서 그 시대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드러난다. 1990년대 북한문학의 새로운 특징을 찾아내려면 이 현실 주제의 작품을 깊이있게 따져보아야 한다. 1980년대의 문학적 특징이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났던 부분도 바로 이 현실 주제의 작품이었음은 위에서 언급한 바 있다. 1980년대 들어 이 주제의 작품에서는 과거에는 다루어지지 않았던 문제나 소재가 대거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럼으로써 1980년대의 문학을 그 이전의 문학과 구분시켜 주었던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1990년대의 문학적 특징의 큰 부분이 바로 이 현실 주제의 작품에서 가장 명료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1990년대의 이 현실 주제의 소설들은 기본적으로 1980년대의 그것이 다루었던 문제를 이어받고 있다. 1980년대 현실 주제의 소설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났던 문제들인 도시와 농촌 사이의 갈등 문제, 여성문제 그리고 세대간의 갈등 문제 등은 1990년대의 소설에도 드러난다. 그런데 이 중에서 앞의 두 문제는 오히려 1980년대의 그것에 비해 한층 더 심화된 측면이라거나 새로운 조명 같은 것이 별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에 비해서 세대간의 갈등 문제는 이 시기에 들어와 그 이전의 그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아주 대대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그 방식도 이전과는 현저하게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그런 점에서 현실 주제의 소설 작품을 다루는 이 부분에서는 바로 이 세대간의 갈등 문제가 오늘날 북한문학에서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그것은 어떤 역사적 의미를 갖는가 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외에도 1990년대에 들어와 새롭게 조명받는 문제로는 과학 기술의 문제가 있다. 1980년대의 문학에서 이것이 전혀 다루어지지 않았냐 하면 그런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어떤 주도적 흐름을 이를 정도로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은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던 것이 이 시기에 이르러서는 아주 각광을 받으면서 비추어지고 있다. 이것 역시 이 부분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다.

우선 농촌문제를 살펴보겠다. 1980년대의 작품에서는 이러한 주제가 매우 큰 주목을 받았다. 대부분의 작품들이 처음에는 도시와 농촌 사이의 격차 때문에 도시로 나가서 살려고 하지만 결국은 이것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 고향 농촌으로 돌아오고 마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그런데 1990년대의 소설들은 이러한 농촌문제를 다루면서도 이전과는 다른 각도에서 조명해보려고 여러가지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것의 한 단면이 잘 드러난 작품이 『삐꾸새가 노래하는 곳』(조선문학, 1990. 3)이다. 이 작품은 이전의 작품들이 도시를 떠나 농촌에 내려와 정착해야 하는 당위를 설명하고 의무감을 불러일으키던 방식에서 벗어나 농촌의 삶의 도시의 그것에 비해 결코 손색이 없음을 이야기하고자 한 작품이다. 그러기 위하여 이 작품에서는 농촌에서 일하는 주인공이 도시의 그 어떤 청년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현대적인 방법으로 생활하고 사고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런 측면에서 같은 농촌 문제를 다루면서도 1990년대의 새로운 접근방식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북한의 평론가들은 앞을 다투어 지적하고 옹호하고 있다.

이때까지 농촌 주제의 작품들을 보면 주인공 자각을 가지고 고향땅에 뿌리박는 문제를 기본으로 취급한 것으로 하여 그들의 창조의 세계를 깊이있게 그리지 못하였다. 그리는 경우에도 현 시대의 기술적 추세에 잘 어울리지 않게 수공업적인 기술 창안들이 보다 많이 그려지었다. 현시대는 과학과 기술의 시대이다. 우리 작가들은 자기들의 작품에 첨단과학과 최신기술을 요구하는 현시대의 과학기술추세에 맞는 기술혁신안을 생산에 도입하기 위해 이클타클 애쓰는 인간들의 높은 지성세계를 그려야 한다. 『종달새』나 『삐꾸새가 노래하는 곳』을 창작한 작가들은 풍부한 과학기술 지식을 소유하고 최신과학기술을 생산에 도입하려는 강렬한 지향으로 심장을 불태우는 농촌 청년들의 지성세계를 잘 그리었다. 그리하여 그들의 성격이 그저 소박하기만 하고 어딘지 모르게 촌티를 벗지 못한 듯한 느낌을 주는 것이 아니라 현대감각이 풍기는 성격으로 느껴지게 되었다(조선문학, 1990년 3월, 65-66면)

북한 평론가의 지적처럼 농촌 문제를 다루는 1990년대의 작품은 그 이전과는 다르게 새로운 시각을 부여하려고 노력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기 위하여 농촌으로 돌아오라고 막연하게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아도 농촌이 도시에 비해 손색없는 곳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방법을 택한 것이다. 이것은 분명 그 이전의 농촌 소재의 작품에 비해 현저한 차이를 가져다 주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작품에서 여전히 남는 것은 그러면 과거의 많은 작품에서 등장했던 도시로 가려고 했던 인물들이 그렇게 농촌을 떠나려고 했던 요인들이 이제 전부 해결되었는가?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런 문제는 여전히 남게 마련이고 그것은 농촌을 새로운 농촌으로 바꾸려는 의지를 갖고 과거와는 다르게 살아가려는 인물들에게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문제들의 구조적 측면에 대해서 한층 더 깊이 있게 풍부하게 천착해나가는 방식을 택하지 않고, 수공업 대신에 과학기술을 운용하는 마음가짐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새로움을 보여준다고 했을 때 그 새로움은 진정 그 현실의 총체적 연관 위에서 나온 것이라기 보다는 다분히 작가의 머리 속에서 아니면 현실의 어떤 한 부분을 전체로 확대하는 데서 나오는 것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농촌문제를 다루는 1990년대의 접근법은 그 이전에 비해 결코 나아진 것이 없는 셈이고 그 이전의 한계를 그대로 이어받은 셈이 된다.

이상에서 큰 변화는 느껴지지 않지만 그래도 일정하게 새로운 시각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을 농촌문제를 다루는 소설을 통해 살펴보았다. 이러한 양상은 여성문제를 다룬 작품인 강복례의 『직장장의 하루』(조선문학, 1992. 8)에서도 비슷하게 드러난다. 여성문제를 다루었던 1980년대의 작품의 연장성 위에서 새로운 접근방식을 모색하나 근본적으로 별다른 차이를 보여주지 않는 형국이다.

이제는 1990년대 현실 주제의 작품에서 그 이전과는 현저하게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세대간의 갈등 문제나, 과학기술의 문제를 다룬 '사회주의 현실' 주제 작품의 일반적 특징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1) 세대간의 갈등 문제

1990년대 현실 주제의 작품 중에서 가장 눈에 띄게 큰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단연 세대간의 갈등을 다룬 것이다. 1980년대의 작품에서도 이 세대간의 갈등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진 바 있다. 그 대에는 일제시대와 해방직후 그리고 전쟁을 체험하면서 살아온 나이든 세대와 그런 것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젊은 세대 사이의 갈등이 주된 내용이였다. 처음에는 이러한 차이로 인해 갈등을 겪다가 나중에는 젊은 세대가 나이든 세대의 고민과 고통스러웠던 세월을 이해함으로써 그 격차가 좁혀지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일반적인 틀이였다.

그런데 1990년대에 들어서 이 문제는 그 이전과는 확연하게 다를 정도로 훨씬 세분화되어 나타난다. 그 중에서 가장 뚜렷한 것은 그 이전에는 막연하게 나이든 세대와 젊은 세대라고 나누어지던 것이 이 시기에 이르러서는 이른바 제1세대, 제2세대, 제3세대, 제4세대로 엄밀하게 구분되어 드러난다. 여기서 말하는 각 세대의 특징을 알기 위해서 이에 대한 북한 평론가들의 규정을 인용하여보자.

다음은 『조선문학』 1993년 7월호의 머리글 「혁명의 1세대 2세대들처럼 살며 투쟁하는 새세대의 형상을 훌륭히 창조하는 것은 작가들이 영예로운 임무」에서 따온 것이다.

항일혁명투사들은 혁명의 자랑스러운 첫 세대이다. 항일혁명투사들은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단결의 중심, 영도의 중심으로 모시고 천신만고를 다 이겨내면서 일제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무비의 영웅성과 희생성을 발휘하였다. 항일혁명투사들은 그들의 업적으로 보나 투쟁정신으로 보나 우리 인민들이 대를 이어가면서 본받아야 할 혁명가의 모범이다. 한편 조국해방전쟁에서 영웅적 위훈 세운 혁명의 2세대들인 인민군 군인들과 인민들은 제국주의의 침략으로부터 조국을 수호하고 해방된 우리 인민의 영웅적 기개를 온 세상에 떨쳤다. 그들은 온나라가 재더미로 되고 모든 것이 완전히 폐허로 된 속에서 짧은 기간에 도시와 농촌들을 새로이 세우고 사회주의를 훌륭히 건설하였다. 작품에서는 이러한 혁명의 1세대 2세대의 고귀한 혁명정

신과 투쟁업적이 깊이있게 형성됨으로써 혁명의 3세대 4세대가 따라 배워야 할 숭고한 품모와 계승의 몫이 뚜렷하게 밝혀져야 한다. 또한 혁명의 1세대 2세대들 처럼 살며 투쟁하는 세 세대들의 전형적인 성격을 창조하는 것은 이 주제의 작품에서 해결해야 할 매우 의미있는 문제이다.

위의 인용문에서 잘 드러나고 있는 것처럼 1세대는 일제하에서 항일혁명 운동을 했거나 그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이다. 김일성과 그의 나이에 걸맞은 현재 80세를 전후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들은 현재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기도 하다. 대부분 노환으로 세상을 떴기 때문이다.

2세대는 위의 인용문에서 잘 말해주고 있다시피 청년시절 6.25전쟁을 겪고 살아온 세대들이다. 그들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 오늘의 북한을 건설한 주역들이다. 이들은 오늘날 북한에서 가장 핵심적인 위치에 서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책임을 일차적으로 떠맡고 있는 층이다. 이들은 현재 환갑을 전후한 나이의 사람들로 젊은 세대들의 앞길에 대해 또한 제일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다.

3세대는 전후세대로서 그들은 앞세대가 겪었던 고난의 일제시대나 전쟁을 자신의 경험으로 체험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현재 나이가 40대로서 북한 사회의 허리 역할을 떠맡고 있는 층들로 이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북한 사회의 앞길이 좌우될 만큼 매우 중요한 층들이다. 그런데 이들은 앞 세대와는 다르게 커 왔기 때문에 나이트 1세대나 2세대의 입장에서 본다면 마음이 놓이지 않는 세대이다.

4세대는 현재 20대로서 이제 사회의 문턱에 들어서는 세대들이다. 일제시대나 전쟁을 체험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 3세대와 비슷하지만 아직 사회 경험이 없고 때가 묻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들과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1세대와 2세대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들 역시 3세대와 비슷하게 근심의 대상이 되는 존재들이다. 그런데 이미 사회 속에서 틀이 짜여져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어떻게 하기 어려운 3세대에 비해 이들은 지도하기에 따라 얼마든지 새로운 길에 들어설 수 있는 세대로 인식되어진다.

이처럼 북한 사람들을 어떻게 4세대로 나누었을 때 문제는 어떻게 3세대

4세대들이 1세대 2세대들의 위업을 올바르게 이어받아 새롭게 전개되는 현실에서 오늘날 북한 사회를 별탈없이 이끌어 갈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평론가들은 해가 갈수록 한층 더 이 문제를 강도 높게 주장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세대간의 갈등 문제가 한층 더 심각하게 제기되고 3세대 4세대들이 어떻게 1세대와 2세대의 위업을 따를 것인가의 문제가 심도있게 제기되는 데에는 국제적 국내적 상황에서 연유하는 바가 많은 것이다.

우선 국제적 요인부터 살펴보자. 1980년대와는 다르게 1990년대는 현실 사회주의의 전반적 변화가 따랐던 시기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 과거에 그 어느 시기와의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위기를 느끼는 것이다. 과거에는 소련을 비롯한 현실 사회주의 국가와 어느정도의 유대 속에서 국제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었으나 지금은 형편이 그렇지 못하다. 전세계적으로 자본주의가 전일화되면서 국제적 고립과 난관은 그 이전 어떤 시기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위기 국면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제대로 해쳐나가지 못하면 체제 자체의 존립이 위태로울 정도이다. 그런 점에서 볼때 이 3세대와 4세대들이 앞으로 이러한 시련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는 핵심적인 문제이다. 동구나 소련에서 보았던 것처럼 젊은 세대가 제일 먼저 자본주의를 환영하고 나왔던 것을 생각해 볼 때 이 내부적인 통합은 중요한 것이다. 더구나 그것이 세계적 정세가 북한이 활동하기 편할 때에는 대수로운 문제가 아닐 수도 있지만 오늘날처럼 북한이 고립되어 있는 시기에서는 이것은 절대절명의 문제일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 세대간의 갈등 문제는 이전과 다르게 중요한 비중을 띤 문제로 증폭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북한 평론가들의 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사회주의 위업은 위대한 수령님의 영도 밑에 우리 혁명의 1세대 청년들인 항일혁명투사들에 의하여 개척되고 혁명의 2세대 청년들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발전 되었으며 오늘은 혁명의 3세대 4세대 청년들에 의

하여 튼튼히 이어지고 있다. 혁명의 선행세대 청년들의 뒤를 이어 주체 혁명 위업을 계승하여 나가야 할 혁명의 3세대 4세대 청년들 앞에 나선 가장 중요한 과업은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악랄한 반사회주의 책동을 짓부시고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를 튼튼히 고수하고 더욱 빛내어 나가는 것이다. 그런데 혁명의 3세대 4세대 청년들은 원수와의 피어린 싸움도 값비싼 피의 대가도 치루어 보지 못하고 행복한 조건에서 태어나 삶을 누려온 세대들이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겨누는 원수의 과녁은 변하지 않았는데 행복만을 알고 살아온 세대들이 혁명의 대를 이을 주력군으로 나선 객관적 조건은 필연코 이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더욱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위의 글은 『청년문학』 1993년 3월호의 머리글인 「우리식 사회주의를 튼튼히 고수하고 빛내어가는 청년 전위의 형상을 더 많이 창조하자」에서 옮긴 것이다. 우리식 사회주의라는 것은 잘알려져 있다시피 현존 사회주의권의 붕괴 이후 북한이 자신의 체제를 지켜나가기 위해 만든 구호이다. 바로 세대간의 문제가 중요하게 떠오르는 것은 이 우리식 사회주의가 절실한 국제적 환경과 매우 깊은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세대간의 문제가 이 시기에 들어 이렇게 떠오른 데에는 이러한 국제적 요인만 있는 것이 아니다. 국내적으로는 이 젊은 세대들의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들에서 연유하는 바도 있는 것이다. 이미 1980년대의 소설에서 자주 이야기되어 오던 것이지만 ‘행복한 조건에서 태어나 삶을 누려온’ 이 새로운 젊은 세대는 나이든 세대가 볼 때 퇴폐적이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이해하기 어려운 지향과 기분과 생활태도를 가지고 있다. 그들 젊은 세대들에게는 자연스러워 보이는 것도 나이든 세대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낯덕이 잘 안가는 행동으로 비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로운 세대의 생활방식이 항상 갈등의 요인으로 잠재해 있던 것이다. 어떤 나라에서도 이러한 종류의 세대차이는 발견될 수 있는 것인데 북한사회에서는 이것이 1990년대와서 국제적 정세의 변화와 더불어 새삼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었던 것이다. 만약 이러한 것이 그 이전에 이미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지 않았다면 아무리 국제적 정세가 악화되어도 이것이 이러한 세대간의 갈등 문제로 그 출구를 찾지는 않았

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는 북한 내부의 현실적 변화로 간주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도 북한의 평론가들은 심히 우려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이야기하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3세 4세 청년들이 1세 2세들이 개척하고 고수 발전시켜온 주체혁명위업 사회주의 위업을 철저히 옹호고수하고 끝까지 완성할 투철한 신념과 각오로 시대 앞에 부과된 자기의 사명을 해야 할 때이다. 우리당에 의해서 교양육성된 세 세대들 속에서 당과 수령께 충성과 효성을 다해갈 일념으로 얼마나 많은 미기들을 속출시키고 있는가. 수많은 제대군인들과 처녀들이 대흥으로 농촌으로 자원해 달려가고 전우들 인민들의 생명을 위해 자기의 한목숨 서슴없이 바치는 군인들의 감동적 행동이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가운데 영예군인들과 일생을 같이하려는 처녀들이 수없이 늘어나는 오늘의 현실 바로 이것이 우리시대 청년들의 참모습이다. 그렇지만 우리 현실에는 아직 자기 개인을 먼저 내세우며 못사람들의 우려를 자아내는 불미스러운 언행을 하는 청년들도 없지 않다. 우리는 결코 이것을 작은 것으로 무시해서는 안된다. 자기 만을 알고 향락에 재미를 느끼는 사소한 요소들이 자라면 종당에는 당도 국가도 인민도 몰라보는 속물로 정치적 오락자로 혁명의 배신자로 돼버리기 마련이다. 청춘시절이 아무리 소중한 것이고 두번 다시 없는 것이라 해도 자기의 시대적 사명감도 모르고 꺾렁꺾렁 살아간다면 그러한 청춘을 열번 백번을 산다고 해도 단 한푼의 가치도 없다. 우리혁명의 1세 2세들의 청춘시절을 본받아 그들이 높이 추켜든 붉은기를 지키기 위해 순간과 순간 날과 달을 바쳐가는 것이 3세 4세들이 자기의 청춘시절을 빛나게 살아가는 길이 아니겠는가. 이것이 오늘의 부모들이 자식들을 두고 바라게되는 가장 큰 기대이며 소원이기도 하다.

이것은 『조선문학』 1993년 3월호에 실린 김익철의 수필적인 글 『추억과 소원』의 한 부분이다. 이 글의 필자가 ‘향락’이니 ‘불미스러운 언행’이니 하는 표현을 써가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오늘날 북한의 젊은 세대는 그 이전의 세대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어찌면 자신들의 독자적인 문화를 만들어나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북한 사회 내에서 이러한 세대간의 갈등이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는데 문학에서는 특히 2세대와 4세대 사이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제

기된다. 실제로 1세대는 앞서 말했다시피 아주 오래 산 예외적인 존재를 빼고는 대부분 살아있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사회의 실질적 주도 세력은 바로 이 2세대에 해당하는 인물들이다. 이들이 볼 때 바로 밀세대인 3세대도 걱정의 대상이 되지만 이들은 어느정도 틀이 잡혀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세대이기도 하다. 가능성이 있는 것은 유동적인 삶을 살고 있고 생의 과도기에 처해있는 이 4세대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학에서는 주로 이 2세대와 4세대 사이의 관계가 주로 나타난다. 그렇다고 해서 3세대가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등장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중요한 비중을 가지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세대간의 갈등이 증폭되면서 북한의 작품들은 이 문제를 다루는 작품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다. 우선 단편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이들 작품들은 하나같이 전세대와 후세대를 나란히 등장시켜놓고 전세대가 후세대에게 과거에 있었던 위업을 소개하고 전달하는 방식으로 작품들이 유형화되어 진행된다. 그 중 가장 많은 것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통한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과거의 힘들었던 시절과 그 난관 속에서 헤쳐나왔던 위업을 들려주고 소개해주는 틀이다. 이러한 것은 아버지와 아들 대신에 스승과 제자, 전세대 노동자와 후세대 노동자 등의 관계로 바뀌면서 여러 작품에 거의 비슷할 만큼 나타난다. 이러한 면은 이 시기에 나온 작품들의 제목에서도 금방 알 수 있을 정도이다. 예컨대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조선문학, 1992년 4월), 『어제와 오늘』(조선문학, 1991년 6월호), 『언제나 그날처럼』(조선문학, 1992년 6월) 같은 것들이다. 또한 이러한 소설에서 가장 자주 들먹이는 시대는 이른바 천리마 시기이다. 실제로 이 천리마 시대는 2세대들이 전쟁을 치루고 난 다음에 새롭게 건설을 주도했던 시기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북한을 만든 데에는 바로 이 천리마 시대의 위업이 중요한 역할을 한 셈이다. 따라서 2세대들은 자주 이 천리마 시기의 역동적이었던 시절을 4세대에게 들려준다.

동무는 전후 천리마 대고조 시기의 그 정신 그 기백으로 살며 생활하고

로 웅대한 지능과 탐구심을 갖춘 인간들이 위주로 주인공의 위치에 서야 할 것이며 나아가서 나라의 과학기술 발전을 선도해나갈만한 높은 학식의 소유자들이 많이 내세워져야 할 것이다.

위의 인용문 중에서 “과학기술적 재능과 그에 대한 열렬한 지향은 80년대 숨은 영웅들의 성격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던 특징이지만 90년대 인간들의 성격형상에서도 의연히 중요하게 그리고 80년대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 강조된다.”라는 대목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처럼 이 과학기술의 문제는 90년대 사회주의 현실 주제의 문학이 지닌 독특한 측면이다. 물론 80년대의 문학에도 그 부분적 측면이 드러나기도 했다. 그렇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아주 일반적인 상태의 수준이었지 중요한 문제로 부각된 그런 것은 아니었다. 그러던 것이 90년대와서 본격적으로 조명을 받은 것이다.

그러면 왜 90년대 와서 이 문제가 각광을 받게되는 것인가? 이것 역시 위의 인용문에서 잘 드러나 있다. “오늘 우리들 사이에는 과학기술 분야에서 서로 앞서나가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제국주의자들은 인류 공동의 재부인 과학기술을 독점하여 사회주의 나라들의 경제 문화 발전을 억제하기 위해 집요하게 책동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현존 사회주의 국가의 붕괴로 인한 북한의 고립과 이것의 결과로 대두한 과학기술의 차단 및 독자적 개발이 불가피한 사정을 알 수 있으며 이것은 또한 1990년대에 들어서 북한 문학에서 과학기술의 문제가 직접적으로 대두한 근본 원인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국가 정책상 과학기술에 대한 강조를 하기에 이르렀으며 때로는 그 분야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이 아니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소설 속에 직접 언급되기까지 할 정도이며 특히 20대 박사를 매우 강조하는 경향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은 과학기술의 문제를 전적으로 다룬 소설은 물론이고 다른 문제를 다룬 소설에서도 과학기술의 문제는 불쑥나타나기도 한다. 위에서 언급한 바 있는 농촌 문제를 다룬 소설인 『뻐꾹새가 노래하는 곳』과 같은 경우에도 이 과학기술의 문제가 중요하게 대두한다. 농촌이 도시와 비교할 때

있는가 그렇다. 당신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전후 어려웠던 천리마 대고조 시기의 그정신 그 기백으로 당신이 결심하면 바다도 매우 고 산도 옮기는 그런 인간으로 살기를 절절히 바라고 있다. 이 길에서 변심을 모르고 언제나 그날처럼 사는 조한섭 지배인이나 저 순애와 같이 ... 엄진호가 탄 열차는 더욱 속력을 높여 부지런히 달리고 있었다. 여전히 한 본새로, 한 궤도를 따라(『언제나 그날처럼』)

장난기가 어린 딸의 얼굴을 한참동안 바라보고 있는데 중대장이 수첩을 받아쥐며 말을 달았다. “이 자료수첩을 보니 그 땐 모든게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현대적인 착암기와 착정기 그리고 위력한 압축기도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전 그 천리마의 정신으로 일한다면 못해낼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난 열기 땀 그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점점 빠져들었다. (『어제와 오늘』)

위의 인용문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처럼 이 시기에 들어 천리마 시기의 과거가 하나의 절대적 과거로 모든 사람들의 머리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양상은 중 장편소설에 이르러 한층 더 포괄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1990년에 출판된 백보흠의 『우리의 벗』이란 작품을 중심으로 그 구체적 모습을 분석하여 보자. 이 작품은 4세대와 3세대에 해당하는 20대와 40대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4세대의 인물이 2세대의 인물의 위업을 본받고 배우는 구성을 취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앞서 언급했던 일련의 작품들과 비슷한 양상을 드러낸다. 이 작품이 다른 단편소설에 비해 다른 점은 중편소설인 만큼 취급하는 화폭이 넓다는 점이다. 우선 이 소설에는 20대 이외에 40대의 인물이 등장한다. 그런 점에서 이 작품에는 1세대를 뺀 모든 세대의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을 앞서 오늘날 북한에서 실제 나누고 있는 기준으로 세대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세대로는 문정훈 위원장을 들 수 있다. 그는 현재 60대로서 일제하에서 힘들게 살아오다가 해방후에 교양으로 새롭게 태어났다가 전쟁 중에 이 마을 동굴에 들어와 있던 국군을 무찌르는데 공을 세운 인물이다. 현재 군 행정위원장으로 일하면서 모범적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은 그동안 해오던 버릇과 관행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벗』에서는 마지막에 이들이 어느 정도 바뀌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도 이들이 4세대에 비해 얼마나 변화하기 힘든가 하는 것이 중간중간 작가가 의식했든 의식하지 않았든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해 이 소설에 등장하는 20대의 인물들은 다르다. 이들은 발랄하고 가능성이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방향을 잡아주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그 모습이 정해질 수 있는 것으로 이 작품에서 드러난다. 물론 앞서 다른 글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 4세대의 인물들 중 일부가 빛나는 향락주의 등은 나오지 않는다. 여관 봉사원 한선옥은 같은 경우에 잘못된 관행을 저지르고 있지만 주위의 교양으로 금방 고치는 인물로 나타나며, 이 작품의 주인공인 원준의 경우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고 오로지 과학기술에 대한 일념만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인물이었다가 2세대인 위원장의 말을 지침과 교양으로 삼아 자신의 무기를 제대로 쓸 수 있는 인물로 변화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어린 식의 인물 성격화가 얼마나 현실에 근거한 것이기는 더 따져보아야 할 일이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과는 관계없이 오늘날 세대간의 갈등 문제를 북한 사회의 진로문제와 더불어 생각할 때 2세대들은 이들에게 무한한 기대를 걸고 있고 그들의 향방에 따라 사회 전체의 체제의 운명이 달려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상의 분석에서 현실 주제의 소설 중에서 세대간의 갈등문제를 다룬 작품의 실상을 알아보았다. 이러한 경향의 소설이 1990년대 들어 활발하게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그 이전부터 잠재해오던 세대간의 갈등 문제가 현존 사회주의 전반적 붕괴와 더불어 더욱 첨예화된 현안으로 부상한 것에 연유하는 것이다. 이러한 소설은 오늘날 북한의 세대 즉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라는 구체적 층을 배경으로 주로 2세대들의 위업을 3세대와 4세대가 이어받기를 원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3세대와 4세대는 구체적 면모보다는 어떤 유형화된 성격을 띤다. 이러한 측면은 이 문제를 다루게 된 동기가 기본적으로 국제적 국내적 어려움 속에서 북한사회

으로 살아가는 인물이다. 3세대에 해당하는 인물들은 여러명이 나온다. 한상설 지배인은 발전소 건설 지배인으로 보신주의와 공명주의로 꽉차있는 인물이다. 덕홍 발전소의 실패로 도로 소환되지 못하고 계속 발전소 건설에 좌충우돌 하면서 뛰어다니는데 나중에는 교양받고 그러한 태도를 버리게 되고 새로운 인물로 탄생될 것으로 기대되는 인물이다. 이와 같은 세대에 속하는 인물로 박명옥 기사장을 들 수 있다. 그는 덕홍 발전소 설계 실패로 실의한 나머지 병까지 얻어 의기소침하게 지내다가 문정훈 위원장의 도움으로 새로운 기중기를 설계하여 새로운 녹각산 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수문장을 새로 설계하여 성공으로 이끄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하는 인물이다. 이외에도 강선화라고 하는 박명옥 기사장 부인이 나오기도 한다. 그녀는 화학실험실에 근무하다가 압력계 폭발로 사고를 당하지만 근실하게 살아나가는 인물이다. 4세대에 해당하는 20대의 인물에는 이 작품의 화자이자 주인공인 원준이 그 중심적 역할을 한다. 원준은 지질탐사 기사로서 나중에 위원장의 주선으로 박사원에 들어간다. 처음에는 세상을 알지 못하는 고지식한 인물로 성격화 되지만 차츰 주위 사람들의 도움으로 성장한다. 이 세대에 속하는 인물로는 여관 봉사원으로 일하는 한선옥도 들 수 있다. 처음에 원준과 심한 말다툼을 하기도 했던 인물이지만 이 군에 문정훈 위원장이 들어오고 난 다음 새롭게 바뀌어 나중에는 원준을 이해하는 인물로 된다.

이 작품에서 우리의 주목을 끄는 부부는 바로 40대 인물의 성격화이다. 이들은 북한 사회에서 지배인과 기사장을 맡을만큼 사회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들은 앞서 인물의 성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시사했듯이 보신주의자와 공명주의자이거나 혹은 조그만한 시련에도 좌절하고 꺾이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것은 오늘날 북한 사회의 본질적인 부분을 말해주고 있는 대목이다. 이들이 이러한 태도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바로 1990년대에 세대간의 갈등 문제가 이처럼 증폭되어 다루어지는 것이다. 1세대들은 이 작품에 나오는 40대의 인물들은 마음놓고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끊임없이 비판과 교양을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40대의 인물들이 자신의 문제점을 깨닫고 새로운 인물로 바뀌려고 하지만

의 사회적 결속과 통합을 이루어야 한다는 정책적 의도가 너무나 앞서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그리하여 작가가 관념으로 현실을 재단하면서 각 세대의 인물이 역사적 흐름 속에서 구체적이고 생동한 인간으로 나타나기 보다 유형화된 인물로 흐르게 되는 것 같다.

2) 과학기술 문제

90년대 사회주의 현실 주제의 북한문학 중에서 위에서 언급한 세대간의 갈등과 더불어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은 과학기술의 문제이다. 어떻게 하면 과학기술을 혁신 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이 문제를 다루는 작품들의 일반적 관심사다. 이러한 과학기술의 문제가 왜 1990년대 들어와 중요하게 취급되는가 하는 점은 북한의 평론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1991년 3월호 『조선문학』에 발표된 윤상현의 「90년대 인간의 성격」에는 90년대 인물의 성격 창조에서 과학기술의 문제의 중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은 주장이 나온다.

1990년대 인간의 성격적 특징은 또한 최신과학기술에 대한 강렬한 지향과 풍부한 과학기술적 소양이다. 과학기술적 재능과 그에 대한 열렬한 지향은 80년대 숨은 영웅들의 성격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던 특징이지만 90년대 인간들의 성격형상에서도 의연히 중요하게 그리고 80년대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 강조된다. 그것은 세월이 흐를수록 시대가 바뀔수록 과학기술의 발전속도가 한층 더 미증유의 것으로 되며 더우기는 90년대의 웅대한 전망과 '90년대 속도' 자체가 높은 과학기술적 안받침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의 자주성을 규정하는 결정적 요인이 사상의식이라면 사람의 창조성을 규정하는 기본 요인은 과학기술 지식이다. 오늘 우리들 사이에는 과학기술 분야에서 서로 앞서나가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제국주의자들은 인류공동의 재부인 과학기술을 독점하여 사회주의 나라들의 경제 문화 발전을 억제하기 위해 집요하게 책동하고 있다. 이러한 형편에서 과학기술을 모르고서는 적들과의 대결에서 이길 수 없으며 90년대 영웅으로 될 자격을 갖추지 못한다. 90년대의 작품에서는 마땅히 과학기술적으

결코 뒤떨어지지 않음을 강조하기 위하여 수공업적 방법으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도의 과학기술에 의해 농촌의 제반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묘사하는 것이 그 단적인 예이다. 이러한 것은 세대간의 갈등 문제를 다룬 『우리의 벗』이란 작품에서도 드러나는데 여기서는 20대 박사에 대한 선망을 비롯하여 몇개월이 걸릴 일이 과학기술의 힘 특히 기증기의 도움으로 단축되는 과정에 대한 지루한 묘사에서 그 극에 달한다. 특히 이 소설에서는 이러한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인해전술로 하지 말고 과학기술의 힘으로 하라는 김일성의 교시를 직접 인용하는 부분도 그러하다. 이처럼 1990년대 북한작품 중 현실 주제의 소설에서는 과학기술의 문제를 다룬 문제와 관련지어서 보여주는 경우가 흔한데 그것이 가장 돋보이는 부분은 역시 이 문제를 독립적으로 다루는 작품에서이다.

1993년 1월 『조선문학』에 발표된 『거대한 날개』는 과학기술의 문제를 독립적으로 다룬 대표적인 작품이다. 이 작품은 인민대학습당 열람실 도서대출원으로 일하는 결혼을 앞둔 처녀 보옥과 전자공학부를 마치고 지금 과학원 연구사로서 지방의 기업소에서 중요한 시험을 하고 있는 철우 사이의 갈등을 통해 과학기술의 문제를 다룬 것이다. 결혼을 앞둔 보옥은 새로운 보금자리를 꿈꾸면서 무엇을 장만해야 좋을 것인가를 비롯하여 자질구레한 생활상의 요구에 매달리게 되는 반면, 철우는 아내될 사람이 자신이 탐구하는 과학연구에 동반자가 되어줄 것을 바랐고 또 약속했기 때문에 보옥의 그러한 태도를 못내 못마땅해 한다. 보옥은 이런 철우의 속마음을 모르고 자신에 대한 철우의 애정이 식지나 않았는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되며 이를 확인하려고 철우가 일하는 지방 기업소를 직접 찾아간다. 철우는 최종시험을 하고 있는 시점이라 보옥의 전화를 받고도 이내 달려오지 않고 계속 일만 하자 보옥은 이러한 철우의 태도가 애정이 식은 결정적 증거라 믿고 메모를 남기고 돌아간다. 보옥이 머무르던 요양소에 철우보다 먼저 간 기업소 연합당위원장은 보옥이 메모만 남기도 돌아간 사실을 발견하자 차를 몰아 정거장에서 차를 타려고 하던 보옥을 데리고 철우가 일하는 기업소 시험현장으로 간다. 여기서 일하는 철우의 모습과 또한 이 기업소의 많은 사람들이 철

우의 이러한 일은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목격하고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자신도 일할 것을 달라고 요청할 정도로 다른 사람으로 바뀐다. 철우는 마침내 최종시험에 성공하여 보옥과 만나고 이들은 새로운 미래를 설계한다는 것으로 이 작품은 끝맺는다.

기업소 연합당위원장의 갑작스러운 방문과 이로 인해 보옥이 돌아오게 되는 대목의 부자연스러움은 차치하더라도 생활에 대한 무관심을 탓하던 보옥이 현장을 보자 갑자기 변하는 부분이라든가 마지막 부분에서 철우의 시험성공이 그동안 이들 관계에서 문제되었던 갈등을 해소하게 만드는 것으로 설정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결국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노력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보옥과 같은 여자들은 그러한 과학기술을 창조하는 남자의 내조를 잘 해주어야 한다는 것으로 되어버렸다. 과학기술의 문제 앞에서는 어떤 것도 사소한 것이며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버린다. 이런 점들은 90년대 문학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과학기술의 문제가 인간 삶의 사회적 관계 속에서 드러나기 보다는 오히려 그 자체가 목적으로 되어버리고 모든 다른 것은 그것에 종속해버리는 일종의 기능주의적 물신화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과학기술의 문제를 좀 다른 각도에서 다룬 중편소설의 김원종의 『해빛은 넘쳐라』(1992)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이 소설은 자동화가 실현된 어느 한 제철소에서 노동자들과 기술자들이 현대과학기술을 체득해가면서 최신형 전자계산기를 도입함으로써 자동화의 본보기 공장으로서의 면모를 지켜나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이 소설의 주인공 나근수는 제철소의 권양기 작업반에서 전공일을 하며 공장대학을 졸업한 노동자다. 그의 성실한 노력이 눈에 띄어 자동화를 맡게 되며 나아가 부기사장의 직책까지 맡게되었다. 나근수는 그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노동자들이 현재의 기술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더 나은 기술 예컨대 컴퓨터를 통한 자동화라든가 로봇트 등의 기술을 익히고 개발하게끔 함으로써 과학기술의 수준을 한단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하게된다. 물론 이 작품은 90년대의 노동자는 과거처럼 단지의욕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현실에 맞게 고도의 과학기술을 구비한 그런 높은 수준의 노동자가 되어야 함을 보여줌으로써 90년대의 노동자의 성격을 창조하려고 한 작품이다. 그런데 위에서 보았던 것처럼 거기에는 바로 과학기술의 문제 즉 컴퓨터를 통한 자동화로 로봇의 개발 등이 핵심적인 사안으로 등장하는 것이다. 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고도의 과학기술을 자기화하여야만 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 이 소설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 점에서 90년대의 현실 주제의 작품이 가장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문제 중의 하나인 과학기술의 문제를 이 작품은 집중적으로 그리고 가장 첨예하게 보여준 셈이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90년대 사회주의 현실 주제의 문학작품의 두드러진 특징은 세대간의 갈등 문제와 과학기술의 문제를 표나게 강고하고 이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북한의 그동안의 흘러온 역사를 더듬어 보면 일면 자연스러운 측면을 가지고 있다. 해방후 지금까지의 역사를 볼때 세대간의 차이라는 것은 상당히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며, 오늘날 전세계가 과학기술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북한의 현실에서도 과학기술의 문제가 대두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또한 이전의 북한문학에서 특히 80년대의 작품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취급되었던 것을 고려할 때 이 또한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90년대에 와서 세대간의 갈등이나 과학기술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은 그 이상의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것은 현존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이에 따른 북한의 국제적 고립 및 체제 유지의 중요성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이다. 오늘날 북한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체제 붕괴의 위기를 겪고 있다. 소련을 비롯한 옛날의 '우방' 들이 없어진 이 마당에 결국 자본주의 나라로부터 포위된 상태에 놓이게 됨으로써 북한 내 사회적 통합이 절실하게 된 것이다. 북한 사회내에서의 통합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결절점은 바로 젊은 세대이다. 특히 40대를 전후한 '3세대' 와 20대를 전후한 '4세대' 들이다. 소련을 비롯한 현존 사회주의의 붕

괴에서 자본주의를 가장 선호한 층은 바로 이 젊은 세대이었다. 뿐만 아니라 이 젊은 세대는 일제시대나 전쟁을 경험하지 못하고 따라서 현재 북한의 상태가 얼마나 힘들게 쌓은 것인가를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나이든 세대에 비해 하나하나의 사물에 애정을 갖기가 어려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세대의 문제가 첨예한 문제로 대두될 수 밖에 없고 그런 점에서 이들에게 교양을 주기 위하여 세대간의 갈등 문제를 다루는 작품을 많이 쓸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과학기술의 문제도 이러한 국제적 여건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이제 북한은 중국 이외에는 이러한 선진적 기술을 전수 받을 데가 없다. 과거에는 소련을 비롯한 동구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욱더 주체적으로 과학기술을 발전시킬 도리 밖에 없는 것이다. 게다가 이전과 달리 이러한 과학기술의 발전 없이는 자본주의로 포위된 속에서 생산성을 높일 수가 없고 살아남기가 어려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고도의 과학기술의 발전을 요구하게 된 것이고 작가들은 이러한 국가적 정책에 맞추어 과학기술 발전의 절실함을 이야기하는 작품을 많이 쓰게 된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90년대 현실 주제의 작품은 주로 이러한 세계적 질서의 재편 속에서 북한이 살아남기 위하여 국가에서 내건 긴요한 정책을 작자들이 수용한 경향이 농후한 것이다. 따라서 삶의 구체적 문제 속에서보다는 오히려 현실과는 긴밀한 연관이 없이 작가의 주장에 가까운 것으로 드러나게 되어 작품의 예술성을 떨어뜨리게 한다.

5. '조국통일' 주제 문학의 새로운 양상과 그 의미

1990년대 북한문학 중에서 앞서 다룬 '사회주의 현실' 주제의 문학과 더불어 뚜렷한 변화를 보여주는 부분이 이른바 '조국통일' 주제의 문학이다. 전통적으로 조국통일 주제의 소설은 으레히 남한의 현실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조국통일이란 문제는 이미 해방된 북한이 아직 해방되지 못하고 '미제'의 압제 밑에서 신음하고 있는 남한을 구한다는 극히 단순한 문제였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조국통일의 문제는 남한과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이러한 주제의 소설은 남한의 비참한 현실과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싸우고 저항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바쳐지곤 하였다. 이른바 '반미구국투사'를 그리는 것이다. 이러한 양상은 8.15직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예컨대 당시 남북한이 분단된 후 남한에서 빨치산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의 투쟁 모습을 담은 작품이 월북 작가들을 중심으로 쓰여지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이른바 통일주제 소설의 첫모습이었다. 이러한 것은 그후 남한에서 벌어진 대규모의 투쟁들 예컨대 4.19라든가 광주항쟁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다룬 중장편소설이 나오는 것으로 이어지곤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소설들은 기본적으로 남한을 미국의 식민지로 규정하고 있는 공통적 양상을 띠게 되었다. 그리하여 조국통일의 유형화된 작품은 미국의 식민지인 남한의 비참한 현실과 그 속에서 싸우는 인물들의 모습을 담아내는 것이 하나의 틀로 굳어졌다.

그런데 1990년대에 이르러 이 조국통일 주제 소설에서 현저하게 드러나는 변화는 남한이 아닌 북한의 인물들이 겪는 분단현실을 축점으로 한 작품이 나온다는 점이다. 이것은 얼른 보아서는 별다른 변화가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특히 남한의 작가들이 분단문제를 다룰 경우 대부분 분단으로 인해 남한의 현실에서 겪는 어려움을 그 주된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이러한 것은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한 것으로 충분히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북한의 조국통일 주제의 소설이 주로 남한의 현실을 배경으로 해왔던 사정을 감안해 본다면 이는 매우 중요한 변화이다. 따

라서 우리는 왜 이 시점에 이르러 접근법의 조국통일 주제의 소설이 나왔는가 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1990년대에 들어 『조선문학』에 발표된 작품 중에서 새로운 경향을 띤 조국통일주제 소설로서 우선 1990년 3월 『조선문학』에 발표된 김명익의 『임진강』을 보자. 이 작품은 평양에서 교수일을 하는 남편을 두고 있는 중년의 부인이 휴전선 부근에서 혼자 살고 있는 친정 어머니를 평양을 모시고 가서 같이 살자고 설득하려 가는 것으로 시작된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병을 고치러 남쪽으로 내려갔다가 돌아올 수 없게된 남편과 아들을 기다리면서 조국이 통일되는 날 이들을 만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으로 그리고 이들이 언제라도 옛날 이 집을 찾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낡고 생활하기 힘든 고향집을 떠나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 딸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는 결국 자신의 의지대로 이곳에 남기로 하고 딸은 그러한 어머니의 간절한 소망을 다시 확인하고는 홀로 평양으로 돌아간다.

이 작품은 필자가 아는 한 분단으로 인해 북한 주민이 겪는 고통을 처음으로 다룬 것이다. 과거에는 이러한 것이 거의 나타난 적이 없었던 것에 비해 이러한 인물이 나온다는 것은 참으로 충격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작품에서 정작 우리의 관심을 끄는 어머니의 다음과 같은 발언이다.

너도 방송에서랑 들어 알겠지만 저 남쪽에서 문익환 목사랑 황석영 분이랑 우리 북반부를 다녀가지 않았니. 그리고 어린 처녀인 임수경이와 문규현 신부도 통일을 위해 평양에 왔다가 통일을 위해 돌아갔지. 장벽이라던 군사분계선을 걸어 지나서 말이다. 그들 모두 조국해방 선 뚫이 되는 해까지는 기어코 나라를 통일하고 분단민족의 슬픔을 끝장내자고 하였지. 민심은 천심이라구 통일의 날은 반드시 온다.

위에 인용된 부분은 친정 어머니가 딸의 간청을 거절하면서 자신의 현재 심경을 말하는 대목이다. 어머니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이 통일의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계속 이 집을 지키면서 남편과 아들이

돌아올 날을 기다리겠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새로운 가능성의 근거로 들고 있는 부분이 다름아닌 1989년에 있었던 남한 사람들의 방북 사건이다. 실제로 이들의 방북이 북한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를 부분적이지만 이 대목을 통하여 어느정도 짐작할 수 있다. 즉 북한 사람들이 통일에 대해 그동안 북한의 국가 이데올로기에 의해 들어왔던 것 즉 미국이란 제국주의를 물리치고 남한이 식민지로부터 해방될 때 비로소 조국통일이 될 수 있다는 정식화된 경로 이외의 다른 길을 어렵פות하게나마 느끼게 되었다는 점이다. 물론 그것은 막연한 것이고 어떤 구체적인 전망이 보이는 그런 것은 아니다. 아직도 다분히 과거에 교양 받아왔던 정식화된 길이 지배적인 사고를 점하는 그런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은 전혀 예기치 못했던 남한 사람들의 방북을 보면서 그동안 자신 속에 억눌려 있던 소망이 튀어나왔다는 점이고 또한 그것은 국가 이데올로기에 의해 채색된 것이기 보다는 심정적이고 인도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위정자들으 원하지 않았겠지만 남한 인사들의 방북은 북한 주민들에게 이러한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대목이 이 논의에서 주는 더 큰 의미는 1990년대 이르러 그 이전의 조국통일 주제 소설에서는 볼 수 없었던 접근법 즉 분단 현실 하에서 북한 주민이 겪는 삶의 현실을 다루기 시작하는 소설이 나온다는 점에 대한 근거의 일단을 시사해준다는 점이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이 시기에 이르러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이러한 문제의 소설이 나오게 된 데에는 그동안 국가 이데올로기에 의해 일방적으로 전해내려오던 추상적인 길에서 벗어나 막연하기는 하지만 심정적으로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이산가족의 재회와 같은 문제들이 대두되기 시작하고 그것이 일반 주민들의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던 소망을 건드리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조국통일의 문제를 다루어야 할 필요성을 작가는 새롭게 변한 북한 사람들의 현실에서 민감하게 잡아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같은 호 『조선문학』에 실린 림종상의 『쇠찌르레기』도 이와 같은 경향을 띤 작품이다.

이처럼 1990년에 들어 발표되기 시작한 새로운 형태의 조국통일주제의 소

설은 일시적 현상으로 그치지 않고 이후 계속 진행되었다. 위에서 언급한 작품이 나온 다음달인 1990년 4월에 『조선문학』에 발표된 류도희의 『열쇠』 역시 이러한 새로운 경향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이 작품은 공장 지배인으로 근무하고 있는 58세의 박성규 일가가 겪는 분단의 아픔을 그린 작품이다. 딸을 시집 보내면서 박성규의 아내는 딸에게 집 열쇠를 준다. 언제든지 친정집에 오고 싶으면 집에 누가 없더라도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모녀간의 이러한 사정을 보고 듣고 있던 박성규는 이 장면을 계기로 옛날 자기가 이남의 고향집을 떠날 때의 상황을 머리 속에서 다시 회상하게 된다. 노모가 인민군을 따라 북으로 올라가는 아들에게 열쇠를 쥐어주면서 언제든지 기회만 되면 집으로 돌아오라고 당부하였던 것이다. 지금은 생사조차 모르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리면 다시 한번 분단의 슬픔을 느끼는 것으로 이 작품은 마무리된다.

이상의 개괄적인 줄거리를 통해서 잘 알 수 있듯이 『열쇠』 역시 과거의 조국통일 주제 소설과는 달리 새로운 접근법을 보여주고 있다. 앞서 언급했던 『림진강』이나 『쇠찌르레기』와 같은 새로운 흐름을 대변하는 작품인 것이다. 여기서도 과거의 작품에서 볼 수 있었던 미 제국주의라든가 괴뢰정권이 라든가 하는 구호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이산가족이 겪는 인간적 슬픔과 고통을 그냥 묘사하고 그것의 연장선 위에서 자연스럽게 통일을 염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다. 여기서 1990년에 들어 새롭게 제기된 조국통일 주제의 새로운 소설들은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니며, 오늘날 새롭게 전개되고 있는 북한의 현실의 일단과 관계되는 것임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의 작품은 이후 계속하여 발표되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따져보아야 할 점은 앞서 간략하게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러한 새로운 경향의 접근법의 소설이 이전의 그것과 다른 점의 배경에는 미묘한 이데올로기적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이전의 조국통일 주제 소설들이 주로 남한을 다루고 또한 미제국주의에 의해 식민지화된 남한의 비참한 삶과 그 속에서 일어나는 투쟁을 그렸는데 이는 통일문제에 대한 북한의 정식화된 국가 이데올로기에 의해 강력하게 뒷받침되어 있던 것

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향을 띤 작품들은 항상 새로운 소재를 다루고 새로운 인물을 취급하면서도 기본적으로 그 구성이 동일하였다. 그 국가적 이데올로기를 벗어나서 쓴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그런데 1990년대 들어 이와는 다른 새로운 경향의 접근법으로 분단과 통일을 추구하는 소설이 나오고 그것이 그 이전과는 달리 남한이 아닌 북한의 주민들이 겪는 분단의 문제를 다룬다는 것은 작은 차이 같지만 국가 이데올로기에서 약간 벗어나기 시작함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그동안 무시하였던 문제들 예컨대 북한의 사람들이 분단으로 겪는 고통을 다루기 시작하였다는 것은 그런 점에서 이데올로기적 변화의 일단—물론 아주 어렵듯한 수준의 것이지만—이 나타나기 시작함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 북한 현실의 총체적인 움직임과는 거리가 있는 필자의 인식 부족이 아님을 다음과 같은 비교적 위엄있는 북한의 공식적인 목소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작품의 사상적 대를 똑바로 세우는 문제는 최근 일부 작품에서 사상적 지향성과 문제성이 명백하지 못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실태로부터 더욱 절박하게 나서는 창작실천적 요구이다.

최근에 발표된 일부 조국통일주제의 작품들에서는 우리 조국을 둘로 갈라놓고 우리 인민에게 분열의 고통을 강요하고 있는 근본원흉인 미제 침략자들에 대한 치솟는 민족적 분노와 증오심을 강하게 불러 일으키지 못하고 지엽적인 문제들에 형상의 주목을 돌리는 것과 같은 편향이 나타나고 있다. 일부 소설들에서는 남조선 현실을 반영하면서도 큰 반세기동안이나 우리 조국 남반부를 강점하고 식민지 통치를 감행하면서 남조선을 핵전초기지로 전변시킨 미제침략자들의 만행을 폭로단죄하고 놈들을 몰아내기 위한 데로 사상적인 대를 튼튼히 세우고 형상조직을 하지 못하고 이런저런 생활을 보여주는데 그치고 마는 경우들이 있다. 특히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군사와 쇼통치를 반대하고 미국놈들을 남조선에게 내쫓기 위하여 항쟁의 거리에서 피흘리며 싸우고 있는 주인공들을 정면에 내세우지 못하고 분렬로 인한 인정적인 설움이나 고통을 보여주는 주인공들을 그리는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물론 근반세기에 걸치는 분렬로 인하여 혈육들이 갈라져 생사 여부조차 모르고 있는 비극적인 현상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하여 분렬의 아픔과 고통만을 보여주는데 그치고 이러한 비극을 강요하고 있는

미제와 분렬주의자들의 책동을 짓부셔버리고 통일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에
로 사람들을 이끌어주지 못한다면 그러한 작품은 시대와 혁명 앞에 지닌
자기의 사명을 다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창작에서 특별히 유의해야 할 문제는 조국통일주제의 작
품들에게 혈육들이 갈라졌다가 해외를 거쳐 기구하게 상봉하는 것과 같은
식으로 통일의 절박함을 강조하는 작품들이 편향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물론 조국통일을 위한 범민족적인 여러가지 운동들이 활발해지고
여러가지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는 현실적 조건에서 이러한 생활을 반영하
는 작품들이 많이 나오는 것은 있을 수 있는 현상이다. 문제는 갈라졌던
부모처자 형제자매들이 기구한 운명의 길을 걸쳐 상봉하게되는 생활에 많
이 치중하고 있는데 이는 혈육들을 갈라놓은 원흉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
중오심을 적을 강하게 짓부시고 조국통일위업을 기어이 이룩하기 위한 투
쟁에로 사람들을 힘있게 불러 일으키지 못하는데 있는 것이다. (『오직 우리
식대로 창작하자』, 조선문학. 1991. 9월호. 4-5면)

여기에 인용한 글은 『조선문학』 1991년 9월호에 발표된 것으로 이 잡지의
주필급 정도의 사람이 쓴 머리글의 일부이다. 『조선문학』에는 매달 이 머리
글이 실리는데 이는 이 잡지의 공식적인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있
다. 위의 글은 1990년 3월 이후 여러 지면을 통해 제기된 새로운 형태의 조
국통일주제의 소설에 대한 일종의 경계심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이것은
이 시기에 나온 이 새로운 경향의 소설이 당대를 지배하고 있는 국가의 공
식적 이데올로기와 어떤 점에서 불일치하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 글의 필자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은 과거 몇십년을 지배하고 있었던
공식적인 조국통일주제의 접근법이 무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점은 “미제
와 그 앞잡이들의 군사파쇼통치를 반대하고 미국놈들을 남조선에서 내쫓기
위하여 항쟁의 거리에서 피흘리며 싸우고 있는 주인공들을 정면에 내세우지
못하고 분렬로 인한 인정적인 설음이나 고통을 보여주는 주인공들을 그리는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대목에서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식민지에서 살고 있는 남한 사람의 비참한 생활과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싸우는 사람들의 영웅적인 모습을 담는 것은 과거의 조국통일주제의

소설이 예외없이 가지고 있었던 틀이었다. 그런데 최근들어 그러한 틀이 점점 사라지고 이를 대신하여 북한 사람들이 겪는 이산가족의 아픔과 같은 문제들을 거론하기 시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처럼 느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 글의 필자는 이러한 문제를 다루는 것이 ‘지엽적인 문제’ 혹은 ‘이런 저런 생활’이라고 간주하였다. 그런데 공식적인 이데올로기에 젖어있는 사람들에게 한낱 지엽적이고 단순한 생활의 한 부분에 불과하던 것이 갑자기 많은 작가들에게 중요하고 절실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계속하여 공식적인 이데올로기 하에서 세상의 삶을 파악하려고 하는 이에게 이는 매우 위험한 일이지만, 생활의 묘사를 통해 사회적 인간의 모습을 추구하고자 하는 작가들에게 그리고 새로운 현실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작가의 임무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이러한 경향은 분명 의미있는 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미묘한 차이는 오늘날 남한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별로 크게 다가오지 않을 수 있는 문제일 수 있지만 이 북한 구성원 내에서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중대한 사태임은 위에서 살펴본 바 북한의 가장 중요한 문학 잡지인 『조선문학』의 머리말에서 이렇게 흥분하여 말하고 있는 대목에서 어렵지 않게 느낄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앞서 필자가 누누히 지적했다시피 1990년에 들어와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독특한 조국통일 주제의 소설들이 북한 내부의 국가 이데올로기와 실제적 생활현실과의 충돌을 일정하게 의미한다는 파악은 결코 피상적이거나 주관적인 것이 아니다.

위의 인용문에서 또하나 유심히 살펴보아야 할 대목은 이런 새로운 경향의 조국통일주제의 소설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북한 내부의 현실적 근거에 대한 이 글 필자의 생각이다. 새로운 경향에 대해 극도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오직 우리 식대로 창작하자』의 필자도 이러한 경향이 나올 수밖에 없는 필연성을 전적으로 부정하지 못한다. 그는 그 근거로 다음 두가지를 들고 있다. 하나는 실제 분단된 현실에게 겪을 수밖에 없는 북한 사람들의 고통이며 다른 하나는 남한 사람들의 방북을 포함하여 새롭게 전개되는 통일운동의 양상이다. 전자에 대해 그는 “물론 근반세기에 걸치는 분렬

로 인하여 혈육들이 갈라져 생사여부조차 모르고 있는 비극적인 현상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라고 말하면서 이러한 이산가족이 분단된 현실에서 겪는 고통의 현실성을 인정하는 발언을 한다. 후자에 대해서는 “물론 조국통일을 위한 범민족적인 여러가지 운동들이 활발해지고 여러가지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는 현실적 조건에서 이러한 생활을 반영하는 작품들이 많이 나오는 것은 있을 수 있는 현상이다.”라고 말하면서 이 새로운 경향의 소설들의 출현에 방북과 같은 전혀 예기치 못했던 통일운동의 전개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앞에서 필자가 강조하였던 점 즉 1990년에 이르러 그전과는 다른 새로운 접근법의 통일주제 소설이 나오게 되는 이유로서 그 이전부터 북한 사람들 내부에 깊숙이 자리잡고 있었던 가족적 그리움 같은 것이 방북과 같은 사건을 계기로 표출되기 시작했다기 때문이라는 점을 또한 뒷받침해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선문학』의 머리글에서 이러한 식의 우려가 담긴 글이 발표될 정도로 이 새로운 경향의 통일문제 소설은 큰 충격을 주었다. 이러한 도도한 흐름은 이 머리말에서 나타나는 경고성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는다. 언뜻보면 이 정도의 주의가 내려졌다면 당연히 이러한 경향의 소설이 사라질 듯도 한데 사정은 전혀 그렇지 않다. 이러한 경향의 소설은 잠시 주춤했지만 연이어 계속 발표되고 있다. 이는 그만큼 이 새로운 접근법이 북한 내부에서 중요한 현실인식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연장선 위에서 나온 남대현의 『상봉』이란 작품을 살펴보자.

이 작품은 『오직 우리식대로 창작하자』라는 경고성이 섞인 머리글이 발표된 후인 1992년 7월에 『조선문학』에 발표된 작품이다. 월북하여 이산가족이 된 신문기자 재호는 신문에 나오는 남한 출신의 사람들의 이야기는 항상 빠뜨리지 않고 보는 버릇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번번히 실패한다. 이름이 옛날 자기 마을의 사람인 것처럼 보일 때마다 직접 찾아가 만나보곤 했으나 동명이인이든가 혹은 전혀 엉뚱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바다에서 태풍을 피해 동해안의 북한 항구로 피신한 남한의 어선에 탑승한 어부들의 명단에서 자기 어렸을적 고향 친구의 이름과 똑같은 이름을 발견하고 이번

에도 속는 셈치고 만나려고 노력한다. 명단에 있던 영태라는 인물을 직접 만나보았을 때 그는 진짜로 어렸을 때 고향 마을에서 같이 컸던 친구이었다. 서로 흥분하여 좋아했지만 그 친구 영태는 다시 내려가야만 했고 그래서 상봉도 잠깐이었다. 헤어질때 서로 겪는 아픔은 만나기 전에 막연하게 그리워할 때의 고통보다 더 하다는 것을 느낄 뿐이다.

이 작품 역시 과거의 조국통일주제의 소설과는 다른 새로운 경향의 소설이다. 기본적으로 분단으로 인한 이산가족의 고통을 다룬 작품이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소설에서 볼 수 있었던 요소들은 거의 빠져있다. 예컨대 남한에서 배가 올라오게된 동기가 북을 동경하여 월북한 것이 아니라 태풍이라는 천재지변으로 어쩔 수 없이 북한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구성이 그러하다. 또한 그 친구와 만났을 때에도 남한의 비참한 사정에서 고통받고 있는 모습을 어떤 설정을 통해서라도 보여줄 듯한데 그 역시 빠져있다. 단지 옛날 친구를 만났을 때 느끼는 회한이 주로 취급될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의 궁극적 주제는 분단된 상태에서 잠깐 만나는 것과 같은 방식의 상봉은 만나지 못할 때의 고통에 비해 한층 더 견디기 힘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궁극적으로 남북한의 민족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환기시키고 있다. 이러한 것 역시 남한 독자들의 눈에는 너무나 소박한 것으로 비칠지 모르지만 실제로 이것이 북한 사회 내부에선 가지는 파장이란 앞서 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정도의 것이다.

이 작품에서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할 점은 이 작품이 앞서 언급했던 경고성 발언이 강한 머리글 『오직 우리식대로 창작하자』가 나온 후에 발표된 작품이라는 점이다. 머리글에서 상봉이라든가 이산가족의 고통 등을 그리는 것에 대해 일면 수긍하면서도 근본적으로 이러한 경향의 것이 오늘날의 엄연한 현실 즉 미국이 남한을 식민지로 삼고 있는 것을 무시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것이라는 지적을 『상봉』은 결코 무시할 수는 없었다. 물론 그 글이 나온 후에도 과거와 같은 작품으로 전적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다. 그리하여 분단으로 인한 북한 사람들의 고통을 계속 다루기는 하지만 머리글에서 말했던 지적을 또한 전적으로 외면할 수는 없는 것이기에 작가 남대현은

이 작품의 말미에 이 작품의 전체적인 구성과는 별로 특별한 연관이 없지만 다소 구색 맞추기 식으로 이 점을 명시하는 방식을 택한다. 작자는 다음과 같은 ‘사족’ 들을 주인공 혹은 화자의 입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덧붙인다.

이렇게 되뇌이는 형태(남한의 어부로서 북한의 기자인 재호의 어릴적 친구-인용자)의 목소리는 한탄이라기 보다 차라리 그 어떤 부르짖음이었다. 아니 가슴을 긁어내리는 피타는 절규였다. 그것이 우리의 죄가 아니라는 것을 바로 우리나라를 둘로 토막친 외세와 그 세력에 아부하는 분렬주의자들 때문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으나 재호(북한의 기자로서 이산가족-인용자)는 가슴이 미어져 올라 나가지 않았다.(남대현 작 『상봉』, 조선문학, 1992. 7. 78면)

나 역시 오늘의 상봉이 괴로웠네, 그렇지만 난 바로 그 괴로움 속에서 내일에 대한 확신 뚜렷한 확신을 가지게 됐네. 상처의 고통은 종처를 도려낼 때가 제일 심한 법이 아닌가! 생명의 탄생 역시 가장 모진 진통을 거치기 마련이고, 난 오늘의 상봉에서 우리가 바로 그러한 처지에 있다는 걸 똑똑히 깨달았네! 삼천리 강산이 하나로 되고 외세가 물러나고 분열의 장벽이 무너지고…… 그렇네 통일이네(남대현 작 『상봉』, 조선문학, 1992. 7. 79면)

물론 이글에도 ‘미제’ 라는 말보다 ‘외세’ 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는 데서 분명하게 드러나듯이 매우 조심스러운 접근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덧붙임도 머리글이 나오기 전의 소설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부분들이다. 그런 점에서 이 작품은 1990년 이후에 나온 새로운 경향의 조국통일 주제의 소설이 당의 공식적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계속 지속되고 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상에서 보았던 새로운 경향의 조국통일주제의 소설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적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이러한 소설이 지니고 있는 일반적 양상 특히 그것이 결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몇가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로 들 수 있는 것은 이 새로운 경향의 소설이 분명 그동안 무시되어

오던 현실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단현실에 대한 거시적인 조망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이 잘 나타나 있는 것은 이들 소설에 나타나는 월남한 인물들의 동기 설정 부분이다. 『쇠찌르레기』, 『기다리는 마음』 그리고 『림진강』은 동일하게 월남한 가족을 두고 있는 집안의 이야기이다. 북한의 이산가족은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월북한 가족의 이야기이다. 이것은 고향을 남쪽에 두고 있는 사람이 해방직후나 전쟁 기간에 월북하였기 때문에 지금도 남한에 가족을 두고 있는 형태이다. 류도희의 『열쇠』와 같은 작품이 여기에 속한다. 이와는 달리 월남한 가족의 이야기는 해방직후나 전쟁 기간에 가족의 일부가 남한으로 갔기 때문에 지금 가족의 일부가 북한에서 남한의 가족을 그리워하는 형식이다. 『쇠찌르레기』, 『기다리는 마음』 그리고 『림진강』이 그러한 예에 속하는 작품이다. 그런데 이 월남한 가족의 이야기를 다루는 소설에서 보게되면 흥미있게도 월남한 사람들의 동기가 그 당시 사회의 전반적 사회적 정황과 다소 거리가 있게 설정되어 있다. 『쇠찌르레기』에서 아들이 월남한 동기는 원자탄이 떨어진다는 소문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 있다.

할아버지께서는 전쟁이 끝나고 온 나라가 환희로 들끓던 날 돌연히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비록 원자탄 바람에 겁을 먹고 따라갔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자식들이 지성인인 것만큼 이런 날에는 새들이 둥지로 찾아들 듯 문전에 나타날 수 있으리라던 한오리의 기대마저 포기해야 했으니까요. 마지막 지탱점을 잃자 할아버님은 끝내 쓰러졌던 것입니다.

이러한 양상은 같은 월남한 가족을 두고 있는 집안의 문제를 다룬 『기다리는 마음』도 마찬가지이다. 이 작품에서 남편과 아들이 월남한 동기도 역시 원자탄을 피해서이다.

이 가정이 그만 전쟁 때 박상금의 실책으로 하여 풍지박산이 되었다. 그가 미군의 원자탄 선전에 속아서 아들을 남쪽으로 떠밀어 보냈던 것이다. 폭탄 한개에 글세 백리가 녹아난다지 않니, 백리 안에 있는 건 사람이건, 쇠붙이건, 바위드렁이건 모조리 거덜을 낸다누나. 그러니 너만이라도 원자

탄이 떨어지지 않는 곳에 멀찌감치 가서 살아 남아야겠다. 박상금은 그날 홍경래의 말을 그대로 옮겨 놓은 이 설교로 아들을 달래었는데 이 설교가 그만 무엇으로써 씻을 수 없는 일생일대의 한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처럼 월남의 동기가 원자탄의 공포 때문인 것으로 설정한 것은 그리고 많은 작품들이 엇비슷하게 이러한 것을 채용한 것은 분단이 이루어진 당대 사회적 역사적 현실에 대한 좀더 본질적인 천착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다. 물론 월남한 데에는 위의 작품에 나오는 것처럼 원자탄의 공포가 크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렇지만 당시 월남한 사람들의 동기에는 더 많은 사회적 역사적 원인이 개입되어 있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이 원자탄 문제만을 이렇게 강조하고 또한 여러 작가들이 우연 이상으로 이것을 중요하게 설정하는 것은 이 새로운 경향의 조국통일 주제의 소설을 쓰는 작가들이 알게 모르게 아직도 일정한 제약을 벗어나 분단의 문제를 보고 있지 못함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러한 양상은 『림진강』에도 드러난다.

『림진강』에서 주인공의 남편과 아들이 월남한 동기는 단순한 병으로 설정되어 있다. 강건너 의사집에 열병이 난 애를 보기 위하여 남편이 건너갔다가 그 강을 경계로 군사분계선이 그어짐으로써 남편과 아들이 다시는 돌아올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때 너희 아버지가 다섯살 난 네 오빠를 등에 업고 저 나무를 건널 때에는 한 밤 자고는 오는 줄 알아더니, 하긴 전쟁이었지, 전선이 몇 차례나 저 임진강을 사이에 두고 밀려왔다 밀려갔다 할 때이니 무슨 일인들 없었겠니, 허지만 그 때 나와 너희 아버지도 그런 걸 가려볼 경황이 없었다. 열병에 걸린 네 오빠가 불덩이처럼 열이 나고 금시 넘어가는 듯 할딱거렸으니 아무리 불비 속이라 해도 강 건너 삼거리 마을의 명의네 집을 찾아 떠나지 않을 수 없었구나, 그렇게 떠나간 너희 아버지가 닷새가 지나고 열흘이 넘었는데도 돌아오지 않고 아무런 기별조차 없었구나 무사히 가 닿거나 했는지 아들의 병은 어떠한지…… 나는 뜬 눈으로 날을 밝히며 기다리지 않았겠니, 그 사이 나무길도 막혀 버리고 말았다는 것도 모르고 말이다. 또 열흘을 지났는데 그렇게도 날마다 밤마다 쉴 사이없이 울부짖던 포성이 씻은듯이 뚝 멎는 것이었다. 글세 전쟁이 끝났구나, 아 평화가 왔다. 헤어

졌던 사람들과 행방을 모르던 혈육들이 돌아오고 소식이 전해 왔다. 나도 기다렸다. 강건너 간 아버지와 오빠가 언제면 돌아오려나, 군사분계선이 임진강을 따라 그으졌다는 말이 나에게서는 귀등으로 들려오지 않았다.

이 소설은 실제로 일어난 일을 원형으로 삼아 썼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는가 아닌가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당대 사회의 역사적 흐름과의 연관 속에서 그려졌나의 문제이다. 그렇게 볼 때 월남한 동기의 설정은 전형적인 환경이 되지 못하고 한낱 우연성에 떨어질 뿐이다. 이처럼 월남한 사람을 두고 있는 북한의 이산 가족 이야기를 다루는 작품에서 월남한 동기가 그 역사성을 갖추지 못하고 만 것은 이 새로운 경향의 작품이 가진 근본적 한계로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는 이 새로운 접근법의 소설이 주로 단편소설이라는 점이다. 조국통일주제의 전통적 소설은 단편으로도 많이 발표 되었지만 동시에 중 장편 소설 형식으로도 선보였다. 1990년대 들어서서도 전통적인 접근법을 고수하는 작품들 예컨대 최승철의 『사슬과 심장』과 같은 작품은 과거의 방식을 그대로 따른 중편소설이다. 그런 것에 반해 이 새로운 경향을 띠고 있는 작품들은 하나같이 단편소설들이다. 이는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이 새로운 경향의 작품은 과거의 전통적이고 공식적인 이데올로기의 틀에서 약간 벗어나 새로운 삶의 현실을 설명하기 위해 나타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새로운 조짐은 아직 모색하는 단계이며 삶의 어느 한 지점에서 터져나온 것이지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다. 위에서 보았던 것처럼 아직 분단의 현실을 냉전의 논리에서 벗어나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단계에까지 이 새로운 경향이 나아간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이러한 제약은 작가들로 하여금 중 장편소설과 같은 것은 선택하지 못하게 만들고 오히려 단편소설을 통하여 모색하게끔 하는 것이다. 즉 과거의 방식은 더이상 아니지만 그렇다고 새로운 현실의 총체적 접근이 눈 앞에서 선하게 떠오르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과도기에서 작가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중 장편이 아니라 바로 단편소설인 것이다.

이상의 긴 과정을 통하여 1990년대 제기된 새로운 경향의 조국통일주제의 소설을 집중적으로 분석해보았다. 위에서 지적한 바대로 이러한 작품들은 아직 냉전의 틀을 깨지 못하고 여전히 과거의 잔재를 많이 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최근 이 통일주제 소설에서 나타난 새로운 경향과 흐름이 주는 의미는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미묘한 변화가 북한 사회, 좁게는 북한문학 내부에서 가지는 의미는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향후 북한 사회의 냉전 논리의 해체에 일정하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매우 중차대한 것이다. 남한의 현실을 다루다가 북한의 현실을 다루는 방식으로 바뀐 이 통일 주제 소설의 변화는 자신을 똑바로 쳐다보고 자신의 삶을 중심으로 이 세계를 인식할 수 있는 전환에 비유될 수 있다. 이러한 자기이해는 앞으로 통일의 과정에서 중요한 흐름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6. 맺 음 말

이상에서 보았듯이 1990년대의 문학은 새롭게 전개되는 국제적 여건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것은 1980년대 문학과 대조된다. 1980년대의 문학이 시작될 때 북한의 문학은 국제적 여건 보다는 그동안의 북한 현실을 바탕으로 문학이 시작되었다. 그동안 현실 내에서 존재하고 있었지만 의식적이든 의식적이 아니든 무시되어온 것들이 이 시기에 들어와 작가들의 시야에 들어오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동안 북한 주민들이 구체적 생활 현실에서 느껴왔지만 그것을 자기의식의 대상으로 삼아본 적이 없었던 것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해가 갈수록 이러한 경향은 강하여져 현존 사회주의의 변화가 문제되기 직전만 하더라도 정점에 올랐다. 물론 거기에도 당의 정책적 방침이 항상 작품의 결론으로 미리 잡아놓고 있었던 한계는 빠른 것이었지만 그 작품의 진행과정에서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삶의 구체적 현실이 묻어나와 공식적인 목소리를 당황시키는 경우도 없잖아 있었을 것이다.

이런 것에 비해 1990년대의 문학은 기본적으로 당의 정책적 배려가 그 이전에 비해 강하게 배어나 있으며, 이렇게 바뀐 데에는 오늘날 북한이 처하고 있는 국가적 위기와도 관련이 있다.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전처럼 작가들에게 일정한 자율성을 부여하기 어려워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작가들에게 일정한 당의 방침의 테두리를 다양한 통로를 통하여 제시하게 되고 작가는 이를 알게 모르게 받아들임으로써 위에서 우리가 보았던 경향의 문학이 되고 말았던 것이다. 즉 1980년대가 이룩한 성취가 이어지기 보다는 오히려 퇴보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그렇지만 거기에는 위에서 보았던 조국통일주제의 문학에서처럼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를 빚어 내기도 하지만 이것이 일정한 선을 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통일의 문제를 항상 반미구국 투쟁으로만 이해하던 차원에서 벗어나 북한 사람들의 일상적인 문제인 이산가족의 문제를 포착했다는 점은 그 자체로 결코 작은 변화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부분적이고 지배

적인 경향은 ‘사회주의 현실’ 주제의 문학에서 드러났던 일반적 경향일 것이다. 이것이 앞으로 계속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변주되면서 북한의 향후 문학을 이끌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역사인물 평가와 최근 북한 문학의 경향

1993年 12月 日 印 刷

1993年 12月 日 發 行

發 行 處：統 一 院

(情 報 分 析 室)

電 話：720-2143

印 刷 處：金剛文化印刷(279-6901)
